



전략연구 2021-24

충남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중심으로 -

김경태 · 이인배 · 조소진 · 김보람

목 차

제1장 서론	3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6
3. 연구 수행체계	8
4. 기대효과	9
제2장 농촌관광에 대한 이론고찰과 정책동향	10
1. 농촌관광의 개념정의	10
2. 농촌지역 관광정책 동향과 제도	13
3. 국내외 농촌관광 활성화 사례	38
제3장 충남 농촌관광의 실태분석과 과제도출	44
1. 충남 농촌관광 여건 및 현황분석	44
2. 충남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실태 분석	73
3. 충남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자 의견 분석	120
제4장 충남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143
1. 농촌관광 추진 정책 방향	143
2. 농촌관광 활성화 전략 추진 과제	147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49
1. 요약 및 정책제언	149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151
참고문헌	152

표 목 차

[표 1-1] 분야별 주요 연구내용	6
[표 1-2] 연구수행체계	8
[표 2-1]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13
[표 2-2] 정책사업을 통한 농촌관광마을 조성 현황(2011년)	14
[표 2-3]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2019)의 농촌관광 관련 주요 내용	16
[표 2-4]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관광 관련 주요 사업	17
[표 2-5] 도농교류활성화 지원사업	18
[표 2-6] 농촌체험관광 육성사업	19
[표 2-7]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19
[표 2-8]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사업	20
[표 2-9] 농촌축제 지원사업	20
[표 2-10]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체험휴양)사업	21
[표 2-11]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사업	21
[표 2-12] 농촌관광 관련 법률	23
[표 2-13] 10대 핵심 관광트렌드 지속성 분석	24
[표 2-14] 10대 핵심 관광트렌드 지속성 분석(계속)	25
[표 2-15] 코로나19에 따른 관광트렌드 변화와 영향	30
[표 2-16] 포스트 코로나시대, 농촌관광관련 예상되는 변화와 대응	31
[표 2-17] 농촌관광 총량	33
[표 3-1] 충남 행정구역 현황(2019년 기준)	44
[표 3-2] 충남 시군별 행정구역 현황	45
[표 3-3] 충남 인구현황(2020년 말 기준)	46
[표 3-4] 고령인구 비율(2000~2018년)	47
[표 3-5] 충남 시·군별 관광 관련 조례 제정 현황	48
[표 3-6] 충남 시·군별 관광 관련 조례 제정 세부현황	48
[표 3-7] 충남 시·군별 농어촌 관광지원 조례 제정 현황	50
[표 3-8] 충청남도 분야별 재정규모(2021년 기준)	51
[표 3-9] 충청남도 분야별 재정규모(계속)	52
[표 3-10] 충남 시·군별 농촌관광 관련 재정 현황(2021년 기준)	53
[표 3-11] 충남 시·군별 농촌관광 관련 재정 세부 현황(2021년 기준)	53

[표 3-12]	충남 시·군별 농촌 및 관광관련 조직구성 현황	54
[표 3-13]	충남 시·군별 농촌 및 관광관련 조직구성 현황	55
[표 3-14]	충남 마을만들기 행정사업 추진 종합현황(2012-2019년)	56
[표 3-15]	충남 마을사업의 역량단계별, 연도별 추이(2012-2019년)	58
[표 3-16]	충남 마을만들기 행정사업 참여 마을수 분석(2012-2019년)	59
[표 3-17]	충남 시·군 마을만들기(공동체)지원센터 추진상황(2021년 기준)	60
[표 3-18]	충남 업종별 상가(상권) 현황(2020년 기준)	61
[표 3-19]	충남 농촌지역 업종별 상가(상권) 현황(2020년 기준)	62
[표 3-20]	충남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2020년 기준)	62
[표 3-21]	충남 농촌체험휴양마을 세부 현황(2019년 말 기준)	63
[표 3-22]	충남 농촌교육농장 현황(2019년 기준)	64
[표 3-23]	충남 관광농원 현황(2021년 기준)	65
[표 3-24]	충남 음식점 현황(2021년 기준)	67
[표 3-25]	충남 시·군별 (예비)마을기업 지정 현황	69
[표 3-26]	충남 시·군별 (예비)마을기업 분야별 현황	69
[표 3-27]	충남 시·군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70
[표 3-28]	충남 시·군별 농촌 및 관광산업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70
[표 3-29]	충남 관광관련 협동조합 현황(2021년 기준)	71
[표 3-30]	천안시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74
[표 3-31]	천안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증감 현황	75
[표 3-32]	공주시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78
[표 3-33]	공주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증감 현황	80
[표 3-34]	보령시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82
[표 3-35]	보령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증감 현황	83
[표 3-36]	아산시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84
[표 3-37]	아산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증감 현황	86
[표 3-38]	서산시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87
[표 3-39]	서산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증감 현황	88
[표 3-40]	논산시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89
[표 3-41]	논산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증감 현황	91
[표 3-42]	계룡시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92
[표 3-43]	계룡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증감 현황	93
[표 3-44]	당진시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94
[표 3-45]	당진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증감 현황	95
[표 3-46]	금산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96

[표 3-47]	금산군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증감 현황	97
[표 3-48]	부여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98
[표 3-49]	부여군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증감 현황	99
[표 3-50]	서천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100
[표 3-51]	서천군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증감 현황	102
[표 3-52]	청양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103
[표 3-53]	청양군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증감 현황	105
[표 3-54]	홍성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106
[표 3-55]	홍성군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증감 현황	108
[표 3-56]	예산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109
[표 3-57]	예산군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증감 현황	110
[표 3-58]	태안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111
[표 3-59]	태안군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증감 현황	113
[표 3-60]	충남 농촌체험휴양마을 홈페이지 구축현황	116
[표 3-61]	충남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증감 현황(2018~2020)	118
[표 3-62]	충남 농촌체험휴양마을 실태조사 분석의 틀	121
[표 3-63]	충남 농촌체험휴양마을 실태조사 주요 내용	121
[표 3-64]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22
[표 3-65]	현재 국내 농촌활성화 정도	123
[표 3-66]	농촌관광이 활성화 되었다고 보는 이유(복수응답)	123
[표 3-67]	농촌관광이 활성화 되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복수응답)	124
[표 3-68]	향후 국내 농촌관광 활성화 전망	124
[표 3-69]	향후 농촌관광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는 이유(복수응답)	125
[표 3-70]	향후 농촌관광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복수응답)	125
[표 3-71]	향후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략(1~3순위)	126
[표 3-72]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요 개발분야(1~3순위)	127
[표 3-73]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하게 된 주된 목적/동기(계기)	128
[표 3-74]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는 농촌 체험(복수응답)	128
[표 3-75]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농촌관광을 위해 직접 운영 중인 시설(복수응답)	129
[표 3-76]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판매하는 품목(복수응답)	130
[표 3-77]	현재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만족도	130
[표 3-78]	현재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정도	130
[표 3-79]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이후 최근 5년간 마을 귀농귀촌자 증가정도	131
[표 3-80]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상 애로사항(복수응답)	131
[표 3-81]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1~3순위)	132

[표 3-82] 분야별 우수 및 개선 필요정도	133
[표 3-83] 충남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방문객수 및 방문객수 평균(3개년)	134
[표 3-84] 충남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매출액 및 매출액 평균(3개년)	135
[표 3-85] 농촌체험휴양마을 주요 방문객(1~2순위)	136
[표 3-86] 농촌체험휴양마을 주요 방문객의 지역(1~2순위)	137
[표 3-87] 농촌체험휴양마을과 현재 정기적 교류중인 단체(복수응답)	137
[표 3-88] 농촌체험휴양마을 온라인/오프라인 홍보활동 비중	138
[표 3-89]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 시 사용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복수응답)	138
[표 3-90] 사전예약 서비스 진행 방식(복수응답)	139
[표 3-91] 가능한 결제방법(복수응답)	139

그림 목 차

[그림 2-1] 2020~2024 관광트렌드 키워드	26
[그림 2-2] 농촌관광객 변화 추세	28
[그림 2-3] 과거 농촌관광의 목적과 향후 수요	29
[그림 2-4] 연도별/월별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수 변화 추이	29
[그림 2-5] 농촌관광 경험률 추이	32
[그림 2-6] 농촌관광 경험 동기	34
[그림 2-7] 농촌관광 시 이용한 숙박시설 유형	35
[그림 2-8] 농촌관광 시 주된 활동	35
[그림 2-9] 농촌관광 방문지역별 분포	36
[그림 2-10] 농촌관광 일정	36
[그림 2-11] 농촌관광 항목별 지출 비용	37
[그림 2-12] 농촌관광 활성화 요소	37
[그림 3-1]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	60
[그림 3-2] 충남 농촌관광 자원 분포 현황	66
[그림 3-3] 충남의 주요 인증 음식점 분포 현황	68
[그림 3-4] 충남 사회적경제 자원 분포현황	72
[그림 3-5] 충남 사회적경제 업종별 자원 분포현황	72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1)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농촌관광 정책 변화 필요¹⁾

농촌관광이 일찍부터 성장하기 시작한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농촌관광 시장이 관광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하고 있다. 경쟁과 전문적인 경영을 통해 관광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농촌관광을 ‘사업’이 아닌 ‘산업’의 관점에서 접근해온 결과이다. 전문적인 관광 경영체가 지역적으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네트워크화 되어 산업적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여러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개별화, 분절화, 파편화된 소비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김광선 외, 2016).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농촌관광은 매우 낯선 용어였다. 농촌지역으로 관광을 다녀오더라도 그것은 그냥 산 좋고 물 맑은 곳이나 명승지를 돌아보고 오는 유람에 불과했다. 농촌성에 대한 체험과는 거리가 먼 목적의 관광이었다. 그러나 관광부문의 시장규모 자체가 커지고, 관광소비자들이 개별화된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관광을 추구하게 되면서 농촌관광에 대한 소비자 수요나 시장 규모 역시 성장하여 왔다. 이제는 농촌관광이 과거와는 달리, 농촌 경제에 대한 기여가 증대하면서 농촌 지역경제의 기반 또는 농촌의 새로운 기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관광부문의 시장 확대, 농촌관광의 성장에도 충남 농촌관광은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여전히 많은 한계점을 극복해야 한다. 또 관광부문 자체의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할 때, 이제까지의 정책적 접근 역시 변화되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1) 김광선 외 2인(2016),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융·복합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용

우리 농촌관광에는 태생적 한계와 성장과정에서의 정책환경이 지닌 한계 등 많은 제약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농촌관광이 시작된 지 40년가량이 흘렀다. 그렇지만 40년간 우리 농촌관광은 크게 바뀐 것이 없다. 관광시장이 확대되면서 관광부문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산업기반을 갖추어가고 있는데도 농촌관광은 ‘산업’이 아닌 ‘사업’의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다. 관광부문이 국가 경제나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주연’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농촌관광은 농업과 지역개발에 대해 부수적인 ‘조연’ 역할을 강요받아 왔다. 관광산업 일반에서는 관광패러다임 변화와 맞물려 새로운 기술과의 융합, 그리고 다양한 부문과의 복합을 통해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 및 새로운 산업체계 형성으로 시장 확대와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있지만 농촌관광에는 그러한 융·복합의 대세를 받아들이고 활용할 만한 준비태세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 농촌지역 경제 침체와 농촌 발전 동력 모색 필요

농가소득의 정체로 1990년대 중반 이후 도·농 간 소득격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다.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과 비교한 농가소득의 비중은 1995년 95% 수준에서 2000년에는 80.6%로 감소하였으며 2001년에는 78.4%로 하락하였다. 정부의 농외소득 정책에도 불구하고 농촌에서의 고용 창출은 쉽지 않았다. 2004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자료 분석에 의하면(박시현 외, 2006) 69.8%의 일자리가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정도의 안정적 일자리는 절대적으로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마저 수도권이나 경남 등의 산업단지 주변 지역에 집중되어 나머지 농촌에서의 일자리 기회는 매우 적었다.

1997년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후 외생적 발전 전략의 대안으로 내생적 발전 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농촌 개발에서도 농촌지역 내부에서 나름대로의 성장 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발생하였다.

내생적 발전에 대한 관심 증대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 활용과 이를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기업가 정신, 그리고 지역 내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역량 강화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이후 농촌개발 분야에서도 내생적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를 실천하는 정책 개발 필요성이 높아졌다.

내생적 발전론에 입각한 농촌개발은 농촌공간을 상품화하는 것이다. 이는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원에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농촌공간의 상품화 노력은 농촌의 장소적 특성을 중요시한다. 소비지와 거리로 표시되는 입지, 경관, 지세, 기후, 물 등의 물리적 환경, 지역의 전통, 음악, 예술, 먹거리 등의 문화, 재능을 가진 지역주민, 지역주민의 개방성, 도시와의 교류 등이 지역자원이 될 수 있고 이를 상품화하는 것이야말로 내생적 발전전략의 요체이다(박시현 외, 2006).

농촌공간의 상품화 전략으로 대두된 대표적인 것이 농촌관광이다. 농촌관광은 주5일 근무제의 시행과 함께 유력한 농촌개발 수단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관광 참여 인력의 부족과 전문성 부족으로 농촌관광이 지역의 주요한 산업으로 성장하는 것에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영향 및 관광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충남 농촌관광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과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둔다. 즉, 코로나 19에 의한 단체관광객의 유치 어려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의 분권화, 기술혁신 등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충남 농촌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뉴노멀시대의 농촌관광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관광과 관련된 거시적 환경과 국내외 정책동향 및 선진사례, 중앙정부의 정책과 제도 등을 검토하여 정책적 방향성을 파악한다.

둘째, 충남 농촌관광의 대표적인 사업인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현황분석과 운영 실태 분석을 통하여 충남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변화하는 농촌관광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시사점과 과제를 도출한다.

셋째, 충남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도출된 정책과제를 통해 충남 농촌관광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관광목적지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과 이에 대한 추진 정책 및 제안 사업을 발굴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광역적으로는 충청남도 전 지역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되 협의적으로는 농어촌 관광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시간적 범위로는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한 2019년을 분석의 기준연도로 하고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하였다. 정책동향과 통계자료 분석은 농촌관광과 관련된 최근 5년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내용은 농촌관광 관련 이론적 고찰과 농촌관광 관련 정책 및 제도 변화, 국내외 사례검토, 충남의 농촌관광 실태분석과 정책과제 도출, 충남 농촌관광 새로운 전환과 활성화 방안 등으로 하였다.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첫째, 농촌관광 관련 이론고찰과 정책동향에서는 농촌관광의 개념과 범위 설정, 시대별 농촌관광 정책, 농촌관광 관련 법제도 분석, 농촌관광 여건 및 동향분석, 국내외 농촌관광 활성화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충남 농촌관광 관련 실태분석과 과제도출에서는 충남 농촌관광 여건 및 현황분석, 충남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관광 공급주체로 대표 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자 의견 분석, 시사점 및 정책과제의 도출 등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충남 농촌관광의 새로운 전환과 활성화를 위해 충남 농촌관광 추진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각 추진정책 방향별 전략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표 1-1] 분야별 주요 연구내용

이론 및 정책연구	실태분석과 과제도출	정책제안
농촌관광 관련 이론고찰과 정책동향	충남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 실태분석과 과제도출	충남 농촌관광 새로운 전환과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관광의 개념과 범위 설정 - 시대별 농촌관광 정책 - 농촌 관광 관련 법제도 - 농촌관광 여건 및 동향 - 국내외 농촌관광 활성화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농촌관광 여건 및 현황분석 - 충남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실태 분석 - 충남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자 의견 분석 - 시사점 및 정책과제의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 농촌관광 추진정책 방향 - 농촌관광 활성화 전략 추진 과제 - 정책 제언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① 농촌관광 관련 연구와 정책동향, ② 충남 농촌관광 실태분석과 과제 도출, ③ 충남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등에 따라 연구방법에 접근하였다.

(1) 농촌관광 활성화 관련 연구와 정책동향

문헌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농촌관광의 개념 및 유형, 시대별 농촌관광 정책 검토를 통한 농촌관광의 정의와 분야를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농촌관광과 관련된 정책동향과 활성화 정책, 국내외 사례를 제시한다.

(2) 충남 농촌관광 실태분석과 과제도출

각종 통계자료 및 중앙정부, 지자체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촌관광에 대한 거시적 환경변화와 동향 및 여건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충남지역의 농촌관광 실태 분석을 통한 과제도출을 위해 충남의 농촌관광 여건 및 현황분석과 농촌관광 공급주체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3) 충남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충남 농촌관광의 새로운 전환 및 활성화 방안 제시를 위해 충남 농촌체험휴양 마을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과제를 토대로 충남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주요 제안사업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 수행체계

본 연구의 추진과정은 서론에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이론고찰과 정책동향, 국내외 사례를 검토한다. 그리고 충남의 농촌관광 관련 실태분석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충남 농촌관광 새로운 전환 및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표 1-2] 연구수행체계

1장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연구목적	연구범위 및 방법 - 연구범위 - 연구방법	연구의 수행체계 - 연구추진체계 - 선행연구와 차별성
2장 이론고찰과 정책동향	농촌관광에 관련 이론고찰 - 농촌관광의 개념정의 - 농촌관광 배경 및 범위	농촌지역 관광정책 동향과 제도 - 농촌지역 관광 정책 동향 - 관련 정책 추진현황	국내·외 사례 검토 - 국내외 농촌관광 분야별 개발 및 운영사례
3장 충남 농촌관광의 실태분석과 과제도출	충남 농촌관광 여건 및 현황분석 - 충남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 충남 농촌관광 관련 법제도 분석 - 충남 농촌개발사업 추진현황 분석 - 충남 농촌관광 사업제 현황	충남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실태분석 - 충남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실태 - 충남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자 의견 분석	분석의 종합 및 정책과제 도출 - 농촌관광 관련 환경 여건 분석의 도출과제 - 충남 농촌관광 실태분석의 도출과제
4장 충남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정책추진방향 및 유형별 전략제시 - 농촌관광 추진 정책 방향 -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 추진 과제		
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종합정리와 정책제언 - 요약 및 정책제언 -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4. 기대효과

(1) 정책적 기대효과

본 연구는 충남도의 주요 정책인 농촌지역 활성화에 반영할 정책 추진 논리를 제공하고 충청남도 대응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뉴딜정책에 대응하여 국비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 학술적 기대효과

본 연구는 국내외 농촌관광 관련 개념과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확인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반영한 농촌관광 개념을 공고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현재 충남 농촌관광을 진단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관광을 관광적 측면에서 접근함으로써 농촌관광정책의 개별적 접근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방안 제시에 대한 학술적 기여를 기대한다.

제2장 농촌관광에 대한 이론고찰과 정책동향

1. 농촌관광의 개념정의

1) 농촌관광의 배경

농촌관광은 18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사회적 여가행위의 하나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20세기 후반에 와서 본격적으로 중요한 관광형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yamazaki, Oyama et al., 1997). 농촌관광의 추진 배경은 크게 농업 내부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농업 내부적인 요인은 전통적인 농업 정책에만 의지해서는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소득의 감소분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원 개발의 필요성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국내 관광의 주요 형태가 대중관광 위주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안관광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에 기초하고 있다(박시현 외, 2012).

우리나라에서는 1984년부터 농가의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농촌관광 휴양자원 개발 사업이란 이름으로 관광농원 조성사업, 민박마을 조성사업, 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2002년부터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마을단위로 농촌관광 관련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이인배 외, 2005). 이때의 농촌관광 정책은 관광농원과 같은 개별경영체 단위에서 벗어나 마을을 경영체로 하는 마을경영형 농촌관광 정책이다. 농촌관광 마을은 주변에 훌륭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거나 농촌관광을 추진할 리더가 존재하는 마을들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박시현 외, 2012).

2) 농촌관광의 개념

농촌관광과 관련된 용어는 녹색관광, 농업관광, 농장관광, 그린투어리즘 등 다양한 용어와 개념정의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농촌의 풍부하고 깨끗한 자연경관과 지역의 전통문화, 생활과 산업을 매개로 한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의 체류형 교류활동’(농림부, 2001)으로 농촌성(rurality)에 바탕한 체험과 여가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박윤희, 2003). 농촌관광은 농업지역 혹은 비도시지역에 존재하는 매력적인 요소나 행위로 구성되는 전원체험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농촌관광의 본질적 특질은 개방공간, 낮은 수준의 개발, 방문객의 농업 및 자연에 대한 직접 체험을 포함한다(Humaira Irshad, 2010).

이에 따라 Irshad(2010)는 농촌관광을 농장기반 또는 농업기반의 관광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찾는 휴가(에코투어리즘), 도보 활동, 등산 활동, 승마 활동, 모험 활동, 스포츠, 건강 관련 관광, 사냥, 수학여행, 예술작품 및 유산관광 등 매우 광범위한 범위는 갖는 것으로 인식한다. 가장 순수한 형태를 기준으로 볼 때 농촌관광은 ① 농촌지역에 입지해야 하며(입지성), ② 소규모 기업, 오픈 스페이스, 자연 및 유산과의 접촉, 전통사회와의 접촉, 전통적 관습과의 접촉 등 농촌의 특수성에 의존해야 하고 (농촌 특수성), ③ 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소규모성이 유지되어야 하며(규모의 농촌성), ④ 전통적이고 느리게 성장하면서 국지적으로 관리되고 지역의 장기적인 이점을 위해 개발되는 특성(개발의 농촌성 및 지역주민 연계)을 지녀야 한다.(김광선 외, 2016).

농촌관광이란 농촌지역에서 행해지는 관광행위를 통칭하는 용어로 농촌 환경과 자연 생태, 농촌생활, 농촌지역의 전통문화 등이 관광자원이 되는 것이며 농촌지역사회 주민이 자신들의 생업인 농업이나 생활문화, 농촌의 경관과 환경 등을 상품화하여 소득을 올리는 관광형태이다(고평훈, 2013).

우리나라의 농촌진흥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촌 관광을 농촌지역에서 주민들과의 교류를 바탕으로 한 체험활동 및 농촌의 자연과 환경, 역사와 문화, 농업이나 생활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관광형태라고 정의하였다. 주요 관광 활동으로는 농촌체험활동(체험휴양마을, 교육체험농장, 농촌축제, 자연휴양림, 농촌승마장, 관광농원 등), 농촌숙박(농촌민박, 고택숙박 등), 농촌 맛집 방문(농가맛집, 농가레스토랑, 향토음식점, 농가카페 등), 농촌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농촌 둘레길 걷기, 농촌지역에서 캠핑 등의 활동이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다.²⁾

또한 농촌관광은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 주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농촌관광의 경영주체는 농가와 지역주민이다. 농촌관광은 도시민이 농촌을 방문하여 그곳에 살고 있는 농촌주민들과의 교류를 바탕으로 그곳의 생활과, 역사와 문화, 자연과 경관 등을 폭넓게 향유하는 관광형태이다. 따라서 농촌관광은 농외소득의 증대 활동과 농촌지역 활성화에 연계된다(박시현, 2012).

2) 농촌진흥청 농사로(<https://www.nongsaro.go.kr/>)

2. 농촌지역 관광정책 동향과 제도

1) 농촌지역 관광 정책 동향

우리나라는 1970년대까지 정책용어에서 농촌관광이라는 말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 다양한 농외소득 증대 정책이 추진되는 등 개방농정으로 전환이 되었으며(유정규 2003), 이때 관광농원 등의 농촌관광 정책을 추진하면서부터 본격적인 농촌관광 정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83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의 제정으로 1984년부터 농외소득 증대의 일환으로 농공단지나 특산단지 등과 함께 관광농원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 후속으로 1989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1991년 민박마을 지원사업 등이 농외소득 증대 정책으로 추진되며 농촌관광이 도입·확대되기 시작한다(김광선 외, 2016).

1989년 휴양단지, 194년 관광농원, 1991년 농어촌 민박 사업 등 모두 농업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주체나 주요 내용, 정부지원, 사업규모 등이 아래의 표와 같이 약간의 차이점을 갖고 있다.

[표 2-1]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

구분	휴양단지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시작년도	1989년	1984년	1991년
사업주체	제한 없음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인 단체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
주요내용	농림어업 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 또는 용역 제공	숙박, 취사시설, 농산물판매, 조식제공
정부지원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 없음	융자금 지원 (운영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융자금 지원 (운영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사업규모	1만 5천㎡~100만㎡ 미만	2천㎡~10만 ㎡미만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단위
2005년 말	11개소	392개소	11,659개소
2015년 말	23개소	545개소	24,246개소
증감(%)	109.1	39.0	108.0

주: 각 사업의 주요 내용은 2016년도 기준임.

자료 : 김광선(2016),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융복합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자료 : 농림부(2006). 「농림업 주요통계」; 농림축산식품부(2016).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농림축산식품부(2015).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1980년대부터 시작된 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을 통해 2015년 말 기준 23개소의 휴양단지와 545개소의 관광농원, 24,246개소의 농어촌민박이 생겨났다. 이 사업들을 통해 농촌관광의 기반이 형성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여러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의 문제점은 첫째로 하드웨어 중심의 구성에 치중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시설위주의 투자지원과 더불어 하향식의 사업추진방식에 한계가 있었다. 셋째로는 사업추진주체가 주로 농어업인 단체나 농어업인 등으로 한정되다 보니 관광경영능력에 한계가 드러났다(김광선 외, 2016).

2012년 박시현 외 연구에서 정리한 아래의 표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단위 사업으로 농림부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어촌체험마을 사업이 있으며, 행안부의 정보화마을 사업, 아름마을 사업, 문체부의 문화역사마을 사업,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 테마마을 사업, 산림청의 산촌생태 마을 사업 등이 있다. 총 5개 부처에서 다양한 마을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마을당 사업기간은 예산규모 및 사업성격에 따라 1~5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정책사업을 통한 농촌관광마을 조성 현황(2011년)

소관 부처	관련사업	사업기간	조성마을 수(개소)	투입예산 (억 원)	지원내용
농식 품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004~17 · 권역당 5년	392	8,849	권역당 40~70억원 (국비 80%, 지방비 20%)
	녹색농촌 체험마을	2002~13 · 마을당 1~2년	571	1,042	마을당 2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어촌체험 마을	2001~13 · 마을당 1년	107	702	마을당 5억(국비 50%, 지방비 45%, 자부담 5%)
행정 안전부	정보화마을	2001~14 · 마을당 3년	400	1,658	마을당 3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아름마을	2001~03 · 마을당 3년	23	435	마을당 국비 10억원
문화 관광부	문화역사마을	2004~09 · 마을당 2년	13	239	마을당 10~30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지방비)
농촌 진흥청	농촌전통 테마마을	2002~09 · 마을당 2년	170	340	마을당 2억원 (국비 50%, 지방비 50%)
산림청	산촌생태마을	1995~2017 · 마을당 3년	242	3,364	마을당 14~16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합 계	8개 사업	-	1,918	16,629	-

주1 : 조성 마을 수는 조성 중인 곳까지 포함한 마을(권) 수임.

주2 : 투입 예산은 국비, 지방비 및 일부 자부담 포함이며 2010년 말 기준.

자료 : 박시현 외(2012).

원자료 : 농림수산식품부(2012) 자료를 바탕으로 수정.

2008년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도농교류촉진법)이 제정됨으로써 마을단위 농촌관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충실했다(박시현, 201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지정제를 통해 기존 정부의 사업지침에 따라 지원·육성되었던 농촌관광마을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체계적 운영·관리 및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농림수산식품부, 2008).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농촌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농촌관광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관광소비자들에게 농촌관광 선택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2013년부터 농촌관광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김광선 2016).

2) 농촌관광 관련 정책 추진현황

(1) 관계부처 합동 :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³⁾

관광 산업은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여가활동이자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저성장시대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하고 싶은 여가활동 1위가 관광(71.5%), 2위는 취미·자기개발(46.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부진으로 성장잠재력이 지속 하락하는 가운데,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관광산업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전 세계 GDP와 고용의 10%를 차지하는 세계관광시장 규모는 지속 확대되어 2017년 13억 명에서 연평균 성장률 2.9%로 2030년 18억 명까지 전망되며, 이 중 아시아 비중이 2017년 3.2억 명(24.4%)에서 2030년엔 약 5.3억 명(29.6%)까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UNWTO).

이에 관광을 국가성장의 필수산업으로 판단한 일본 등 세계 각 국가는 범부처적 지원을 통한 관광정책 추진으로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관광전략회의(총리주재)’를 신설(‘17.12.)하고 중장기 계획인 ‘관광진흥기본계획(‘18~’22)’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글로벌관광 시장의 관광산업 구조변화와 국내 관광여건이 빠른 시장 변화 속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를 과제로 대한민국 관광혁신 전략을 발표한다. 농촌관광 관련 세부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농림식품부, 해수부, 문체부 합동으로 지역 체험·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확충 방안이 제시되었다.

[표 2-3] 대한민국 관광혁신전략(2019)의 농촌관광 관련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체류형 농·어촌관광	지역 내 관광자원(음식·숙박·농어업 체험 등)을 활용하여 향토색을 반영한 체류형 농·어촌여행 프로그램 개발 - 전남 강진 : 영랑감성학교+한국민화박물관·고려청자박물관+농가숙박체험 등 - 경북 고령 : 농촌체험마을+할머니밥상+엿전찾기+대나무물총만들기+농가숙박체험 등
주민주도형 콘텐츠 개발	관광협약체(마을·경영체·지역활동가 등)를 구성, 농촌여행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하도록 지원(6개소) - 강원 원주 : 달맞이 페스티벌, 달맞이 테마로드, 아트마켓, 푸드스토리 다이닝 등 - 전북 김제 : 마당극 新공주말썽전, 공주꽃신 미니웨딩, 마을꽃차다방, 풍물난타 등 - 전남 곡성 : 장미축제, 토란마을축제, 햇불들고 고기잡기 축제 등
지역 연계 프로그램 개발	지역 내 관광자원(관광명소, 축제 등) 연계, 어촌으로 떠나는 기차여행 프로그램 운영(10개소) - 코레일과 협력하여 어업·해양·공예체험 1화+식사(수산물)를 제공하는 상품 출시(‘19.5월) - 운영마을 : 동삼(부산), 장사(속초), 수산(양양), 병술만(태안), 대야도(태안), 중리(서산), 신시도(군산), 석두(함평), 서중(강진), 이어(남해)

3) 관계부처합동(2019), 대한민국 관광혁신

생활관광 확대	<p>지역에 장기간 체류(한달살기 등)하며 현지인과 교류하는 체류형 생활관광상품 및 일상의 친근한 소재(중고서점, 3대맛집 등)를 스토리로 엮은 이야기 생활여행 콘텐츠 발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성을 살린 독특한 체험 프로그램*, 골목여행 프로그램 개발, 일상여행 스토리 공모전 개최 - 현지 특산물 등을 활용한 쿠킹클래스, 현지 예술가와 협업을 통한 아트스쿨, 지역축제와 연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	---

자료 : 관계부처합동(2019), 대한민국 관광혁신 전략

(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 활력 증진과 농산어촌 지역 주민의 농외소득 증대, 국민의 여가휴식공간 조성,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복합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농촌관광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2-4]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관광 관련 주요 사업

구분	주요 내용
일반농산어촌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산어촌의 여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 도모 - 지역 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강화 사업 지원(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역량강화)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18' → 1,256,220백만원, 19' → 1,322,278백만원, 20' → 748,384백만원, 21' → 876,257백만원)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활력 및 농외소득 증진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홍보 및 도시민 유치 확대 등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 -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비, 운영, 홍보비 등 지원 (18' → 7,848백만원, 19' → 7,846백만원, 20' → 8,428백만원, 21' → 10,028백만원)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활력 및 농외소득 증진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을 대상으로 사무장활동비, 보험가입 지원 등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 - 농촌유학,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농촌민박 안전교육 등 지원 (18' → 14,630백만원, 19' → 17,864백만원, 20' → 15,412백만원, 21' → 19,614백만원)
농촌융복합 산업지구조성 및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이 집적된 지역을 농촌융복합산업 지구로 지정하여 전후방 산업이 융복합된 지역특화산업의 클러스터로 육성 - (네트워크) 지역의 농업인, 생산자단체, 제조·가공업체, 체험·관광마을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하여 공동 홍보·마케팅·판매 등 공동사업 촉진 (18' → 16,350백만원, 19' → 11,800백만원, 20' → 11,700백만원, 21' → 11,700백만원)
지역단위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의 부존자원(1차산업)을 이용, 식품가공 등 제조업(2차산업), 유통·관광 등 서비스업(3차산업)을 융·복합하여 농촌산업을 고도화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18' → 14,110백만원, 19' → 12,780백만원, 20' → 10,680백만원, 21' → 10,680백만원)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지역 관광소비 활성화 및 경기 부양 유도 - 농어촌 지역 외승 활성화를 위해 외승관광승마 프로그램 참여비 지원 (18' → 1,800백만원, 19' → 1,800백만원, 20' → 1,993백만원, 21' → 1,800백만원)
찾아가는 양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우수 양조장을 발굴하여 인근 농촌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체험형 양조장으로 육성하며 지역의 융복합 농업자원으로 육성 - 양조장의 농촌관광 연계 컨설팅 및 환경개선 사업 지원 (18' → 96백만원, 19' → 96백만원, 20' → 96백만원, 21' → 96백만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1, 2021년 농식품 사업안내서

(3) 한국농어촌공사

도농교류활성화 지원사업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적·물적·문화적 자원의 교류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활력 증진과 및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2-5] 도농교류활성화 지원사업

구분	주요 내용
지원대상	도시민 및 농어촌 주민
사업목적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적·물적·문화적 자원의 교류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활력 증진과 및 농외소득 증대 - 도농교류 촉진, 체험프로그램 개발, 농어촌종합정보 제공, 체험마을 사후관리 및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내용	<p>농어촌여름휴가페스티벌 개최(6월), 농어촌관광 실수요층에 대한 정보 제공 - 농어촌여름휴가페스티벌 개최방식 변화를 통한 지역주체의 참여도를 제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농촌관광의 방향성 제시 - 월별·특성별·사업별 홍보 아이템 발굴 및 온오프라인 통합홍보 추진</p> <p>농어업·농어촌 가치인식 제고를 위한 도시민·청소년 체험활동 지원 - 민간단체(35개), 초등학교(50개) 공모선정, 현장체험 기회 제공</p> <p>농어촌관광 자원조사로 관광주체에게 정보제공 및 연계 프로그램 확대 - 관광농원, 농가맛집, 체험목장, 전통양조장 등 9개 테마 조사·DB화 - 철도노선과 농촌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 확대('14: 9 → '15: 15종) - 여행업계 프로모션, KOICA 씨앗(CIAT)사업을 농촌관광과 연계, 외국인 관광객 유치</p> <p>농어촌지역 일자리·소득창출을 위한 "농촌관광기업" 육성 - 체험마을, 농가맛집, 농촌민박 등 관광주체가 공동으로 상품개발, 홍보·마케팅, 역량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농촌관광기업 육성(8개소)</p> <p>마을 공동협의체(9개 도협의회) 육성, 체험마을 자생력 제고 지원 - 도단위 마을공동협의체 지원을 통해 공동으로 마케팅, 홍보, 역량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자립기반 마련</p> <p>"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확대 및 농촌관광경영체 품질관리 - 농촌관광사업 등급제 확대 및 품질 유지를 위한 지도점검 추진 * 등급결정 추진계획 : ('14년) 300개소 → ('15년) 350개소 - 농촌관광경영체 품질수준 통계화 및 농촌관광실태 조사로 정책결정 지원</p> <p>웰촌포털 활성화 및 앱개발 경진대회 등을 통한 고객맞춤형 정보 제공 - 체험휴양마을·농어촌지역 관광정보 제공 및 농어촌관광 신규 콘텐츠 개발 - 앱 개발자, 블로거 등에 농촌관광 DB자료를 개방하여 다양한 농촌관광 모델 발굴</p>
관련법률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제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제36조 농산어촌 투자유치 활성화, 제37조 도농 교류센터의 설치·운영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https://www.ekr.or.kr/>)

(4) 충청남도

① 농촌체험관광 육성

충청남도에서는 2002년부터 도시민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도농 간의 교류확대 및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촌체험관광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2-6] 농촌체험관광 육성사업

구분	내용	비고
사업목적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 및 지역농특산물 홍보를 통한 농가소득향상 및 도농교류활성화	
사업기간	2021~2025	
총사업비	8,298백만원	
주요사업 내용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고향마실 페스티벌,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존 운영,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행사 지원, 체험시설 등의 공공요금 지원, 체험시설 자동소독기 지원, 농촌마을 도농교류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센티브	
사업 근거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제6조 및 제12조	
추진주체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②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충청남도에서는 농촌체험관광 명품프로그램개발 및 경쟁력 있는 시설보완지원으로 농촌관광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7]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구분	내용	비고
사업목적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장 팜파티 활성화로 체험소득 다양화 농업 농촌 가치인식 제고로 충남 농업 이해 저변 확대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활동 연계 농촌체험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 치유형 농촌체험 프로그램 모델 개발을 통한 치유농업 기반조성 도시민 체험객에게 지역 농특산물과 연계시켜 직거래 촉진 및 판로확보 교육적 관점의 농촌의 가치 제고 및 농업농촌 활동 다양화 도모	
사업기간	2021~2025	
총사업비	8,469백만원	
주요사업 내용	충남 농촌체험학습 홍보전, 농촌체험운영 역량강화, 충남농촌체험학습페스티벌, 체험 프로그램 네트워크 활성화 시범, 농촌자원 활용 체험모델 보급	
사업 근거	도시와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법률 제3장 12조 도시와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법률에 따라 지원 제2장 6조	
추진주체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국	

③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

충청남도에서는 농촌관광주체 육성을 위해 체험마을 대표 등의 업무부담 경감 및 도농교류 활성화 도모 및 농촌유학센터 프로그램개발 및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 2-8]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사업

구분	내용	비고
사업목적	농촌체험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 도모 및 농촌유학센터 지원 등	
사업기간	2021~2025	
총사업비	8,298백만원	
주요사업 내용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 지역단위 농촌 관광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민박서비스안전교육, 농촌유학 지원	
사업 근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 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 제6조, 농어촌정비법 제86조 2 등	
추진주체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④ 농촌축제 지원

충청남도에서는 농촌 생활·경관·전통 등을 소재로 한 마을·권역단위 축제 지원을 통해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도농교류 등을 유도하기 위해 농촌 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9] 농촌축제 지원사업

구분	내용	비고
사업목적	농촌축제 지원	
사업기간	2021~2025	
총사업비	336백만원	
주요사업내용	농촌 생활·경관·전통 등을 소재로 한 마을·권역단위 축제 지원을 통해 농촌공동체 활성화 및 도농교류 등 유도	
사업 근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추진주체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체험휴양)

충청남도에서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체험휴양부문에서 10년 이상 노후 된 편의시설 및 환경정비 등을 지원하여 체험휴양마을 기반 유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10]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체험휴양)사업

구분	내용	비고
사업목적	10년 이후 노후화된 편의시설 및 환경개선 등의 리모델링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체험휴양마을 기반조성	
사업기간	2021~2025	
총사업비	2,124백만원	
주요사업내용	10년 이상 노후시설 리모델링 지원 4개소	
사업 근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12조	
추진주체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⑥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충청남도에서는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지역의 승마시설에서 운영하는 외승관광승마 프로그램 참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11]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사업

구분	내용	비고
사업목적	내실있고 균형잡힌 말산업 기반 강화로 농축산 미래 성장동력 창조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기간	2021~2025	
총사업비	770백만원	
주요사업내용	농어촌지역의 승마시설에서 운영하는 외승관광승마 프로그램 참여비 지원	
사업 근거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9조, 제14조, 제17조	
추진주체	축산과	

3) 농촌 관광 관련 법제도

(1) 관련 법률

농촌관광과 관련한 법률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1995년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을 위한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었다.

2004년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2007년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을 통해 지역활력증진 도모와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2009년에는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와 안전한 농수산 식품 공급을 위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2015년에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표 2-12] 농촌관광 관련 법률

법률명	주요 내용
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농업생산기반, 농어촌 생활환경,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이고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618호, 2020. 12. 8., 타법개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산림기본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74호, 2017. 11. 28., 일부개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며, 도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54호, 2020. 2. 4., 타법개정]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4) 농촌관광 여건 및 동향

(1) 국내 관광 트렌드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관광을 둘러싼 환경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5년간의 관광 트렌드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메가트렌드(10년 이상) 및 이머징 트렌드 이슈(1년 이내) 분석을 토대로 향후 5년간 관광트렌드를 도출하였다.

[표 2-13] 10대 핵심 관광트렌드 지속성 분석

2015~2019 핵심 관광 트렌드 (2014년)	2011~2014 핵심 관광 트렌드 (2010년)	과거 지속성과 변이	향후 5년 예측
1. 중국, 한국 관광 시장의 지형을 바꾸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급성장과 시장주도가 2016년까지 관찰	▼ 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이후 시장 다변화 중국 주도성 감소 전
2. 관광, 경계를 허물다	9. 레저 재정의 시대	2010년 일과 여가의 경계 모호화 →2014년 융합 관광으로 강조	◎ 여가시간 확대, 여행경험증가 등에 따라 지속. 발전 전망
3. 관광의 기본 가치 (NEW 3S: Safe, Sustainable, Social)존중여행 확산	10. 착한 관광소비자, 착한 관광기업의 시대 7. 관광산업, 그러니 비즈니스로의 도약	2010년 공정관광이 2014년 New 3S로 확대 변화(사회적 가치에 안전 추가) 2010년 관광산업 트렌드로서 '녹색관광'은2014년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통합 발전	◎ 환경문제 심화, 관광객들의 시민의식 개선 등으로 지속· 발전 전망
4. 모바일이 주도하는 새로운 관광생태계	6. 소셜네트워크가 주도하는 관광의 시대	2010년 소셜네트워크와 2014년 모바일의 중요성은 지난 10년간 관광생태계 변화 주도	◎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OTA 등에 의해 지속·발전 및 심화 전망
5. 즐거운 불편함, OR(Outdoor R ecreation) 여행	5. 체험하는 관광소비자, 트라이투어슈머의 부상	2010년 체험관광에서 2014년 친환경 . 건강레저 추구(캠핑 등)로 세부 영역 강화	◎ 아웃도어레크리에이션뿐 아니 라 기억에 남는 경험 소비, 능동적 여행 행태로 확대 발 전 전망

주: 트렌드별 향후 5년간의 지속성은 강(◎), 중(△), 약(▼)으로 평가함
자료 : 이원희 외2인(2019), 관광트렌드 분석 및 전망 :2020-202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표 2-14] 10대 핵심 관광트렌드 지속성 분석(계속)

2015~2019 핵심 관광 트렌드 (2014년)	2011~2014 핵심 관광 트렌드 (2010년)	과거 지속성과 변이	향후 5년 예측
6. 여유로움과 행복을 추구하는 여행문화, 슬로우 트래블	3. 건강을 생각하는, 헬스 투어리즘의 확산	2010년 건강에서 2014년 슬로우 트래블로 확대(웰빙과 힐링 트렌드지속)	△ 도시화, 경제 저성장 등에 따라 힐링 욕구 강화예상. 이러한 욕구를 투영한 관광트렌드 발현 전망
7. 지역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 떠나는 여행		2010년 일과 여가의 경계 모호화에 따라 도심등에서 즐기는 관광트렌드 전망 2014년 골목길 등 일상 지역으로 확대	◎ 여행경험 증가, 지역재 생공간 증가 등으로 지역주민의 삶과 문화 등을 체험하는 관광트렌드 지속 확대 전망
8. 스스로 결정하고 떠나는 DIY 여행	4. 소비자가 주도하는 창조관광의 시대	2010년 소비자가 주도하는 창조관광이 2014년 DIY 여행으로 구체화	◎ 여행경험 증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발전 등에 따라 개인의 취향과 관심사를 반영한다양한 개별여행 증가 전망
9. 관광의 新소비층으로 부상하는 중장년층	2. 뉴 시니어, 핵심 관광소비계층으로 부상	관광의 주요 소비층으로 2010년 뉴시니어, 2014년 중장년층 주목	◎ 고령화 심화, 건강하고 경제력 있는 고령층 확대 등으로 시니어 계층의 관광소비 지속 확대 전망
10. 칩시크(Cheap Chic)를 추구하는 실속형 관광 소비 정착	8. 네오 럭셔리 관광 소비의 확산	경제환경에 따라 2010년 네오 럭셔리(합리적 명품관광 및 고급 문화 소비 관광)에서 2014년 칩시크(실속형 세련 관광)으로 변화	◎ 경제 저성장 기조 심화에 따라 가성비 중시 경향 지속 전망. 물질적 소유 대신 가성비, 가심비 여행으로 심리적 만족을 채우는 관광소비 심화 전망

주: 트렌드별 향후 5년간의 지속성은 강(◎), 중(△), 약(▼)으로 평가함

자료 : 이원희 외2인(2019), 관광트렌드 분석 및 전망 :2020—202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를 통해 분석된 2020~2024년 10대 핵심 관광트렌드는 키워드는 “NEXT TRAVEL”로 여행의 일상화 속에서,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다음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경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현재와 다른 다음(next) 단계로의 변화 및 진화, 확장의 의미 또한 갖고 있다.

시장(관광객) 측면에서 볼 때, 여행 트렌드 변화를 이끌어 나갈 핵심 시장이 밀레니얼 세대뿐 아니라 Z세대로 확장되었고, 고령인구의 여행경험 성숙에 따라 구매력과 활동성을 겸비한 뉴시니어 층이 관광소비시장의 주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방한 인바운드 시장 역시, 기존에 편중되어 온 동북아 지역에서 벗어나 더 다양하고 세분화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산업 측면에서는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모바일과 플랫폼 비즈니스, AI 관광, 관광부문의 공유경제가 새로운 성장 국면을 맞이 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자원(목적지) 관점에서는 관광명소가 아니라 일상공간으로 관광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관광의 영역이 확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 이원희 외2인(2019), 관광트렌드 분석 및 전망 :2020—202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그림 2-1] 2020~2024 관광트렌드 키워드

(2) 농촌관광 여건⁴⁾과 향후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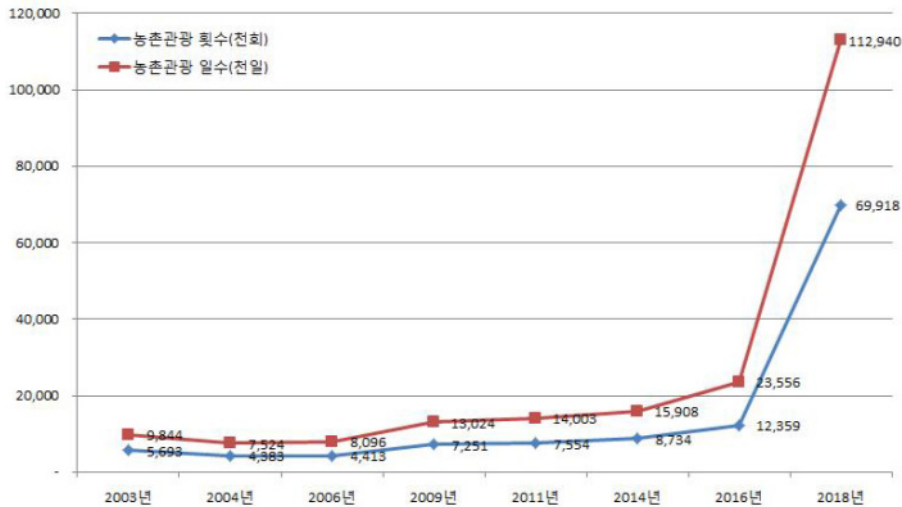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농촌관광은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1980년대부터 관광농원 조성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육성되었다. 그동안 관광객 수와 사업자 증가 등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대응 등 극복할 과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농촌관광은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하고, 주민들이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해야 하나 주민 고령화 등으로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농촌에서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새로운 가치를 접목하여 국내 관광시장을 주도하는 농촌 관광을 준비해야 한다. 사회트렌드의 변화와 함께 소비자의 욕구는 변화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이 농촌에서 기대 하는 것들도 변화하고 있다. 농촌관광을 둘러싼 핵심 사회트렌드 변화를 개인 맞춤형 소비, 쉼과 휴식, 가치지향소비, ICT 기반 스마트 라이프, 한류 등 트렌드 별로 농촌관광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야 한다. 특히 최근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 강화, 비대면 문화 확산 등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농촌관광 현장에서도 소규모 여행 증가, 안전한 운영과 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동안 국내 농촌관광은 양적인 성장 속에서 지역별 유사 프로그램, 지역 특화 콘텐츠 부족으로 관광객의 만족도는 정체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촌관광객 전반적 만족도는 2011년 80.6점에서 2016년 79.6점, 2018년 69.5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해져가는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특색 있는 경험과 매력 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와 함께, 청년 및 여성농업인이 농촌관광 사업에서도 강점과 두각을 나타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농업·농촌과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관광 콘텐츠로 젊은 층은 물론 다양한 연령층의 욕구 충족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 2018년 농식품부에 따르면 귀농·귀촌인 40세 미만 비율 50.0%, 여성귀농가주 32.9%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⁵⁾

격년마다 실시하는 ‘국민 농촌관광 실태조사’(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2003년 대비 2016년의 국민 농촌관광 횟수와 일수가 각각 2.2배 및 2.4배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각각 12.3배 및 11.5배 증가하는 등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촌진흥청(2020)에 따르면 2018년부터 조사

4) 황의식 외15인(2020), 코로나19대응 농업농촌부문 영향과 대응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국립농업과학원, 2020, 농촌관광 Insight1-농촌관광, 즐길거리 재발견

방법의 변화로 2016년 대비 2018년 수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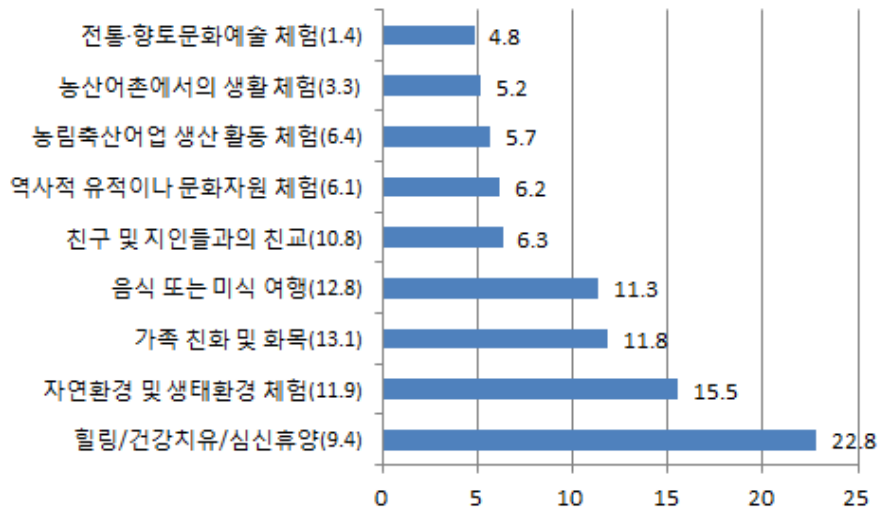


자료 : 농촌진흥청(2020).

[그림 2-2] 농촌관광객 변화 추세

농촌관광 경험률의 경우도 2003년 전 국민의 8.1%에 불과했던 상황에서 2018년에는 41.1%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관광 경험은 농촌 둘레길 걷기(19.1%), 농특산물 직거래(17.0%), 농촌 맛집 방문(16.6%), 농촌체험활동(11.3%), 농촌지역 캠핑(8.5%), 농촌숙박 경험(8.2%) 등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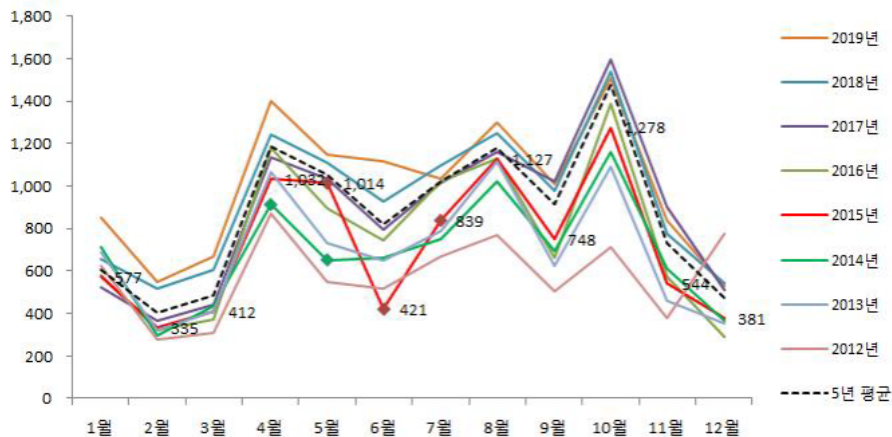
김광선 외(2016)에 따르면 농촌관광 행태의 특성과 향후 수요는 대안관광으로서의 농촌관광으로 가족, 미식, 자연·생태, 힐링·치유, 참여와 체험 등이 핵심 키워드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농촌관광은 가족, 친구 등과 함께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크며 인근지역 농촌방문과 높은 숙박률을 보인다. 농촌관광의 목적이 힐링·치유, 자연·생태, 가족친화, 미식 등으로 나타나 이제까지 농촌관광이 가족친화나 미식여행을 주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향후에는 농촌만이 제공할 수 있는 힐링·건강치유·심신휴양, 자연환경 및 생태환경 체험, 가족친화, 미식여행 등의 목적여행이 가장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 괄호는 농촌관광 유경험자들의 기존 농촌관광 목적 비중.

자료: 김광선 외(2016).

[그림 2-3] 과거 농촌관광의 목적과 향후 수요



자료: 황익식 외15인(2020), 코로나19대응 농업농촌부문 영향과 대응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림 2-4] 연도별/월별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수 변화 추이

(3) 코로나19에 따른 농촌관광 트렌드 변화와 여건분석⁶⁾

김현주 외(2020)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등 전염병 위협에 대한 민감성이 증대됨에 따라 관광객 및 관광기업의 안전·방역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관광시설과 관광지에서 위생·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염병 위협에 대한 민감성 증대의 영향으로 건강, 치유, 케어 등의 관광상품 수요가 증가하고 관광목적지 선택 시 공공의료 수준의 중요성이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청정한 자연환경/야외공간 선호 증가 트렌드와 관련하여 생태관광, 농촌관광 수요가 늘어나고 아웃도어형 관광수요가 확대되며 자연경관 연계형 숙박시설 선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자연 중심의 관광 소외지역이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의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염병 위협에 대한 민감성 증대에 따른 관광분야의 주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관광정책으로서 관광시설 및 관광지의 위생·안전관리 강화 지원과 관광산업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강화가 제시되었다. 또한 건강·힐링 관련 관광지 육성 지원 및 관광상품 활성화도 대응 관광정책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청정한 자연환경/야외공간 선호 증가와 관련하여 자연 중심의 관광 소외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 캠핑 등 야외 관광활동 증가에 따른 관련시설 확충이 대응 관광정책으로 제시되었다.

[표 2-15] 코로나19에 따른 관광트렌드 변화와 영향

구분	영향	대응 정책
전염병 위협에 대한 민감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 및 관광기업의 안전·방역에 대한 인식 제고 • 관광시설 및 관광지의 위생·안전관리 강화 • 건강, 치유, 케어 등의 관광상품 수요 증가 • 관광목적지 선택 시 공공의료 수준의 중요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시설 및 관광지의 위생·안전관리 강화 지원 -관광산업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강화 -건강·힐링 관련 관광지 육성 지원 및 관광상품 활성화
청정한 자연환경 /야외공간 선호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관광, 농촌관광 수요 증가 • 아웃도어형 관광수요 확대(캠핑, 등산 등) • 자연경관 연계형 숙박시설 선호 확대 • 자연 중심의 관광 소외지역의 새로운 관광지 부상 기대 • 지역의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 요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 중심의 관광 소외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 -캠핑 등 야외 관광활동 증가에 따른 관련시설 확충

자료 : 김현주 외(2020), 코로나19의 관광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6) 김현주 외(2020), 코로나19의 관광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2020년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예상되는 변화와 대응방안으로 5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변화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2-16] 포스트 코로나시대, 농촌관광관련 예상되는 변화와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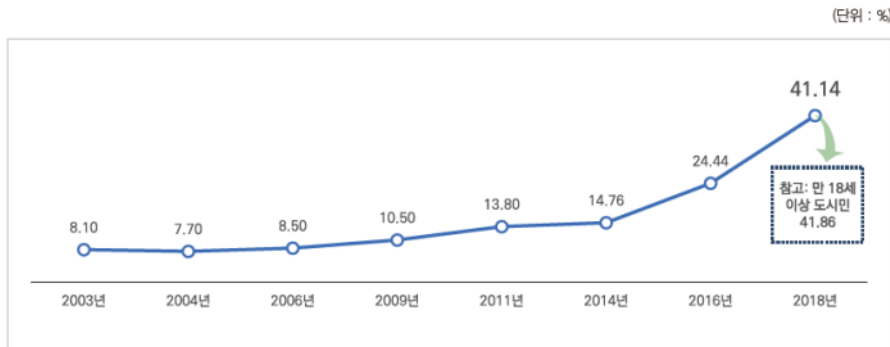
키워드	주요 내용
안전과 위생 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은 관광지 선택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농촌관광 운영자들은 비상연락망, 응급의료 체계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관광객들에게 안전과 방역 지침에 대해 사전에 안내해야 함 - 위생에 대한 관광객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청결한 개인용 침구, 수건 등을 준비하고 위생점검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체험과 식사에 사용하는 물품은 살균소독 등으로 청결하게 관리해야 함
비대면 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개별적으로 즐길 수 있는 산책, 자전거 여행, 마을전시관, 무인판매장 등의 여행코스를 발굴하고 안내하는 것이 필요함 - 4차산업혁명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기기와 유튜브, SNS 등을 통해 현지를 간접경험하는 여행이 늘어날 것임. SNS 및 영상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농촌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함
소규모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관광의 형태가 기존에는 단체여행 중심이었다면 가족단위 등 소규모 여행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음. 지역 내 유명 관광지 중심이 아니라 개별여행객을 위해 주민의 삶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근거리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에 대한 욕구 강화로 해외여행보다는 국내여행, 일상을 벗어나 주말에 짧은 여행을 통해 힐링을 느끼고자 하는 관광객이 증가할 것임. 관광객 맞춤형 코스개발로 'Only Me' 나만을 위한 여행이 되도록 함으로써 잊을 수 없는 경험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함
자연을 찾아가는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보다는 야외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관광지가 관광객들에게 선호될 것임. 농촌의 자연경관과 농촌다움을 적극 활용한 둘레길 걷기, 오토캠핑장, 자연감상, 생태관찰, 습지탐방 등 야외에서의 즐길거리 개발이 요구됨

자료 : 국립농업과학원, 2020, 농촌관광 Insight1-농촌관광, 즐길거리 재발견

5) 농촌관광 시장 동향⁷⁾

(1) 농촌관광 총량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 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2018 국민 농촌관광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농촌관광을 경험자는 4,223명 이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농촌관광 경험률은 41.1%으로 나타났다.



주 : 2018년부터 조사설계 및 방법이 변경되었으므로 연도별 추이의 결과해석 시 주의가 필요함

자료: 농촌진흥청(2019) 국립농업과학원, 2018 국민 농촌관광 실태조사

[그림 2-5] 농촌관광 경험률 추이

지난 1년간 농촌관광을 경험하지 않은 6,041명(58.9%)을 대상으로 미경험 이유를 조사한 결과, '바쁜 일상생활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가 31.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다음으로 '농촌관광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정보/안내 부족)'(27.8%), '농촌관광에 대한 관심이 낮아서'(15.8%) 순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농촌관광 경험자(4,223명) 기준 2018년 한 해 농촌관광 횟수는 3.77회, 일수는 5.98일, 농촌관광 지출액은 346천 원으로 나타났다. 만 15세 이상 국민 1인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 농촌관광 횟수는 1.55회, 일수는 2.50일, 지출액은 15만 5천 원이며, 만 18세 이상 도시민 1인 기준으로는 농촌관광 횟수 1.54회, 일수 2.56일, 지출액 16만 4천 원으로 분석되었다.

7) 농촌진흥청(2019) 국립농업과학원, 2018 국민 농촌관광 실태조사

2018년 농촌관광 총량을 추정한 결과, 농촌관광 총 횟수는 69,918천 회(당일 41,251천 회, 숙박 28,667천 회), 총 일수는 112,940천 일(당일 41,251천 일, 숙박 71,689천 일), 총 지출액 7,011십억 원(당일 2,098십억 원, 숙박 4,913십억 원)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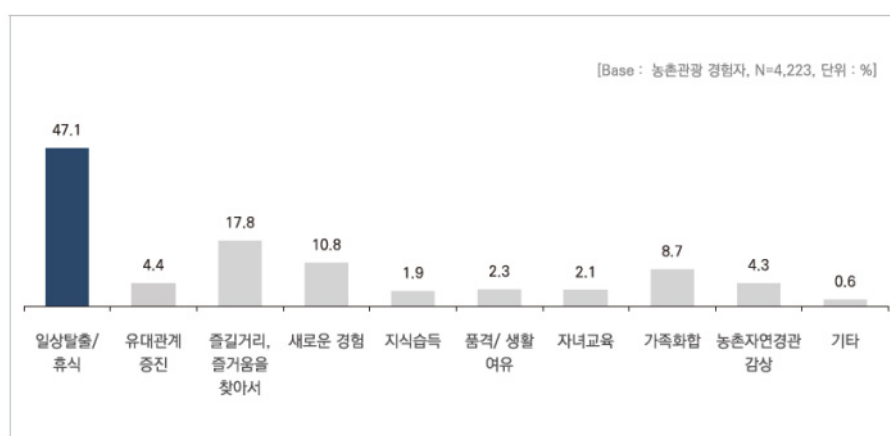
[표 2-17] 농촌관광 총량

구분		농촌관광 횟수	농촌관광 일수	농촌관광 지출액
단위		회	일	천 원
실측 (연간)	만 15세 이상 농촌관광 경험자(평균)	3.77	5.98	346
	만 18세 이상 도시민 농촌관광 경험자(평균)	3.67	6.08	360
산출	만 15세 이상 국민(1인당)	1.55	2.50	155
	만 18세 이상 도시민(1인당)	1.54	2.56	164
총량	계(당일+숙박)	69,917,778	112,939,546	7,011,364,824
	당일 관광	41,250,791	41,250,791	2,097,795,647
	숙박 관광	28,666,987	71,688,755	4,913,569,177

자료 : 농촌진흥청(2019) 국립농업과학원, 2018 국민 농촌관광 실태조사

(2) 농촌관광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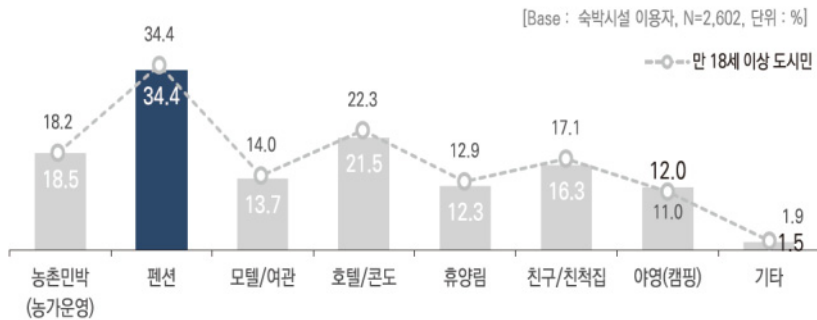
농촌관광을 하게 된 동기로 ‘일상탈출/휴식’이 47.1% 가장 많았고, ‘즐길거리, 즐거움을 찾아서’(17.8%), ‘새로운 경험’(10.8%), ‘가족화합’(8.7%) 순으로 나타났으며, 농촌관광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검색(PC 인터넷 검색 25.8%+‘스마트폰 인터넷 검색’(26.2%)을 통해 획득한다는 응답이 52.0%로 절반 수준을 차지하였다. 그다음으로 ‘주변인의 추천’(30.4%), ‘TV, 신문, 잡지 등 대중 매체’(9.7%) 순으로 분석되었다.



자료: 농촌진흥청(2019) 국립농업과학원, 2018 국민 농촌관광 실태조사

[그림 2-6] 농촌관광 경험 동기

농촌관광 시 숙박시설을 이용한 유형을 살펴보면, ‘펜션’(34.4%), ‘호텔/콘도’(21.5%), ‘농촌민박(농가운영)’(18.5%), ‘친구/친척집’(16.3%) 순으로 분석되었고, 해당 숙박시설을 선택한 이유로 ‘시설 편의성’이 23.4%로 가장 높았으며, ‘가격’(15.7%), ‘접근성’(14.6%), ‘주변 경관’(12.9%) 순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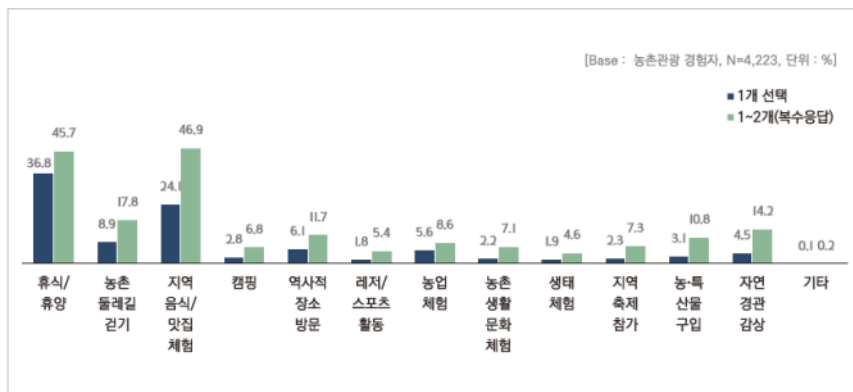


자료: 농촌진흥청(2019) 국립농업과학원, 2018 국민 농촌관광 실태조사

[그림 2-7] 농촌관광 시 이용한 숙박시설 유형

농촌관광 경험자(N=4,223)의 농촌관광 시 주된 활동으로 ‘지역 음식/맛집 체험’(46.9%)과 ‘휴식/휴양’(45.7%)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농촌 둘레길 걷기’(17.8%), ‘자연경관 감상’(14.2%)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는 10% 내외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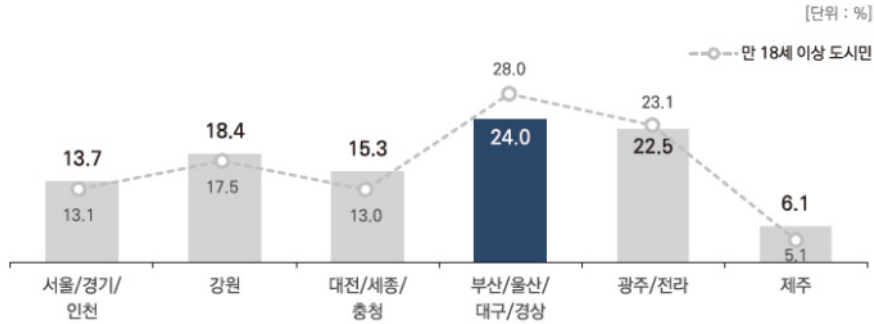
농촌관광 경험자 (N=4,223) 중, 지난 1년(2018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농촌관광 중 경험한 유형으로 ‘농촌 둘레길 걷기’가 32.6%로 가장 높았으며, ‘농촌 지역 맛집 방문’(29.3%), ‘농촌에서 농특산물 직거래’(25.1%), 농촌체험활동(19.1%)순으로 분석되었다.



자료: 농촌진흥청(2019) 국립농업과학원, 2018 국민 농촌관광 실태조사

[그림 2-8] 농촌관광 시 주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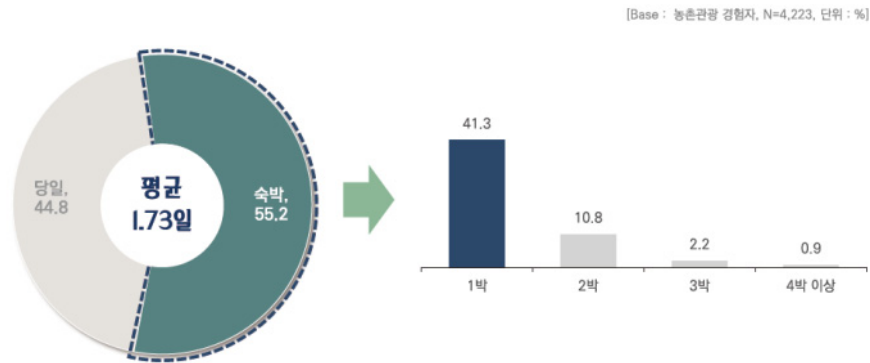
농촌관광 지역으로는 부산/울산/대구/경상 등의 영남권이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광주/전라(22.5%), 강원(17.5%), 대전/세종/충청(1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 농촌진흥청(2019) 국립농업과학원, 2018 국민 농촌관광 실태조사

[그림 2-9] 농촌관광 방문지역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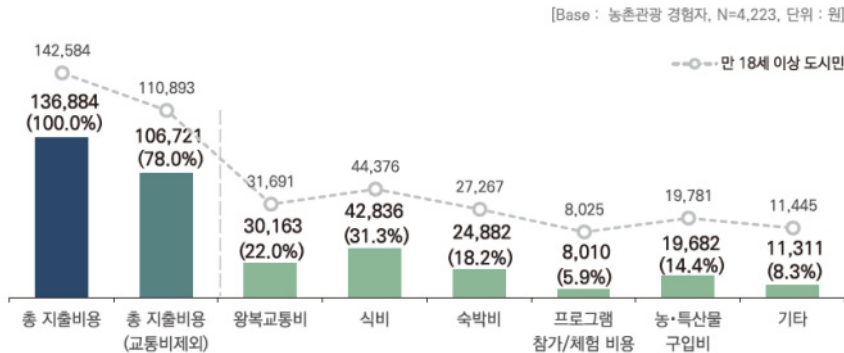
관광 일정은 당일(44.8%)보다 숙박(55.2%)이 좀 더 높게 나타났고, 숙박의 경우 '1박' (41.3%), '2박' (10.8%), '3박' (2.2%), '4박 이상' (0.9%)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 농촌진흥청(2019) 국립농업과학원, 2018 국민 농촌관광 실태조사

[그림 2-10] 농촌관광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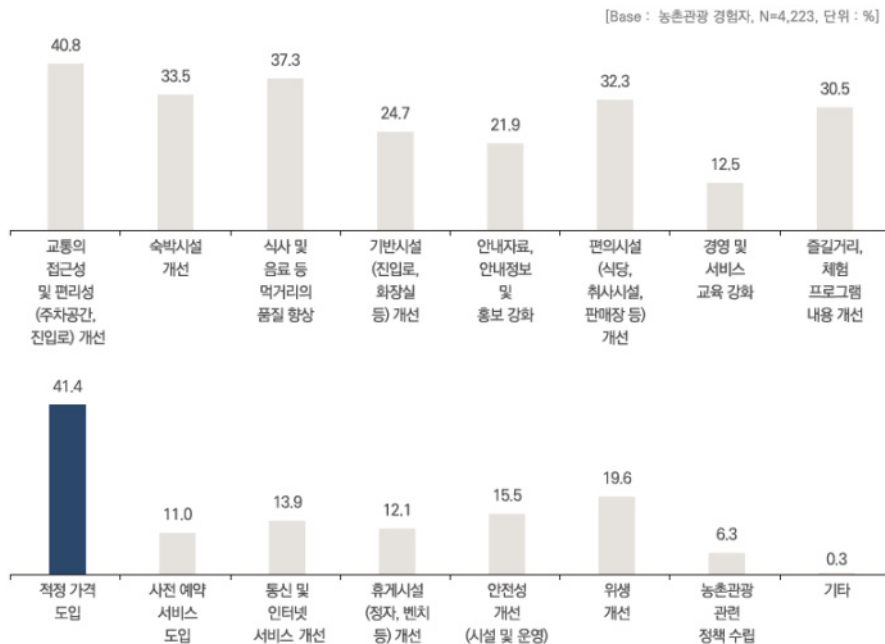
농촌관광 경험자를 기준으로 1인당 총 지출 비용은 평균 136,884원으로 교통비를 제외하면 106,721원으로 나타났으며, 항목별 지출 비용은 '왕복교통비' 30,163원, '식비' 42,836원, '숙박비' 24,882원, '프로그램 참가/체험 비용' 8,010원, '농·특산물 구입비' 19,682원으로 나타났다.



자료: 농촌진흥청(2019) 국립농업과학원, 2018 국민 농촌관광 실태조사

[그림 2-11] 농촌관광 항목별 지출 비용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으로 ‘적정 가격 도입’이 41.1%로 가장 높았으며, ‘교통의 접근성 및 편리성(주차공간, 진입로) 개선’ (40.8%), ‘식사 및 음료 등 먹거리의 품질 향상’ (37.3%)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 농촌진흥청(2019) 국립농업과학원, 2018 국민 농촌관광 실태조사

[그림 2-12] 농촌관광 활성화 요소

3. 국내·외 농촌관광 활성화 사례

1) 국내사례

(1) 제주 무릉외갓집

제주 서귀포 대정읍 무릉2리에 위치한 무릉외갓집은 마을기업으로 2009년 제주올레의 '1사 1올레 마을 협약'을 통해 자매결연한 벤타코리아와 마을회가 함께 만들었고 매달 제주의 제철 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를 회원들에게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좌기마을, 인항마을, 평지마을의 농부가 생산자로 참여하여 직접 기르고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⁸⁾ 2013년에는 크리에이터 그룹 리어Re:er에서 브랜딩과 디자인의 리뉴얼을 맡으며 무릉외갓집을 완성했다. 브랜드의 본질을 '농산물'과 '지역'이라 생각하고 BI부터 공간, 패키지, 홈페이지까지 모두 주인공인 농산물이 돋보이는 자연을 닮은 브랜드로 디자인했다는 설명이다. 2018년 당시 46농가가 참여하고, 매달 꾸러미를 배달받는 월간 꾸러미 회원은 400여 명, 주간 꾸러미 회원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외국인 교사 등 90여 명이다. 무릉외갓집은 복합영농에서 한 단계 발전해 6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꾀하고 있었다. 생산만 하던 농가가 고부가가치 상품을 가공하고 향토 자원을 이용해 체험프로그램 등 서비스업으로 확대시켜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6차 산업으로의 전환은 농촌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되고 있으며, 무릉도원 마을은 그러한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모델이다.

무릉외갓집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회원 배송서비스를 통해 마을소득을 올릴 뿐만 아니라 판매, 배송 등 모든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올레 11코스의 종점이자 12코스의 출발점에 자리 잡은 이점을 활용해 꽃자왈 탐방 프로그램, 감귤 모찌 만들기, 봄 감자 캐기 등의 다양한 체험거리도 제공하고 폐교(무릉동초교)를 자연생태문화체험골 및 게스트하우스로도 활용하고 있다.⁹⁾

8) 김민정, 마을을 성장시킨 농산물 꾸러미 무릉외갓집, 월간디자인, 2018년 5월호.

9) 한국지역정보개발원(2018), 지역정보화, 정보화마을을 가다 제주 서귀포시 '무릉도원 정보화마을'.

(2) 양평 수미마을

수미마을은 양평군 단월면 봉상2리에 위치한 수미마을은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으로 농촌관광 산업에 성공했다. 수미마을은 ‘365일 계절별 공정(公正) 축제가 열리는 마을’이라는 차별화된 콘셉트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공정축제’는 대규모의 소비적인 축제 대신 주민과 방문객이 중심이 되는 소규모 문화 체험을 주된 프로그램으로 삼는 축제를 말한다. 봄에는 딸기도시락축제, 여름에는 메기수염축제, 가을에는 몽땅구이축제, 겨울에는 빙어축제가 개최되고 찐빵·달고나 체험장과 밤 구워 먹기, 연날리기, 떡매치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부분은 마을에서 직접 운영하지만, 사륜 ATV체험장, 찐빵 체험장 등 주인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주민 창업을 유도해 일종의 ‘소(小)사장제’로 운영했다. 그러나 코로나 19가 발생하고 거리두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축제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시급했다. 수미마을은 예전부터 ‘밤나무 숲 자연 휴식지’로 유명했고 야영객이나 차박을 하는 사람들이 즐겨찾던 곳이었다. 쓰레기 배출, 환경오염 문제로 마을 주민이 꺼리던 것을 프로그램화 하여 운영하면 농가 소득과 연결할 수 있다 생각이 들었고 ‘가족끼리 캠핑’이 만들어졌다.

캠핑과 피크닉이 접목된 ‘가족끼리 캠핑’은 가족끼리 캠핑과 소풍을 즐기면서 기존의 체험 활동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당일 프로그램과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나뉘는데 ‘only one, only two, only five, only ten’ 등 사회적 거리두기 1~3단계별 체험 상품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 1박 체험상품인 ‘only one 패키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시 한 가족만 이용하고 ‘only two 패키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시 두 가족만, 당일 체험상품인 ‘only five 패키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시 다섯 가족만 이용하는 상품이다. 패키지 상품 내용은 1박 형 기준 원룸형 풀옵션 숙소, 캠핑공간 제공(차박·캠핑·노지 사이트 중 택), 민물고기사냥과 곤충채집 도구제공, 수미체험을 할 수 있다.¹⁰⁾

이렇게 개발된 상품은 이전처럼 다수의 관광객을 받을 수는 없지만 갑작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더라도 예약한 상품을 취소하지 않고 기존 계획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제한된 인원만 체험할 수 있어 안전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피자 만들기, 모종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상품별 3~5종을 선택할 수 있고 현장에서

10) 방은주, 압축한 코로나19 시대? 우리는 이렇게 극복해요, 양평시민의 소리, 2020.10.08.일자.

상품을 별도로 추가 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객의 선택폭을 넓혔다. 수미마을은 한국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을 통해 농촌 체험프로그램을 코로나19 상황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하면서 방문객이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농촌 체험 휴양마을의 확장가능성을 열고 있다.¹¹⁾

(3) 봉평 효석문화제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은 ‘메밀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노래한 가산 이효석(1907~1942) 선생의 ‘메밀꽃 필 무렵’이 탄생한 곳이다. 소설 속 배경인 봉평에서는 매년 메밀꽃이 피기 시작하는 9월이면 소설가 이효석을 기리기 위한 축제인 ‘효석문화제’가 열린다. 1999년부터 시작된 문화제는 백일장, 시화전, 문학의 밤, 전통 메밀 음식 만들기, 소설 속 메밀꽃밭 둘러보기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돼 매년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2014년부터 4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축제로 선정되었다. ‘효석문화제’가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메밀 꽃 재배와 축제 준비를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열정으로 준비한다는 점에 있다. 또한 지역, 문학, 전통 이 세 가지 만남이 효석문화제만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방문객들은 이러한 축제에 참여하면서 감동, 추억, 즐거움, 소설 속 장면을 체험하는 경험을 더할 수 있다.

현재 봉평의 메밀밭은 전국의 여느 메밀꽃과는 다른 차별성으로 인해 연간 300만 명이상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했고 9일간의 축제기간에만 50만 명이 찾고 있다고 한다. 지역 내 각계각층 인사 130여명으로 구성된 ‘이효석문학선양회’는 이효석 선생의 생가를 복원하고 그의 문학적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고장의 문화적 토양 위에 메밀꽃밭의 아름다운 경관을 더해 봉평 만의 특색 있는 축제인 지금의 ‘효석문화제’를 만들어 냈다. 메밀꽃 재배는 처음 2만여 평에 불과했지만 현재 25만평이 넘고 이효석 문학선양회에서 5개 메밀 작목반을 관리하고 거름이나 로타리 작업도 직접 해주고 있다.

봉평의 메밀은 가산 이효석 선생의 문학적 토양을 자양분으로 차별화를 이뤘고 이러한 문학적 토대를 계속 이어 나가면서 봉평 그린투어리즘이 꽃을 피웠다. ¹²⁾

11) 한울(2021),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가족끼리 캠프닉 : 양평 수미마을 최성준 대표, 한국농어촌공사

12) 이성주, 지역경제를 살린 경관농업(춘천시와 평창 봉평 메밀꽃 단지), 경주신문, 2018.08.09.일자.

2) 국외사례

(1) 일본 나가누마정

나가누마정은 삿포로 중심부에서 차로 50분 걸리는 도심 근교로 관광농원, 관광목장, 농산물 직매장, 온천 등 다양한 농촌 관광시설이 있는 지역이다. 이곳의 관광객은 2000년에 89만 명에 이르고 있었으나 대부분 당일치기로 체류형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농가 민박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대규모 숙박시설은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고 높은 위험성이 있으나 나가누마정은 평소에 이용하지 않는 빈 방을 가진 농가가 많고, 이 방을 활용하면 2~3명은 충분히 숙박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농가민숙을 소규모 단위의 관광객 숙박시설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농가 민숙도 호텔이나 여관과 같은 숙박 시설이기 때문에 갖추어야 할 시설에 대한 규제가 많이 있었고 나가누마정의 경우 소방 시설이 특히 부담이었다. 그래서 나가누마정은 경제 구조 개혁 특구 제도를 이용하여 간이 소방 시설의 설치 허용을 요구하는 규제 특별 완화 조치인 ‘나가누마정 농촌관광 특구’를 신청했다. 이는 2004년 3월에 승인되어, 숙박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화재 경보 설비 등의 설치가 면제되었고, 대규모투자를 필요로 하지 않은 상태로 농가 민숙을 개업할 수 있게 되었다. 나가누마정의 특구 승인 후 112호의 농가가 참여하여 ‘나가누마정 농촌관광 운영 협의회’가 설립되었다. 운영 협의회는 사무국은 나가누마정에 위치해 실질적인 업무는 행정기관이 대신하고 있다. 운영 협의회는 사업 개시 초기,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루의 숙박과 아침 식사만 제공하는 유럽형 ‘B&B(Bed and Breakfast)’로 시작하였고, 연구회 및 연수를 통해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는 연속 숙박과 아침 및 저녁 식사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수학여행 수용 사업’을 목표로 하는 농가 민숙 사업의 청사진이 제시되었다.

농가 민숙 시작 후 2006년에는 10개교의 1,002명, 체험학습에는 5개교의 783명이 방문하였으나, 2007년에는 17개교의 2,475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2006년의 수학여행은 모두 1박 2일뿐이었지만, 2007년에는 연속 숙박이 늘어났고 최대 수용 인원도 281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농림어업 체험 민숙의 등록대상을 농림어업인 또는 이를 조직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비농림 어업인까지로 확대하고 있다.¹³⁾

(2) 영국 컴브리아

영국 컴브리아(Cumbria)지역은 영국의 북서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수지역이라 불릴 만큼 산과 호수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다. 이곳은 소와 양을 주축으로 한 축산 주산지로 운영되었는데 2001년에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살처분 매립지를 만들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지역주민들은 다시 지역경제 부흥을 위해 ‘지속 가능한 농촌관광’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을 실현하기 위해 그들이 지향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환경, 어메니티, 전통,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되, 여기에 스토리텔링을 잘 가미하여 관광자원화 한다. 둘째, 조용하고 여유 있는 여행(슬로우 트래블, Slow travel)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만족도를 향상시킨다. 셋째,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농촌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킨다. 넷째, 농촌다움을 최대한 살리면서 소규모 비즈니스로 연결시킨다. 다섯째, 전체적으로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시스템을 구축한다. 목장주들은 서로 협력하여 관광객들이 초지 주변을 산책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고 축사 2층의 건조창고를 개조하여 티 룸(Tea room)을 만들어 경양식을 먹거나 차를 마시며 쉬기도 하고, 티 룸 유리창을 통해 축사에서 친환경적으로 키우는 젓소를 볼 수 있다. 지하 농기구 창고에서는 농산물, 축산가공품, 수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소규모 매장을 운영하는데 주변 농가들의 제품도 함께 판매하면서 상호 협력한다. 예전부터 이 지역에는 재래종 양(Herdwick 종)이 있었는데, 호주와 뉴질랜드의 메리노(Merino)종양에 밀려 사라졌다가 최근 ‘우리지역자원살리기’ 붐을 타고 다시 복원되었다. 토종 동식물을 복원하여 생태 다양성을 높이고 증세에 조성된 초지 돌담경계선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촌관광을 확보하고 지역의 네트워크 여성그룹을 결성하여 전통 손뜨개질을 이용한 양모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물레방아제분소에서는 친환경적인 소수력 에너지로 맷돌을 돌려 귀리를 제분하는데, 다소 거친 귀리가루로 빵이나 쿠키를 만들어 제분소 입구의 작은 찻집에서 판매한다. 공원이자 산림관리사무소 등에서는 주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새 모이 넣어주기, 새 집 짓기 등 야생동식물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림을 이용한 짚 와이어 프로그램과 산악자전거 코스 개발하여 산악자전거를 대여하고 목 공예품을 판매하고 체험하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¹⁴⁾

13) 김수석(2020), 일본의 농촌관광, 「세계농업」 제23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 김수석(2020), 영국의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사례와 시사점, 「세계농업」 제23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독일 라인스바일러마을

독일 중서부 라인란트 팔츠(Rheinland Pfalz)주에 라인스바일러(Leinsweiler) 와인 공동체마을이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다. 1935년에 개통된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포도주가도(wein straße)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품미가 뛰어난 명품 수제 포도와인의 명소로 유명하다. 라인스바일러 마을은 800년 전에 생긴 오래된 마을이며 라인란트팔츠 지방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중세 시대 건물과 거리가 남아있다. 그것도 박제화 된 박물관이나 기념관이 아니라 주민이 생활하는 주택으로 살아남았다. 외관은 마음대로 훼손할 수 없지만 내부 주거환경은 현대식 인테리어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

450여 명쯤 사는 전체 180가구 가운데 와인 농가는 12가구에 불과하나 와인 농가 끼리만 고부가가치 수익 창출의 기회를 독점하지 않는다. 와이너리를 소유하지 않은 나머지 농가도 조상이 물려준 마을의 공유자산인 '와인'으로 함께 먹고 산다. 와이너리를 중심으로 전후좌우에서 와인시음장, 전통식당, 농가민박시설 등을 운영한다. 이렇게 해서 라인스바일러 농가들은 독일 평균농가 소득 이상의 농외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부촌이다. 라인스바일러 마을을 찾는 관광객은 연간 5만 명이 넘는다. 독일 관광가도 중에서도 최상위 수준의 인기 있는 와인가도를 대표하는 중심마을답다. 관광객들이 묵어갈 수 있는 농박은 30가구 정도에서 운영한다. 한국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그 농박이나 펜션을 생각하면 오산이다. 웬만한 도시의 호텔보다 더 정갈하고 세련된 농박이 적지 않다. 농박은 독일 관광협회(DTV)에서 철저히 관리하며 모든 숙박 시설을 평가해 별점으로 등급을 매긴다. 와인가도 14개 마을을 대표하는 라인스바일러마을에는 관광청의 홍보 공무원 2인이 상주할 정도다.

라인스바일러는 물론 독일의 농촌마을에는 일회적인 구경이나 유흥 목적으로 농박을 찾는 뜨내기 손님들은 거의 없다. 대개 가족 단위의 장기 휴양객이 단골고객이다. 봄, 가을에는 3일 이상 체류하는 관광객, 여름에는 가족 단위의 7일 이상 머무는 장기휴양객이 대부분이다. 독일에는 농촌관광이 아니라 휴양이나 치유라 부른다. 농촌은 관광의 대상이 아니라 옷깃을 여미고 쉬러 오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상에 지친 도시 민들이 휴양과 치유를 목적으로 농촌을 찾는 체류형, 휴양형 농촌관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민 또는 농촌주민들은 '독일 국민들의 별장지기'로 불린다.¹⁵⁾

15) 정기석, 2000년째 포도농사하는 마을, 주민들 안 떠나는 이유, 오마이뉴스, 2017.01.10.일자.

제3장 충남 농촌관광의 실태분석과 과제도출

1. 충남 농촌관광 여건 및 현황분석

1) 충남 행정구역 현황

충남의 행정구역을 살펴보면 전체 207개 읍면동이 위치하고 있으며, 26개 읍, 135면, 46동(행정동)의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읍면지역은 총 161개 행정구역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행정구역을 살펴보면 천안시가 4개 읍, 8개면, 18개 행정동으로 충남지역 중 가장 많은 30개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인 읍·면 행정구역이 가장 많은 시군은 부여군으로 총 16개 행정구역(1읍 15개면)으로 구성되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충남 행정구역 현황(2019년 기준)

구 분	면적 (km ²)	합계	읍 · 면 · 동				통 · 리			반	비고
			읍	면	동		합계	통	리		
					행정	법정					
충청남도	8,245.54	207	26	135	46	123	5,773	1,376	4,397	25,238	
천안시	636.08	30	4	8	18	30	1,176	721	455	4,497	
공주시	864.15	16	1	9	6	27	392	142	250	2,011	
보령시	586.56	16	1	10	5	10	357	122	235	1,257	
아산시	542.79	17	2	9	6	19	566	144	422	2,759	
서산시	742.03	15	1	9	5	14	372	100	272	2,081	
논산시	555.58	15	2	11	2	11	495	70	425	2,450	
계룡시	60.70	4	1	2	1	1	88	20	68	519	
당진시	705.42	14	2	9	3	11	282	57	225	1,610	
금산군	577.24	10	1	9	-	-	257	-	257	1,112	
부여군	624.53	16	1	15	-	-	437	-	437	1,709	
서천군	366.12	13	2	11	-	-	315	-	315	1,284	
청양군	479.10	10	1	9	-	-	183	-	183	758	
홍성군	446.70	11	3	8	-	-	350	-	350	1,119	
예산군	542.65	12	2	10	-	-	315	-	315	1,244	
태안군	515.89	8	2	6	-	-	188	-	188	828	

자료 : 충청남도(2021), 2020년 충남 통계연보

충남도내 각 시군별 읍, 면, 동 행정구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3-2] 충남 시군별 행정구역 현황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동남구	유구읍	웅천읍	염치읍	대산읍	강경읍	두마면	합덕읍	금산읍	부여읍	장항읍	청양읍	홍성읍	예산읍	태안읍
목천읍	이인면	주포면	배방읍	인지면	연무읍	엄사면	송악읍	금성면	규암면	서천읍	운곡면	광천읍	삽교읍	안면읍
풍서면	탄천면	오천면	송악면	부석면	성동면	신도면	고대면	제원면	은산면	마서면	대치면	홍북읍	대술면	고남면
광덕면	계룡면	천북면	탕정면	팔봉면	광석면	금암동	석문면	부리면	외산면	화양면	정산면	금마면	신양면	남면
북면	반포면	청소면	음봉면	지곡면	노성면		대화면	군북면	내산면	기산면	목면	홍동면	광시면	근흥면
성남면	의당면	청라면	둔포면	성연면	상월면		정미면	남일면	구룡면	한산면	청남면	장곡면	대흥면	소원면
수신면	정안면	남포면	영인면	음암면	부적면		면천면	남이면	홍산면	마산면	장평면	은하면	응봉면	원북면
병천면	우성면	주산면	인주면	운산면	연산면		순성면	진산면	옥산면	시초면	남양면	결성면	덕산면	이원면
동면	사곡면	미산면	선장면	해미면	별곡면		우강면	복수면	남면	문산면	화성면	서부면	봉산면	
중앙동	신평면	성주면	도고면	고북면	양촌면		신평면	추부면	충화면	판교면	비봉면	갈산면	고덕면	
문성동	중학동	주교면	신창면	부춘동	가곡면		송산면		양화면	종천면		구항면	신암면	
원성1동	웅진동	대전1동	온양1동	동문1동	은진면		당진1동		임천면	비인면			오가면	
원성2동	금학동	대전2동	온양2동	동문2동	채운면		당진2동		장암면	서면				
봉명동	옥룡동	대전3동	온양3동	수석동	취암동		당진3동		세도면					
일봉동	신관동	대전4동	온양4동	석남동	부창동				석성면					
신방동	월송동	대전5동	온양5동						초촌면					
청룡동			온양6동											
신안동														
서북구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성정1동														
성정2동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백석동														
불당동														
부성1동														
부성2동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2) 충남의 인구현황

(1) 인구 현황

2020년 말 주민등록 기준 충남의 인구는 2,121천명으로 지자체별 인구 순서대로 살펴보면 천안시가 658,808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산시 316,129명, 서산시 175,591명, 당진시 166,249명, 논산시 116,675명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인 읍면 인구를 살펴보면 충청남도 전체 읍면지역 인구수는 총 1,122,725명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인구(2,121,029명)대비 약 52.9%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농촌인구를 살펴보면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총 7개 군부는 모든 행정구역이 읍면으로 이루어져 지자체 전체별 총인구수를 농촌지역 인구로 볼 수 있다.

충청남도의 9개 시부 중 계룡시 지역이 전체인구의 79.9%(34,204명)가 읍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당진시가 전체 인구(166,249명)중 61.5% (102,281명)가 농촌지역인 읍면 거주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충남 인구현황(2020년 말 기준)

(단위 : 명, %)

구 분	총 인구수	읍·면지역 인구수	총 인구수 대비 비중	동지역 인구수	총인구수 대비 비중	비고
충청남도	2,121,029	1,122,725	(52.9)	998,304	(47.1)	
천안시	658,808	125,352	(19.0)	533,456	(81.0)	
공주시	104,545	44,318	(42.4)	60,227	(57.6)	
보령시	100,229	39,908	(39.8)	60,321	(60.2)	
아산시	316,129	189,352	(59.9)	126,777	(40.1)	
서산시	175,591	82,066	(46.7)	93,525	(53.3)	
논산시	116,675	65,263	(55.9))	51,412	(44.1)	
계룡시	42,822	34,204	(79.9)	8,618	(20.1)	
당진시	166,249	102,281	(61.5)	63,968	(38.5)	
금산군	51,413	51,413	(100.0)	-	-	
부여군	65,354	65,354	(100.0)	-	-	
서천군	51,866	51,866	(100.0)	-	-	
청양군	30,948	30,948	(100.0)	-	-	
홍성군	100,102	100,102	(100.0)	-	-	
예산군	78,084	78,084	(100.0)	-	-	
태안군	62,214	62,214	(100.0)	-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2) 고령인구 비율

2018년 기준 시군별 고령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이 14.8%, 충청남도 17.5%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천안시 9.8%, 계룡시 10.2%, 아산시 12.2%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고령인구의 비율이 20%가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시군은 15개 시군 중 10개 시군으로 충남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고령화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의 고령인구 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전국은 연평균 4.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경우 2.6%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령인구 비율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은 태안군 4.5%, 보령시와 예산군이 4.1%, 서천군 3.9%, 부여군 3.8% 순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4] 고령인구 비율(2000~2018년)

(단위 : %)

구 분	2000	2005	2010	2015	2018	연평균 증가율
전국	7.0	8.9	10.9	13.1	14.8	4.2
충청남도	11.1	12.7	14.8	16.4	17.5	2.6
천안시	6.2	6.8	7.9	9.1	9.8	2.6
공주시	12.5	15.3	18.0	21.4	23.7	3.6
보령시	11.5	15.2	18.0	21.4	23.6	4.1
아산시	9.4	10.8	10.4	11.4	12.2	1.5
서산시	10.1	12.6	14.2	16.0	17.2	3.0
논산시	13.1	16.1	19.5	22.2	24.3	3.5
계룡시	5.3	6.2	7.1	8.6	10.2	3.6
당진시	12.2	15.5	15.7	16.3	17.3	1.9
금산군	14.9	19.6	22.8	26.1	28.5	3.7
부여군	16.1	20.9	25.1	28.9	31.6	3.8
서천군	16.8	22.0	26.3	30.7	33.5	3.9
청양군	17.9	24.3	28.4	31.3	32.6	3.4
홍성군	13.8	17.5	20.4	21.8	22.1	2.7
예산군	14.1	18.6	22.0	25.9	28.8	4.1
태안군	12.9	17.2	21.5	25.8	28.4	4.5

자료 : 충청남도(2020), 제 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원자료 : 통계청, 해당연도, 전국주민등록인구 통계

3) 충남의 농촌관광 관련 법제도 분석

(1) 관광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충남의 농촌지역 관광관련 법제도 분석을 위해 충청남도를 비롯한 15개 시·군의 관광관련 조례를 분석한 결과 총 49개의 조례 현황을 분석할 수 있었다.

지자체별 관광관련 조례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태안군이 9개의 관광관련 조례를 제정해 가장 많은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과 예산군이 각 6개, 천안시와 당진시가 각각 5개의 관련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충남 시·군별 관광 관련 조례 제정 현황

(단위 : 개)

구분	합계	충남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합계	49	6	5	1	4	3	4	3	3	5	1	4	1	2	1	6	9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충청남도 및 각 시군별 관광관련 조례 제정 세부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6] 충남 시·군별 관광 관련 조례 제정 세부현황

구 분	조례명	조례 제정 년도	비고
충청 남도	충청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019.12.30 조례 제 4636호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2020.07.10 조례 제 4767호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4.01 조례 제 4702호	
	충청남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5.07.20 조례 제 3998호	
천안시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2010.03.10 조례 제 3480호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2008.12.24 조례 제 3361호	
	천안시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8.09.11 조례 제1764호	
	천안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2017.11.21 조례 제1684호	
공주시	천안시 관광진흥 조례	2017.09.21 조례 제1667호	
	천안시 민간관광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2008.12.22 조례 제 995호	
	천안시 순환관광버스 운영 조례	2007.04.02 조례 제 792호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2015.12.08 조례 제1033호	
보령시	보령시 관광진흥 조례	2013.09.30 조례 제1021호	
	보령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2013.09.30 조례 제1015호	
	보령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2011.02.10 조례 제903호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에 관한 조례	1998.01.19 조례 제 288호	

구 분	조례명	조례 제정 년도	비고
아산시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11.05 조례 제1099호	
	아산시 관광진흥협약체 설치 및 운영 조례	2009.07.27 조례 제840호	
	아산시 관광진흥 조례	2009.03.16 조례 제 823호	
서산시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2003.12.31 조례 제 466호	
	서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2.07.10 조례 제861호	
	서산시 관광진흥 조례	2012.01.10 조례 제841호	
논산시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 및 분양 조례	2007.04.24 조례 제 618호	
	논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020.09.10 조례 제1420호	
	논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03.30 조례 제1056호	
당진시	논산시 관광발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6.02.11 조례 제1047호	
	당진시 관광진흥 조례	2015.02.13 조례 제417호	
	당진항만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2012.01.01 조례 제 234호	
금산군	당진시 난지도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조례	2012.01.01 조례 제 235호	
	금산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2019.09.30 조례 제2199호	
	금산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018.08.16 조례 제2138호	
부여군	금산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14.07.30 조례 제1952호	
	금산군 금산안삼악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조례	2013.08.06 조례 제1921호	
	금산군 농촌관광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6.01.05 조례 제1643호	
서천군	부여군 관광진흥 조례	2015.08.14 조례 제2157호	
	서천군 농어촌관광사업 지원 조례	2009.12.07 조례 제1994호	
	서천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2021.03.30 조례 제2709호	
청양군	서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2010.11.29 조례 제2029호	
	서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2012.11.15 조례 제2132호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	2018.12.15 조례 제2328호	
홍성군	홍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0.09.29 조례 제2726호	
	홍성군 관광진흥 조례	2018.03.15 조례 제2472호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2016.12.23 조례 제2329호	
예산군	태안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05.23 조례 제1473호	
	태안군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	2020.03.26 조례 제1465호	
	태안군 관광해상 바다낚시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2016.12.30 조례 제1271호	
태안군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관리협의회 운영 조례	2007.07.18 조례 제830호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07.07.18 조례 제831호	
	태안군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2.09.28 조례 제1039호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위에서 충청남도 및 충남도내 15개 시군의 관광관련 조례제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제정 된 조례의 유형 및 개수에는 차이가 났으나 모든 시군에서 관광관련 조례를 제정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범위인 농촌지역 관광활성화와 관련하여 법제도적 검토를 위해 각 시군별로 제정되어있는 농어촌 관광지원관련 조례 제정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금산군과 서천군을 제외 한 모든 시군에서는 관련조례가 제정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산군은 2006년 금산군 농촌관광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농촌관광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서천군은 2009년 서천군 농어촌관광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충남 시·군별 농어촌 관광지원 조례 제정 현황

구 분	농어촌관광사업 지원 조례 유무	조례명	조례 제정 년도
충청남도	×	-	-
천안시	×	-	-
공주시	×	-	-
보령시	×	-	-
아산시	×	-	-
서산시	×	-	-
논산시	×	-	-
계룡시	×	-	-
당진시	×	-	-
금산군	○	금산군 농촌관광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2006.01.05.(제1643호)
부여군	×	-	-
서천군	○	서천군 농어촌관광사업 지원 조례	2009.12.07(제1994호)
청양군	×	-	-
홍성군	×	-	-
예산군	×	-	-
태안군	×	-	-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2) 관광 관련 재정현황

2021년 기준 충청남도 및 충남도내 15개 시군의 분야별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충청남도 및 충남도내 15개 시군 전체 재정규모 합계는 약 23조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충청남도가 9조원, 충남도 15개 시군 합계가 약 14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문화 및 관광부문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충청남도 재정을 합한 전체 재정에서 6.0%(1조원) 가량이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충남도 자체 예산을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예산으로 9조원 중 약 4.1%(3,685억원)가 편성되어 있었으며, 도내 15개 시군 합계를 살펴보면 약 7.3%(1,11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충청남도 분야별 재정규모(2021년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충남계	충청남도	시군합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합계	23,179,880	9,019,777	14,160,102	2,445,260	1,017,371	874,753	1,337,775	1,167,688	1,022,474
일반공공 행정	2,474,747	1,049,783	1,424,964	193,009	26,628	64,755	195,221	143,264	153,811
공공질서 및 안전	899,532	569,824	329,708	68,187	20,840	26,777	16,306	22,825	11,190
교육	495,480	347,472	148,009	52,062	6,927	5,839	10,685	5,902	10,397
문화 및 관광	1,396,614	368,525	1,028,089	111,558	121,607	80,790	73,312	73,970	54,007
환경	1,515,249	544,889	970,359	136,130	30,906	52,993	90,573	85,417	59,368
사회복지	6,290,126	2,960,184	3,329,941	744,687	213,644	202,304	317,686	277,835	252,587
보건	514,969	200,991	313,978	61,131	21,669	14,003	33,305	21,151	26,066
농림해양수 산	3,359,615	1,266,966	2,092,650	159,143	113,790	158,496	107,569	206,731	109,482
산업· 중소기업 및에너지	830,423	427,108	403,316	87,623	23,094	37,210	37,782	23,490	27,803
교통 및 물류	1,153,965	302,644	851,322	204,739	62,677	28,937	116,340	56,209	78,686
국토 및 지역개발	2,005,853	423,223	1,582,630	404,462	125,911	90,297	169,853	126,290	125,767
과학기술	17,308	15,395	1,912	-	-	-	1,885	-	-
예비비	125,076	15,236	109,841	24,333	23,016	5,222	12,897	5,746	7,062
기타	2,100,922	527,538	1,573,385	198,196	226,662	107,130	154,363	118,858	106,248

자료 : 지방재정365(<https://lofin.mois.go.kr/portal/main.do>), 2021.4.18.기준

시군별 재정 중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 편성 비율을 살펴보면 부여군이 전체 예산 중 (8,022억원) 약 13.0%(1,041억원)이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다음으로 공주시 12.0%(1,216억원), 청양군 9.7%(558억원), 보령시 9.2%(807억원), 예산군 8.2%(73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3-9] 충청남도 분야별 재정규모(계속)

(단위 : 백만원)

구분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합계	290,331	1,012,009	638,089	802,272	590,756	575,276	850,520	899,428	636,100
일반공공 행정	74,840	55,205	70,909	130,990	19,490	66,306	110,435	61,457	58,644
공공질서 및안전	5,987	19,194	13,062	8,260	6,546	20,501	10,034	68,738	11,261
교육	2,349	12,906	6,420	3,515	2,835	2,250	3,684	11,009	11,229
문화 및 관광	23,610	70,252	47,070	104,166	44,225	55,898	54,279	73,596	39,749
환경	23,031	66,108	56,380	28,587	45,629	48,243	68,939	133,248	44,807
사회복지	59,391	258,945	129,271	161,871	145,097	88,721	194,265	154,737	128,900
보건	5,760	23,088	15,142	18,155	13,201	13,441	19,599	12,168	16,099
농림해양 수산	17,189	194,914	116,556	166,271	122,772	125,791	163,585	168,566	161,795
산업·중 소기업및 에너지	5,406	53,426	18,059	13,523	11,870	11,559	11,720	21,977	18,774
교통 및 물류	20,939	48,677	36,326	22,822	43,169	16,894	35,956	52,832	26,119
국토 및 지역개발	12,949	86,368	62,376	63,046	69,428	51,839	97,090	57,610	39,344
과학기술	-	-	-	-	-	-	27	-	-
예비비	3,271	3,136	3,202	5,133	2,694	8,024	2,219	2,050	1,836
기타	35,609	119,790	63,318	75,931	63,801	65,809	78,688	81,439	77,543

자료 : 지방재정365(<https://lofin.mois.go.kr/portal/main.do>), 2021.4.18.기준

2021년 기준 충청남도 및 충남 15개 시군의 농촌관광과 관련 된 농촌관광, 귀농귀촌 귀어, 체험마을, 휴양마을, 어촌체험, 농촌체험, 마을만들기 등 주요 재정규모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재정규모 59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마을만들기로 전체 예산의 36.5%(21,514백만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관광과 관련 된 예산은 4.4%(2,613백만원)로 나타났다.

[표 3-10] 충남 시·군별 농촌관광 관련 재정 현황(2021년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		합계	농촌관광	귀농귀촌귀어	체험마을	휴양마을	어촌체험	농촌체험	마을만들기
총계*	예산	59,018	2,613	7,908	3,624	6,011	968	16,380	21,514
	비중	100.0	4.4	13.4	6.1	10.2	1.6	27.8	36.5
15개	예산	49,251	1,446	6,530	2,682	4,893	764	15,720	17,216
시군합계	비중	100.0	2.9	13.3	5.4	9.9	1.6	31.9	35.0

*총계는 충청남도 및 충남도내 15개 시군예산 총계를 나타냄

자료 : 지방재정365(<https://lofin.mois.go.kr/portal/main.do>), 2021.4.18.기준

[표 3-11] 충남 시·군별 농촌관광 관련 재정 세부 현황(2021년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		충청 남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합계	예산	9,767	330	3,922	3,647	4,631	1,349	2,332	114	806	2,718	1,785	1,383	2,716	2,290	20,920	308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촌 관광	예산	1,167	4	194	67	184	101	74	20	16	155	117	226	26	173	89	-
	비중	11.9	1.2	4.9	1.8	4.0	7.5	3.2	17.5	2.0	5.7	6.6	16.3	1.0	7.6	0.4	-
귀농 귀촌 귀어	예산	1,378	65	723	481	412	154	155	22	270	439	326	325	1,439	426	1,208	85
	비중	14.1	19.7	18.4	13.2	8.9	11.4	6.6	19.3	33.5	16.2	18.3	23.5	53.0	18.6	5.8	27.6
체험 마을	예산	942	1	4	684	4	65	74	0	101	1,734	3	7	-	2	3	-
	비중	9.6	0.3	0.1	18.8	0.1	4.8	3.2	0.0	12.5	63.8	0.2	0.5	-	0.1	0.0	-
휴양 마을	예산	1,118	-	1,288	5	87	3	5	20	-	-	-	192	439	40	2,806	8
	비중	11.4	-	32.8	0.1	1.9	0.2	0.2	17.5	-	-	-	13.9	16.2	1.7	13.4	2.6
어촌 체험	예산	204	-	-	656	-	-	-	-	-	-	-	43	-	-	-	65
	비중	2.1	-	-	18.0	-	-	-	-	-	-	-	3.1	-	-	-	21.1
농촌 체험	예산	660	49	596	108	242	79	197	52	133	40	115	270	439	315	12,963	122
	비중	6.8	14.8	15.2	3.0	5.2	5.9	8.4	45.6	16.5	1.5	6.4	19.5	16.2	13.8	62.0	39.6
마을 만들기	예산	4,298	211	1,117	1,646	3,702	947	1,827	-	286	350	1,224	320	373	1,334	3,851	28
	비중	44.0	63.9	28.5	45.1	79.9	70.2	78.3	-	35.5	12.9	68.6	23.1	13.7	58.3	18.4	9.1

자료 : 지방재정365(<https://lofin.mois.go.kr/portal/main.do>), 2021.4.18.기준

(3) 관광관련 조직구성 현황

충남 농촌지역 관광활성화 방안 정책추진을 위해 충청남도 및 도내 15개 시군의 조직별 농촌관광 관련 업무분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문화관광 관련 조직이 아닌 농촌관련 조직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농촌관광관련 업무분장 현황을 살펴보면 천안시를 비롯한 10개 시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산시와 부여군의 경우 농촌관광 관련 업무 분장을 별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충남 시·군별 농촌 및 관광관련 조직구성 현황

구 분	조직체계(농촌)			농촌관광 업무분장	비고
충청 남도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농촌정책팀	o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 사업 추진, 농어 촌민박 및 관광농원 관련 업무추진,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촌자원팀	o	농촌체험,치유농장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농촌체험팀	o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 및 육성 관리, 농촌체험 콘텐츠개발 등, 농촌체험 농장, 교육농장 육성지원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생활자원팀	o	농촌체험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사회적경제과	생활자원팀	x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촌자원팀	o	농업·농촌자원 발굴 소득화, 농산물 가공·체험사업 운영 지원, 농촌체험,
논산시	동고동락국	농업정책과	농정혁신팀	o	농촌체험관광, 농촌축제
계룡시	안전건설국	농림과	농업정책팀	x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농촌융복합팀	o	농어촌민박, 6차산업 지역특화 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촌자원팀	o	여성농업인 교육 운영 지원농촌체험 농장 육성 지원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생활자원팀	x	
서천군	-	농정과	농업정책팀	o	농촌체험휴양마을 리폼사업, 농촌관광자원 개발육성 및 관리,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및 기반조성
청양군	-	농촌공동체과	농촌활력팀		체험마을, 관광농원
홍성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	농촌자원팀	o	농촌체험업무
예산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생활자원팀	o	농촌체험관광활성화 사업
태안군	산업건설국	농정과	농촌행정팀	o	농어촌 민박, 농어촌 체험마을

자료 : 각 시군별 홈페이지

충청남도의 경우 농촌활력과 농촌정책팀 외에도 관광진흥과 국내관광팀에서 농촌관광 관련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군단위에서는 문화관광 관련 조직에서 별도로 농촌관광 관련 업무는 추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3] 충남 시·군별 농촌 및 관광관련 조직구성 현황

구 분	조직체계(관광)			농촌관광 업무분장	비고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국내관광팀	o	농촌체험형 충남 특화관광상품 개발 운영
천안시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관광팀	x	
공주시	문화복지국	관광과	관광정책팀	x	
보령시	해양수산관광국	관광과	관광진흥팀	x	
아산시	복지문화국	문화관광과	관광기획팀	x	
서산시	복지문화국	관광과	관광사업팀	x	
논산시	친절행정국	관광과	관광진흥팀	x	
계룡시	행정복지국	문화체육과	문화관광팀	x	
당진시	문화복지국	문화관광과	관광기획팀	x	
금산군	-	관광문화체육과	관광진흥팀	x	
부여군	-	문화체육관광과	관광진흥팀	x	
서천군	-	관광축제과	관광기획팀	x	
청양군	-	문화체육관광과	관광개발팀	x	
홍성군	경제문화농업국	문화관광과	관광팀	x	
예산군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x	
태안군	행정안전국	관광진흥과	관광기획팀	x	

자료 : 각 시군별 홈페이지

4) 충남 시군별 농촌개발 사업 추진현황 분석¹⁶⁾

충청남도에서는 민선5기부터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로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지원조례 제정, 도 및 시·군 중간지원 조직의 구성·운영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마을을 육성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정부 정책의 모델로도 제안한다.¹⁷⁾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에 걸쳐 시행 된 충청남도의 ‘행정리’ 마을 단위 사업(중복 포함)은 2,094개, 4단계 읍면 단위 사업(중복 없음)은 86개로 총 사업량은 2,180개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진행여부가 다른 0단계를 제외하면 총 사업량은 1,919개로 나타났다.

[표 3-14] 충남 마을만들기 행정사업 추진 종합현황(2012-2019년)

구분	0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읍면)	지정	총사업량 (마을+읍면)	0단계 제외 총사업량
합계	261	1,026	438	178	106	86	85	2,180	1,919
천안시	40	58	29	4	0	1	4	136	96
공주시	-	67	28	15	11	7	13	141	141
보령시	44	67	31	15	7	6	4	174	130
아산시	20	79	36	14	9	5	8	171	151
서산시	-	66	32	8	9	9	3	127	127
논산시	64	94	24	15	1	4	4	206	142
계룡시	-	14	11	3	1	0	1	30	30
당진시	-	62	24	4	3	9	3	105	105
금산군	-	69	34	11	10	8	4	136	136
부여군	-	97	32	19	10	9	6	173	173
서천군	18	64	30	17	18	4	3	154	136
청양군	8	64	31	14	1	7	6	131	123
홍성군	15	81	29	15	14	6	15	175	160
예산군	52	75	33	16	8	9	5	198	146
태안군	-	69	34	8	4	2	6	123	123

자료 : 충남연구원(2019), 마을만들기 행정사업 DB구축 2차,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16) 충남연구원(2019), 마을만들기 행정사업 DB구축 2차,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17) 충청남도(2020), 제 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충남 마을사업 한번에 파악하기 길라잡이 2019』(2018.12)에서 구분한 역량단계별 행정사업 분류를 기준으로 수집된 자료임

- 0단계 : 시군 자체 소액사업, 농식품부 시군역량강화사업의 소액사업
 - 각 시군에서 2012년 이후 추진한 소액사업(제출 자료 기준)
- 1단계(일반마을) : 사전 역량강화 실시 및 마을 발전계획 수립
 - 충청남도 희망마을만들기 마을학교(12~14년)
 - 농촌현장포럼(13~19년, 12~14년은 중복 마을 일부 있음)
- 1.5단계 : 희망마을 선행사업, 소규모 시군 자체사업 등 소규모 실행사업
- 2단계(새싹마을) : 창조적마을만들기(분야별)/마을만들기(자율개발), 산림휴양치유마을(기반) 등 하드웨어 구축 단계 사업
- 3단계(꽃마을) : 창조적마을만들기/마을만들기(종합개발), 권역종합개발, 산림휴양치유마을(종합), 해수부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등 종합개발 단계 사업
- 4단계(열매마을) : 농촌 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 해수부 권역단위 거점개발 등 배후 마을 연계 읍면 단위 사업
- 지정사업 : 농어촌인성학교,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등 사후 유지관리 사업

충남의 마을사업은 2015년을 기점으로 총 사업량(갯수 기준)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2014년에 일부 사업의 일몰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5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2년에서 2014년에 충청남도 마을학교(희망마을 1기) 사업과 농식품부 현장포럼이 중복 실시되고, 기존 희망마을 우수마을에 희망마을 2기 선행사업(30백만원)이 신규로 도입되면서 전체적인 사업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마을학교 사업이 일몰되면서 전체적인 사업량이 감소하였지만 희망마을선행사업이 2014년 일몰된 희망마을 우수마을까지 포함하여 사업량이 확대되었다. 2015년도 이후로 총사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시군별 자체 소액사업(0단계)이 신규로 도입되고 타 시군으로 확대되고 있어 총 사업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표 3-15] 충남 마을사업의 역량단계별, 연도별 추이(2012-2019년)

단계	사업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총계
0단계	소액사업	-	-	-	-	7	76	94	84	261
1단계	마을학교	256	246	140	-	-	-	-	-	642
	현장포럼	-	49	57	62	64	63	45	45	385
1.5단계	희망마을 우수마을	6	15	15	-	-	-	-	-	36
	희망마을 선행사업	-	37	43	72	69	64	47	70	402
2단계	창조적_경관생태	-	-	8	15	12	20	14	-	69
	창조적_소득체험	-	4	4	2	6	4	2	-	22
	창조적_문화복지	-	8	3	5	8	9	10	-	43
	산촌_휴양치유	-	-	-	-	-	-	1	1	2
	마을만들기_자율	-	-	-	-	-	-	-	42	42
3단계	창조적_종합	-	-	-	3	2	2	3	2	12
	권역개발	32	23	21	8	-	-	3	-	87
	어촌_마을특화	-	-	-	-	-	-	2	2	4
	산촌_생태마을	1	-	-	-	-	-	-	-	1
	마을만들기_종합	-	-	-	-	-	-	-	2	2
4단계	중심지활성화	8	4	9	8	11	13	10	-	63
	기초생활거점	-	-	-	-	-	-	-	21	21
	어촌_권역거점	-	-	-	-	-	-	1	1	2
지정	체험휴양마을	15	13	10	15	3	4	5	1	66
	농촌인성학교	-	7	4	5	3	-	-	-	19
합계		318	406	314	195	185	255	237	271	2,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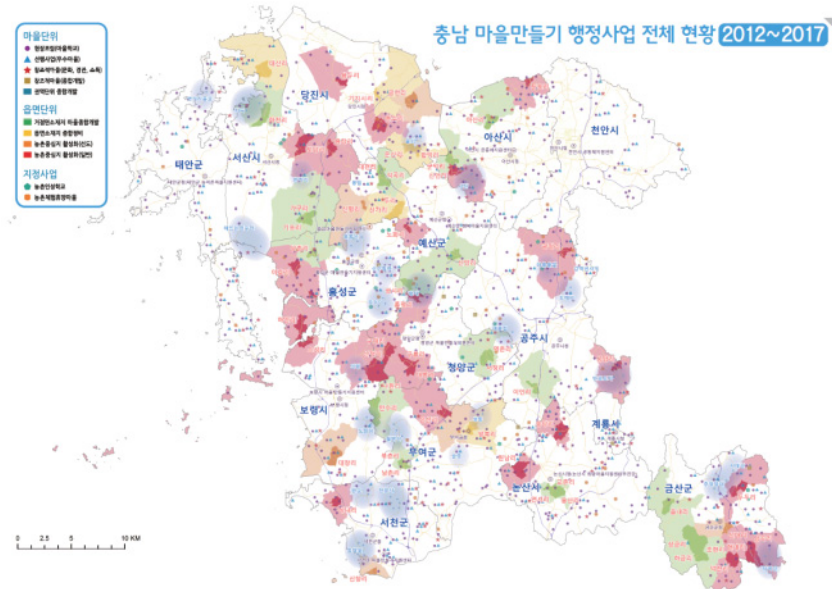
자료 : 충남연구원(2019), 마을만들기 행정사업 DB구축 2차,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충청남도에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8개년간 마을 사업에 참여한 행정리 수(중복 제외)는 총 1,196개로 나타났다. 이는 충남도 행정리 전체(4,295개) 대비 27.9% 마을이 ‘역량단계별 지원체계’에 맞추어 평균 1.83회 사업에 참여했음을 의미한다. 시군별 행정리 1개 마을 당 사업량 기준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계룡시(2.73회), 예산군(2.09회), 보령시(2.02회), 천안시(1.99회)로 나타났다. 시군별 전체 행정리 마을 총수 기준 마을 사업 참여 비율을 살펴보면 태안군(40.6%), 청양군(39.3%), 보령시(35.3%), 홍성군(31.3%), 공주시(30.2%) 순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서 2019년까지 8개년간 읍면 단위 사업 수(중복 제외)는 총 89개로 나타났으며 충남 전체 읍면 수(161개) 대비 55.3%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충남 마을만들기 행정사업 참여 마을수 분석(2012-2019년)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3단계	지정	중복 제외 행정리수 (A)	1개 행정리당 사업수	전체 행정리 수 (B)	비율 (C=A/B)
합계	901	397	172	101	76	1,196	1.75	4,295	27.8%
천안시	49	28	2	0	4	68	1.99	427	15.9%
공주시	61	26	15	11	10	74	1.82	245	30.2%
보령시	58	30	15	7	4	83	2.02	235	35.3%
아산시	71	28	14	6	8	92	1.82	398	23.1%
서산시	61	31	8	9	2	71	1.66	265	26.8%
논산시	86	22	15	1	4	121	1.67	424	28.5%
계룡시	10	8	3	1	1	11	2.73	53	20.8%
당진시	54	18	3	3	3	62	1.55	221	28.1%
금산군	58	29	11	10	3	74	1.73	255	29.0%
부여군	79	29	19	10	5	102	1.61	433	23.6%
서천군	52	24	17	18	3	92	1.63	316	29.1%
청양군	58	29	14	1	6	72	1.68	183	39.3%
홍성군	71	29	15	13	13	107	1.58	342	31.3%
예산군	69	35	13	7	5	91	2.09	311	29.3%
태안군	64	31	8	4	5	76	1.59	187	40.6%

자료 : 충남연구원(2019), 마을만들기 행정사업 DB구축 2차,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자료 : 충남연구원(2019), 마을만들기 행정사업 DB구축 2차,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그림 3-1]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현황

아래 표는 충남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현황이다.

[표 3-17] 충남 시군 마을만들기(공동체)지원센터 추진상황(2021년 기준)

시군	센터명	개소	운영 방식	상근 인력
아산시	마을공동체 소통협력지원센터	2015.07.	행정직영	3명
논산시	희망마을지원센터	2015.10.	행정직영	2명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2015.12.	민간위탁	9명
보령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16.03.	민간위탁	10명
천안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2016.08.	민간위탁	6명
홍성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16.12.	민간위탁	12명
서천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17.01.	재단법인(21.1)	4명
청양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2017.04.	재단법인(20.7)	5명
태안군	농어촌마을지원센터	2017.11.	행정직영	3명
금산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18.08.	민간위탁	10명
서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19.06.	행정직영	2명
공주시	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9.07.	행정직영	7명
부여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19.10.	재단법인(20.10)	4명
당진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20.06.	행정직영	3명

자료 :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내부자료

5) 충남 농촌 관광사업체 현황

2020년 말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가(상권)정보에 의하면 충남에는 총 121,739개소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음식업이 46,349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매 41,717개소, 생활 서비스 17,863개소, 학문/교육 6,851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관광/여가/오락에 해당하는 업종은 총 2,379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천안시가 827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 다음으로는 아산시 317개소, 당진시 236개소, 서산시 186개소, 논산시 126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8] 충남 업종별 상가(상권) 현황(2020년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충남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합계	121,739	36,243	7,107	7,611	15,205	9,006	7,718	1,732	8,934	3,668	3,325	3,272	1,814	6,195	4,536	5,383
관광/여가/오락	2,379	827	111	127	317	186	126	33	236	39	32	46	24	102	88	85
부동산	3,383	1,515	132	104	451	267	114	33	320	51	44	41	17	146	69	89
생활 서비스	17,863	5,882	967	984	2,206	1,337	1,224	244	1,274	393	554	436	224	944	702	492
소매	41,717	11,551	2,278	3,111	4,697	2,952	2,982	506	2,708	1,887	1,351	1,295	707	2,298	1,644	1,750
숙박	3,010	330	189	401	219	165	211	36	126	72	70	108	33	88	130	832
스포츠	177	86	5	6	25	9	8	3	14	3	2	2	1	6	4	3
음식	46,349	13,364	3,060	2,554	6,319	3,479	2,715	692	3,814	1,129	1,144	1,231	767	2,314	1,747	2,020
학문/교육	6,851	2,688	365	324	971	611	338	185	442	84	128	113	41	297	152	112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충남에 위치한 업종별 상가를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충남 전체 상가 중 50.5%(61,475개소)가 동지역, 49.5%(60,264개소)가 읍면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관광/여가/오락 업종을 살펴보면 58.6%(1,393개소)가 동지역에 위치하며 41.4%(986개소)가 읍면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숙박업의 경우

27.4%(826개소)가 동지역, 72.6%(2,184개소)가 읍·면지역에 위치하여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음식업의 경우 47.7%(22,092개소)가 동지역, 52.3%(24,257개소)가 읍·면지역에 위치하여 숙박업에 비해 지역적 입지가 크게 편차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 충남 농촌지역 업종별 상가(상권) 현황(2020년 기준)

(단위 : 개소, %)

구분		합계	관광/여가/오락	부동산	생활 서비스	소매	숙박	스포츠	음식	학문/교육
충남	개소	121,739	2,379	3,393	17,863	41,717	3,010	177	46,349	6,851
	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동지역	개소	61,475	1,393	2,141	10,150	20,240	826	121	22,092	4,512
	비율	50.5	58.6	63.1	56.8	48.5	27.4	68.4	47.7	65.9
읍/면 지역	개소	60,264	986	1,252	7,713	21,477	2,184	56	24,257	2,339
	비율	49.5	41.4	36.9	43.2	51.5	72.6	31.6	52.3	34.1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1) 농촌체험휴양마을

2020년 기준 충남에는 총 139개소의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현황을 살펴보면 청양군이 15개로 가장 많은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주시 15개소, 논산시 13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0] 충남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2020년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충남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합계	139	4	15	10	12	8	13	1	6	7	8	12	15	13	6	9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표 3-21] 충남 농촌체험휴양마을 세부 현황(2019년 말 기준)

시군	마을명	계	비고
충청남도		139	
천안시	남창마을, 솟대마을, 용경마을, 대동마을	4	
공주시	꽃내미품꽃이랑마을, 달빛영근마을, 자연애 밤도랑마을, 보리감자마을, 장익는마을, 구난이약나무마을, 소랭이마을, 예하지마을, 천탑마을, 도담골호반마을, 계룡산 상신농촌체험휴양마을, 밤톨이마을, 무르실고추마을, 예울림물레방아마을, 어무실 구정승마을	15	
보령시	머드농수산체험마을, 미친서각마을, 그리고마을, 이천(야생화)마을, 신현(쌈지돈)마을, 방자마을, 방자마을, 빙도마을, 오서산산촌생태마을, 은행마을, 토정마을	10	
아산시	신수리체험휴양마을, 일대마을, 외암마을, 강당골마을, 다라미자운영마을, 오돌개마을, 꽃가꾸는대통령마을, 내이랑마을, 기쁨두배마을, 피콜성마을, 희안마을, 느티장승마을	12	
서산시	회포마을, 솔바당마을, 한다리마을, 꽃송아리마을, 빛들마을, 별마을, 방길동마을, 초록꿈틀마을	8	
논산시	삼태미마을, 평애마을, 도정마을, 덕곡마을, 황산벌참살이마을, 딸기마을, 시골애마을, 포전마을, 사월1리마을, 덕바위마을, 햇빛촌바랑산마을, 황산벌동지마을, 동구리마을,	13	
계룡시	계룡넓은돌마을	1	
당진시	함덕연지마을, 푸레기마을, 당나루물꽃마을, 왕매실마을, 백석울미마을, 영전황토마을	6	
금산군	바리실마을, 진산애행복누리마을, 적벽강마을, 닥실마을, 두곡마을, 막현리마을, 조팝꽃피는마을,	7	
부여군	백제인동마을, 부여기와마을, 송죽마을, 신암전통테마마을, 구례울체험마을, 친환경 까치마을, 부여양송이마을, 고추골술바람마을	8	
서천군	봉하마을, 이색체험마을, 장선리마을공동체, 동백꽃마을, 행복마을, 황새마을, 달고개모시마을, 동자복문화역사마을, 선도리갯벌체험마을, 고살메갈꽃체험마을, 갈숲마을, 물벼들마을	12	
청양군	장곡마을, 동막골, 용꿈꾸는마을, 고인돌마을, 까치내마을, 물여울마을, 바둑골마을, 백곡리마을, 사자산농촌체험휴양마을, 알프스마을, 은골구기자마을, 꽃뫼마을, 가파마을, 칠갑산산꽃마을, 칠갑사니마을,	15	
홍성군	하누리마을, 거북이마을, 오서산광제마을, 느리실마을, 오서산상담마을, 문당환경농업마을, 용봉산돌바위마을, 봉암마을, 왕대골마을, 상리마을, 하리철새 마을, 고미당마을, 오누이마을	13	
예산군	가야한티마을, 알토란사과마을, 신장리사과체험마을, 또오실마을, 농리산촌생태마을, 황새권역마을	6	
태안군	태안별주부마을, 벗가리마을, 매화둠벚마을, 조개부리마을, 노을지는갯마을, 법산 연꽃마을, 갈두천권역, 길우지마을, 해비알마을	9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

(2) 농촌교육농장

2019년 기준 충남에는 총 13개소의 농촌교육농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현황을 살펴보면 금산군이 3개소로 가장 많은 농촌교육농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농촌교육농장에서는 각각 다양한 주제로 관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2] 충남 농촌교육농장 현황(2019년 기준)

시군	농장명	주제	인증년도	비고
천안시	봉황52농장	오이)식물의 한살이	2017	
천안시	장수농원	포도야 놀자	2018	
공주시	새소리농장	동물농장, 병아리 부화과정	2019	
서산시	도적골교육농장	다시 흙으로!	2015	
서산시	종이그림교육농장	덕나무가 들려주는 우리 한지 이야기	2016	
서산시	종이그림전통한지교육농장	덕나무가 들려주는 우리 한지 이야기	2019	
논산시	이명한 한복	농촌과 문화가 만나다	2017	
금산군	월명팜 영농조합법인	국화랑 친구하기	2018	
금산군	대둔산딸기학교	내 친구 딸기	2019	
금산군	와송약초나라	향기로운 허브와 함께	2019	
예산군	전통예산옹기	옹기명장님과 전통옹기에 대해 알아보고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계승 발전	2017	
태안군	황토7베리 교육농장	블루베리, 호박고구마	2019	

자료 : 농촌진흥청(2019), 교육농장 정보;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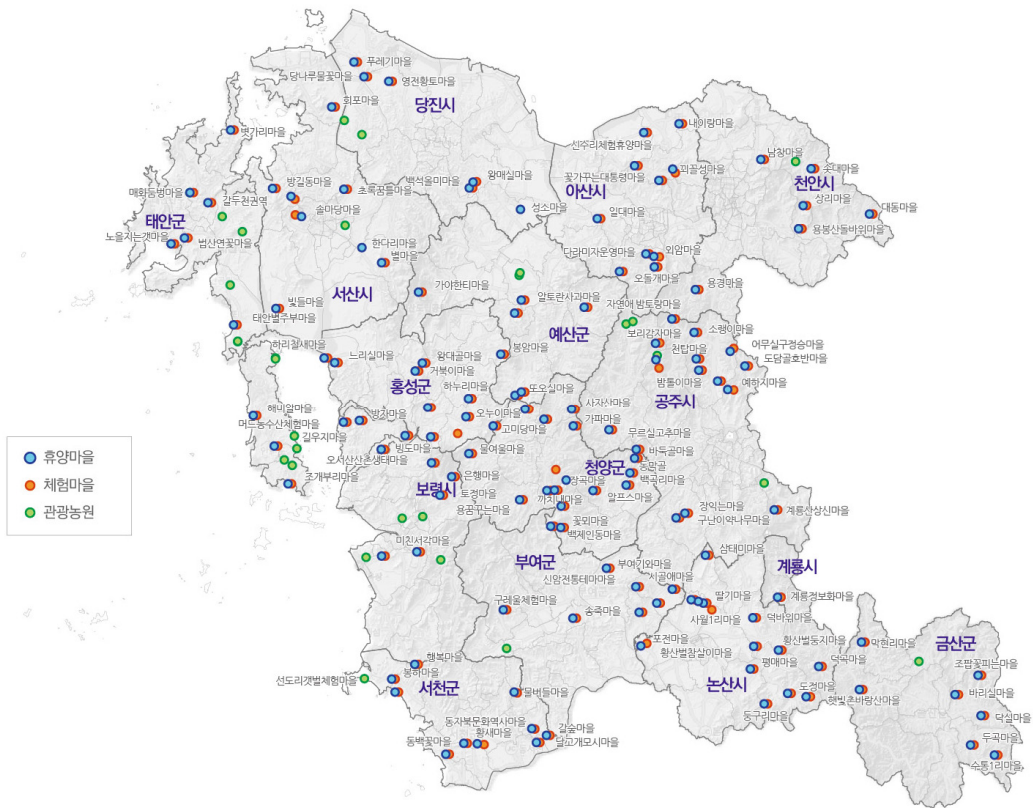
(3) 관광농원

2021년 기준 충남에는 총 39개소의 관광농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현황을 살펴보면 태안군이 16개소로 충남에 위치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육농장이 태안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태안군 다음으로는 보령시가 7개소, 공주시 6개소, 당진시와 예산군 각 2개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천안시, 서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에 각각 1개소의 관광농원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 충남 관광농원 현황(2021년 기준)

시군	농원명	개소	비고
충청남도		39	
천안시	유성	1	
공주시	사계절오토캠핑, 문금, 동화속풍경, 이안숲속, 해월농어촌, 에덴	6	
보령시	대화사도어촌체험, 대천, 예술인, 상양, 화현, 천만년, 남곡,	7	
서산시	서산관광농원	1	
계룡시	중앙	1	
당진시	아잘리아그린, 미소연	2	
금산군	산양마을	1	
부여군	남면	1	
서천군	해오름	1	
예산군	성림, 능금	2	
태안군	아라가온, 승마, 솔향기바다내음, 안면도쥬라기공원, 쥬라기공원, 해림, 매화동병마을, 나문재, 안면해마루, 청산수목원, 펠리체, 나문재준, 바람아래, 태안, 백화원, 소성(화림관광농원)	16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



[그림 3-2] 충남 농촌관광 자원 분포 현황

(4) 인증 음식점

충남관광 포털에 등록 된 충남의 음식점 현황을 살펴보면 농가맛집 25개소, 미더유 인증 음식점 19개소, 외국인편의 음식점 58개소, 충남추천 맛집 169개소로 총 271개소의 음식점이 인증되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식점 인증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농가맛집은 공주와 태안이 각각 4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더유 인증은 공주시 4개소, 보령시 3개소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편의음식점은 천안이 11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남추천 맛집은 아산이 30개소로 가장 많은 인증현황을 보유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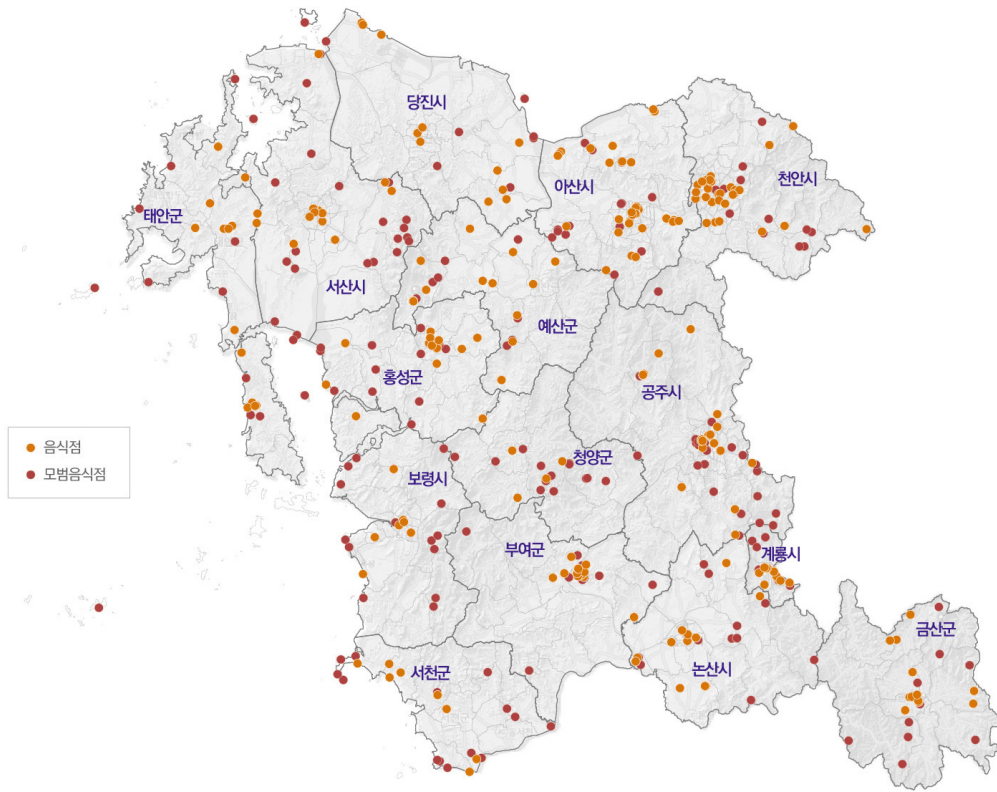
지자체별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아산시가 35개소, 천안시 31개소, 공주시 30개소 순으로 인증현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 충남 음식점 현황(2021년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충남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합계	271	31	30	10	35	18	20	15	13	14	20	9	4	22	16	14
농가맛집	25	1	4	1	-	3	1	1	2	1	1	2	1	2	1	4
미더유인증	19	1	4	3	-	-	-	1	1	2	2	2	1	-	1	1
외국인편의음식점	58	11	7	-	5	-	7	7		3	9	-	-	9	-	-
충남추천 맛집	169	18	15	6	30	15	12	6	10	8	8	5	2	11	14	9

자료 : 충남관광(<https://tour.chungnam.go.kr/>)



[그림 3-3] 충남의 주요 인증 음식점 분포 현황

(5) 마을기업

2020년 기준 충남에는 총 155개 (예비)마을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군별로 살펴보면 공주시가 19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논산시 14개소, 홍성군과 보령시 13개소, 청양군 11개소, 예산군 10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5] 충남 시·군별 (예비)마을기업 지정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충남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합계	155	7	19	13	12	12	14	3	6	9	8	9	11	13	10	9

자료 : 충청남도(<http://www.chungnam.go.kr/>)

충남도내 마을기업은 제조부터 체험마을까지 14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유형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식품이 62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체험의 경우 34개소로 나타나 일반식품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6] 충남 시·군별 (예비)마을기업 분야별 현황

(단위 : 개소)

사업유형	총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총합계	155	7	19	13	12	12	14	3	6	9	8	9	11	13	10	9
제조	1						1									
공예품	8		1	2	2							1			2	
관광체험	34	3	7	2			4		1	2	2	3	4	3	1	2
교육	4	1		1					1					1		
기타	13	1	6		1	1				2				2		
문화예술	1									1						
식품제조	1			1												
에너지	1				1											
유통기업	3		1		1		1									
일반식품	62		3	5	4	7	5	1	3	3	4	5	6	5	4	7
재활용	1			1												
전통식품	23		1		3	4	3	2	1	1	2		1	2	3	
체험마을	2	2														
기타	1			1												

(6) 사회적기업

2020년 기준 충남에는 총 217개 (예비)사회적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군별로 살펴보면 천안시가 46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산시 39개소, 서천군 18개소, 서산시 17개소, 당진시 16개소, 논산시와 부여군이 각각 12개소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7] 충남 시·군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충남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합계	217	46	9	15	39	17	12	1	16	3	12	18	6	11	9	3

자료 : 충청남도(<http://www.chungnam.go.kr/>)

충남도내 사회적 기업 중 농촌 및 관광산업¹⁸⁾과 관련한 사회적 기업은 총 99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현황을 살펴보면 아산시가 20개소, 천안시가 17개소, 서천군이 14개소 순으로 나타났으며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분야가 21개소, 서비스 18개소, 농산물가공유통 관련 사회적기업이 1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8] 충남 시·군별 농촌 및 관광산업 (예비)사회적기업 현황

(단위 : 개소)

사업유형	총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총합계	99	17	8	2	20	5	5	1	4	-	8	14	4	4	5	2
공예품체험학습	1										1					
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	1	1														
교육서비스	9	1		1	2	2					2				1	
기타	2			1	1											
농산물가공·유통	12	2			2		2		1			3	1			1
농업, 임업 및 어업	6				1		1		1			1		2		
도매 및 소매업	4		1		1							1			1	
문화예술	21	3	1		1	3	2	1	2			4	1	1	2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	1														
서비스	18	4	4		7						3					
스포츠	1										1					
영농	4				2							1		1		
유통	2		1		1											
임업	3	1									1					1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		1													
제조업	12	4			2							4	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														1	

18) 관광관련 사회적 기업은 2021년 충청남도의 (예비)사회적기업 현황자료에서 공예체험학습부터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까지 약 17개 유형에서 농촌관광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현황분석을 실시하였다.

(7) 협동조합

2021년 기준 충남에는 총 857개 협동조합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중 관광산업 관련 협동조합은 총 5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태안군이 10개 조합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계룡시 9개, 서천군 8개, 보령시 7개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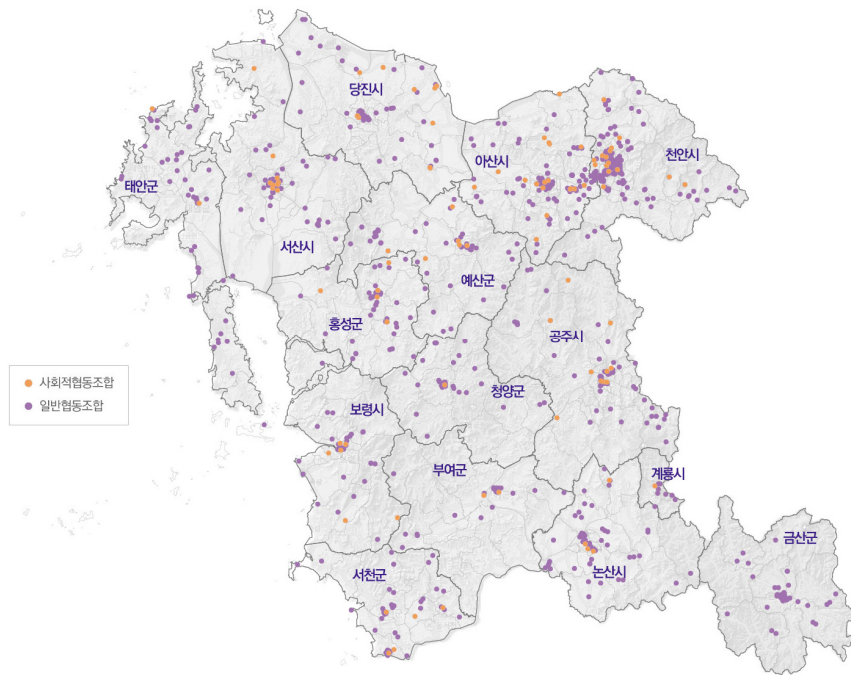
협동조합 주요 업종구분을 살펴보면 농업, 어업 및 임업이 15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개, 도매 및 소매업 6개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9] 충남 관광관련 협동조합 현황(202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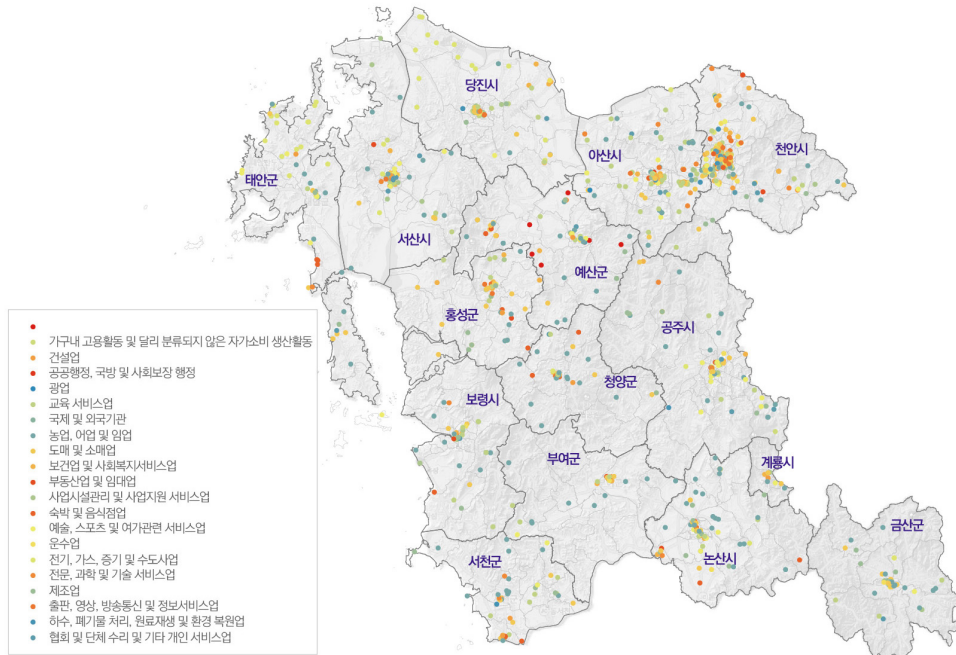
(단위 : 개)

구분	충남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합계	56	2	3	7	2	3	3	9	-	-	3	8	2	2	2	10
건설업	1	-	-	-	-	-	-	-	-	-	-	1	-	-	-	-
광업	1	-	-	-	1	-	-	-	-	-	-	-	-	-	-	-
교육 서비스업	4	-	-	1	-	-	-	-	-	-	2	1	-	-	-	-
농업, 어업 및 임업	15	-	1	2	-	1	1	4	-	-	-	2	2	-	2	-
도매 및 소매업	6	-	-	-	-	-	-	1	-	-	-	2	-	1	-	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	-	-	-	-	-	-	1	-	-	-	-	-	-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1	1	-	-	-	-	-	-	-	-	-	-	-	-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	-	-	2	-	-	-	-	-	-	-	-	-	1	-	-
숙박 및 음식점업	5	-	-	1	-	-	-	-	-	-	-	1	-	-	-	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	2	1	1	2	1	1	-	-	-	-	-	-	-	4
운수업	3	1	-	-	-	-	-	2	-	-	-	-	-	-	-	-
제조업	2	-	-	-	-	-	1	-	-	-	1	-	-	-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	-	-	-	-	-	-	-	-	-	-	1	-	-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	-	-	-	-	-	-	-	-	-	-	-	-	-	-	1

자료 :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



[그림 3-4] 충남 사회적경제 자원 분포현황



[그림 3-5] 충남 사회적경제 업종별 자원 분포현황

2. 충남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실태 분석

1) 운영실태 분석 개요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해 충남 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분석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충남도 내 소재하고 있는 139개소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주요 체험프로그램 운영 현황,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일자,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현황, 마을별 방문목적별 방문유형, 체류유형별 방문유형, 코로나19 이후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증감률 등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지역별 운영 실태

(1) 천안시

2020년 기준 천안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총 4개 마을로 대부분 마을이 농작물경작체험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 일자도 충남도 내 다른 마을에 비해 최근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시 농촌체험휴양마을들의 홍보방안을 살펴보면 4개 마을 중 홈페이지가 구축된 마을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을별로 살펴보면, 남창마을은 주요 재배작물인 포도, 밤 등을 활용하여 포도따기, 밤줍기 등의 농작물 경작체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블로거 등을 통해 마을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솟대마을의 경우 천안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가장 먼저 지정된 마을로 SNS, 블로거를 통한 홍보를 진행하며 전통문화체험을 통한 휴양마을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용경마을의 경우 콩을 활용한 두부제작 등 6차산업교육과 농업회사법인을 중심으로 한 산림연계 치유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블로거를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표 3-30] 천안시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체험마을명	체험프로그램구분	체험내용	지정일자	홈페이지
남창마을	농작물경작체험	포도따기, 밤줍기	2017-03-01	홈페이지 없음
숫대마을	전통문화체험	짚풀공예, 숫대만들기	2014-02-01	홈페이지 없음
용경마을	농작물경작체험	두부만들기, 산나물수확체험	2015-11-01	홈페이지 없음
대동마을	농작물경작체험	풍물체험, 모내기, 옥수수 수확체험	2014-03-01	홈페이지 없음

천안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수는 2018년 기준 5,398명, 2019년 6,930명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발생이후 1,567명으로 2019년 방문객의 약 77.4%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천안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유형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 단순방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음으로 휴양, 체험 등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체류유형별 방문인원을 보면 숙박형보다는 당일형이 훨씬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로는 단순방문, 휴양, 교육 등의 목적으로 방문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체험, 단순방문, 연수, 휴양등 전분야에서 방문객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더불어 체험 방문인원의 경우 전무 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체류유형은 코로나19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이 당일형 방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천안시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당일형 방문이 약 81%가량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천안시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충남도 내 타 마을에 비해 운영을 시작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마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천안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경우 먼저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 특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조직체 구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3-31] 천안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증감 현황

구분			2018년 (명)	2019년 (명)	2020년 (명)	2019년 대비 2020년 방문객 증감율(%)
총합계			5,398	6,930	1,567	-77.4
방문목적별 방문인원 (명)	관광	총합	500	0	0	-
		내국인	500	0	0	-
		외국인	0	0	0	-
	휴양	총합	687	607	342	-43.7
		내국인	687	607	342	-43.7
		외국인	0	0	0	-
	체험	총합	266	295	0	-100.0
		내국인	266	295	0	-100.0
		외국인	0	0	0	-
	교육	총합	3	15	20	33.3
		내국인	3	15	20	33.3
		외국인	0	0	0	-
	연수	총합	263	60	13	-78.3
		내국인	263	60	13	-78.3
		외국인	0	0	0	-
	1사 1촌	총합	100	0	0	-
		내국인	100	0	0	-
		외국인	0	0	0	-
	단순 방문	총합	3,465	5,953	1,182	-80.1
		내국인	3,455	5,953	1,182	-80.1
		외국인	10	0	0	-
	농특 산물 구매	총합	114	0	10	-
		내국인	114	0	10	-
		외국인	0	0	0	-
체류유형별 방문인원 (명)	당일형	총합	4,766	6,348	1,192	-81.2
		내국인	4,756	6,348	1,192	-81.2
		외국인	10	0	0	-
	숙박형	총합	632	582	375	-35.6
		내국인	632	582	375	-35.6
		외국인	0	0	0	-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2) 공주시

공주시에는 15곳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운영되고 있고, 2008년에 처음 지정되어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전 기준 연간 약 48,000여명의 체험객을 유치하고 있다.

공주시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농촌체험, 농작물경작체험, 전통음식체험, 만들기체험, 산촌생활체험, 레포츠체험 등 다양한 유형의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 세부 내용의 경우 마을별 지리나 지형, 생산 농특산물 등을 활용한 특색 있는 체험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방안을 살펴보면 15개 마을 중 6개 마을에 홈페이지 및 공식 블로그가 운영되고 있으며,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개설되지 않은 마을은 블로거 등을 활용하여 마을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별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꽃내미풀꽃이랑마을은 2008년에 지정되고 연간 4천여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계절별 다양한 프로그램 및 연중체험프로그램으로 전통놀이체험, 인절미·흑두부 만들기, 다도체험, 가족자전거타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시설로는 체험관, 족욕체험장, 숙박시설, 연못다리 등이 있다.

달빛영근마을은 2014년에 지정되어 시냇물 생태체험, 알밤줍기체험, 숲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로는 체험관, 마을권역센터, 비가림시설, 마을회관 등이 있다.

자연애밤토랑마을은 알밤줍기, 밤조청만들기, 두부만들기, 인절미 만들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로는 체험장, 숙박시설, 풍차, 징검다리 등이 있다.

보리감자마을은 보리감자 팸파티 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감자 수확체험, 감자 요리만들기체험 등의 프로그램과 민속놀이체험을 할 수 있고, 체험관, 펜션, 밀 가공시설, 비가림시설, 황토방 등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장익는마을은 2014년도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찜빵체험, 난 화분만들기, 고추따기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주요시설은 메주건조시설, 찜빵체험시설, 물고기잡기 체험장 등을 보유하고 있다.

구난이악나무마을은 옷순채취, 옷담백숙 만들기, 농작물 수확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알로에 체험관, 장류향아리 건조장, 체육시설 등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소랭이 마을은 율피비누만들기, 짬뽕공예, 알밤줍기체험, 인절미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주 정안 소랭이마을 밤꽃축제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진행으로 인기가 높은 지역으로 2019년도 8천여명의 체험객이 방문한 지역이다. 주요시설은 마을권역센터, 황토방, 족구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예하지마을의 정식명칭은 예하지마을 영농조합법인 생태공동체마을로 숲 생태체험, 집터다지기 체험, 전통모내기 및 인절미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진행으로 연간 11만명 이상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보유시설은 물놀이 생태체험장, 체험관, 마을회관, 예하재 등이 있다.

천담마을은 산촌생활체험을 주제로 한 마을로서 마을 주변 1만㎡ 넓이의 편백나무 숲이 조성되어 있어 가족 휴양처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편백나무 숲 해먹타기 체험, 알밤줍기체험, 시냇물 물놀이체험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주요 시설은 체험관, 야외화장실 및 샤워실, 비가림시설, 이동식 숙박시설 등이 있다.

도담골 호반마을은 중흥저수지와 마을 중앙에 위치한 연못, 신촌느티나무 등이 힐링의 장소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마을로 이를 활용해서 물놀이 생태체험, 상채전만들기, 호반 자전거여행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물놀이 체험장, 자전거 휴게소 등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계룡산 상신마을은 인성교육프로그램, 도자기만들기, 만두만들기, 서당교육체험 등 다양한 유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은 체험운영센터, 창고, 바비큐체험장, 식당시설 등이 있다.

밤톨이마을은 정안밤을 소재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캐릭터 등의 개발을 통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 정보화 마을로서 홈페이지 구축 및 다양한 SNS를 통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알밤줍기체험 및 밤가공 음식 만들기 체험 등이 있으며, 주요 시설은 알밤체험장, 저장고, 알밤가공공장 등이 있다. 연간 1만명 이상의 체험객이 방문하는 지역이다.

무르실고추마을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추를 활용한 김장김치담그기, 농작물 수확체험, 무르실 치즈만들기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주요 시설은 레일썰매, 숙박시설 (마을회관, 황토방) 등이 있다.

예울림물레방아마을의 주요프로그램은 공주아리랑배우기, 향토음식만들기, 한지공예체험, 두부만들기 등이 있으며, 주요시설은 농경체험관, 체육,숙박시설, 수영장, 비가림시설, 물레방아 등을 보유하고 있다.

어무실구정승마을은 농경문화체험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 재래식 모내기체험, 농작물 수확체험, 새참먹기 등의 체험프로그램이 있고, 주요시설은 체험관, 비가림시설, 마을회관 등이 있다.

[표 3-32] 공주시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체험마을명	체험프로그램구분	체험내용	지정일자	홈페이지
꽃내미풀꽃아리랑마을	농촌체험	광목염색, 비누만들기, 농작물수확체험(콩, 고추 등)	2013-01-01	https://www.farmstay.co.kr/village/A100072
달빛영근마을	농작물경작체험	물고기잡기체험, 숲 체험(도토리죽구, 낙엽글짓기)	2014-03-01	홈페이지 없음
자연애밤토랑	전통음식체험	두부만들기, 물고기잡기체험	2011-01-19	홈페이지 없음
보리감자마을	농작물경작체험	물고기잡기체험, 농작물수확(감자, 고구마)	2016-01-01	홈페이지 없음
장익는마을	전통음식체험	된장만들기, 메주만들기체험	2014-03-01	홈페이지 없음
구난이악나무마을	농작물경작체험	웃나무닭백숙 만들기체험, 농작물수확체험(감자, 옥수수)	2011-08-24	홈페이지 없음
소랭이마을	만들기체험	풍등날리기, 나무목걸이만들기	2018-02-01	https://blog.naver.com/soraengi
예하지마을	만들기체험	집터다지기체험, 염색체험	2012-02-01	https://www.farmstay.co.kr/village/NH00058
천탑마을	산촌생활체험	편백나무숲명상체험, 돌탑쌓기체험	2018-03-01	홈페이지 없음
도담골호반마을	레포츠	호반 자전거여행 체험, 고향순두부 만들기체험	2015-03-01	홈페이지 없음
계룡산상신마을	전통음식체험	청국장만들기, 천연염색체험	2013-11-04	https://amenity.modoo.at/
밤툼이마을	전통음식체험	밤묵 만들기체험, 메주 만들기 체험	2013-11-04	http://jeonganbam.invil.org/
무르실고추마을	농작물경작체험	김장김치담그기, 농작물 수확체험, 무르실 치즈만들기	2013-12-19	홈페이지 없음
예울림물레방아마을	전통음식체험	두부만들기, 밤양갱만들기, 한지공예체험	2015-03-01	http://blog.naver.com/ye_ullim
어무실구정승마을	농작물경작체험	모심기체험, 벼 수확체험, 김장김치 담그기 체험	2016-05-09	홈페이지 없음

공주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수는 2018년 기준 47,227명, 2019년 48,542명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25,198명으로 2019년 방문객의 약 48.1%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유형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 체험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음으로 휴양, 농특산물구매, 단순방문 등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체류유형별 방문인원을 보면 타 지자체와 유사하게 숙박형보다는 당일형이 훨씬 높은 비중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로도 체험, 휴양, 단순방문 등의 목적으로 방문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체험방문객 및 연수방문객의 비중이 급감한 것을 알 수 있다. 체류유형은 코로나19이전과 큰 차이가 없이 당일형 방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3] 공주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증감 현황

구분			2018년(명)	2019년(명)	2020년(명)	2019년 대비 2020년방문객증감율(%)
총합계			47,227	48,542	25,198	-48.1
방문목적별 방문인원 (명)	관광	총합	321	571	63	-89.0
		내국인	321	564	51	-91.0
		외국인	0	7	12	71.4
	휴양	총합	8,996	8,902	6,849	-23.1
		내국인	8,907	8,870	6,842	-22.9
		외국인	89	32	7	-78.1
	체험	총합	27,270	24,048	9,619	-60.0
		내국인	27,231	23,852	9,604	-59.7
		외국인	39	196	15	-92.3
	교육	총합	2,936	2,158	1,960	-9.2
		내국인	2,926	2,158	1,960	-9.2
		외국인	10	0	0	-
	연수	총합	2,047	1,730	290	-83.2
		내국인	2,047	1,660	270	-83.7
		외국인	0	70	20	-71.4
	1사 1촌	총합	360	104	8	-92.3
		내국인	360	104	8	-92.3
		외국인	0	0	0	-
	단순 방문	총합	3,523	3,974	4,164	4.8
		내국인	3,517	3,941	4,155	5.4
		외국인	6	33	9	-72.7
	농특 산물 구매	총합	1,774	7,045	1,559	-77.9
		내국인	1,773	7,045	1,556	-77.9
		외국인	1	0	3	-
체류유형별 방문인원 (명)	당일형	총합	35,259	37,593	19,779	-47.4
		내국인	35,202	37,377	19,752	-47.2
		외국인	57	216	27	-87.5
	숙박형	총합	11,968	10,949	5,419	-50.5
		내국인	11,880	10,827	5,380	-50.3
		외국인	88	122	39	-68.0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3) 보령시

보령시에는 총 10개소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들 중 신현(쌈지돈)마을이 2010년 농촌체험휴양마을로 가장 먼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마을이다.

보령시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대부분 전통문화체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통문화체험소에서 농산물 체험 등도 함께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예술체험, 레포츠체험 등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방안을 살펴보면 10개 마을 중 8개 마을이 홈페이지 및 블로그가 구축되어 마을홍보 및 마을 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별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머드농수산체험마을은 2018년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굴생산지인 천북면에 위치하고 있어 바다체험과 고구마재배 및 가공 등 농수산 체험을 함께할 수 있는 체험마을이다. 운영은 머드농수산체험마을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시설로는 머드고구마 체험장, 숙박시설로 펜션이 있다.

미친서각마을은 문화예술을 소재로 마을전체가 문화학교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문화예술체험시리즈와 농산물체험시리즈가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미친서각민속문화전시관, 서각체험학교, 서각마을 야외 화랑, 포토존, 문화예술 사랑방 등이 있다.

그리고마을은 자연생태체험이 가능한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은 테크, 오토캠핑장, 수영장, 바비큐장, 매점, 샤워장 등이 있다.

이천야생화마을은 푸르메수목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야생화체험을 할 수 있고, 관람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체험프로그램으로 야생화화분심기, 풍란석부착 등이 있다. 시설로는 야생화와 각종 야치식물들 전시관, 옛 농기구 전시관, 이천야생화마을 체험센터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신현(쌈지돈)마을은 농사체험을 중심으로 사계절 농사체험과 패러글라이딩 체험 등 레포츠도 즐길 수 있는 체험마을이다. 시설로는 쌈지촌 체험관에서 교육과 기본 체험 시설이 있으며, 주변으로 수확체험, 레포츠 체험 시설이 있다.

방자마을은 방자구이마을로 지역의 주 생산물인 굴을 소재로 한 체험휴양마을이며 맛체험으로 갯내 방자구이, 흙내 방자구이, 굴김치 담그기, 황토술구이/황토흙구이가 있고 놀이체험으로 참샘논 천렵, 두루봉 해넘이, 방자놀이, 방자민속체험, 건강체험으로 머드팩미인, 황토각탕, 산티 지장수, 농사체험으로 황토농군, 두루봉 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빙도마을은 도미부인전설이 있는 마을로 농산물 수확체험과 갯벌체험을 함께할 수 있는 마을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서각체험, 민속놀이체험, 비누만들기 등이 있다.

오서산산촌생태마을은 2012년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밤줍기, 곰취따기, 고추 따기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주요 시설은 산촌체험관, 산촌문화회관, 산림휴양관, 향토음식체험관, 산채하우스, 생태연못 등 관광 편의시설이 있으며, 운영은 오서산 산촌체험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다.

[표 3-34] 보령시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체험마을명	체험프로그램구분	체험내용	지정일자	홈페이지
머드농수산 체험마을	전통문화체험	고구마가공 및 재배관련 체험, 산나물 채취	2018-04-01	홈페이지 없음
미친서각마을	문화예술체험	문화예술체험, 농산물 재배체험	2018-05-01	http://www.artvillage.kr/
그리고마을	자연생태체험	농산물수확체험, 캠핑체험	2020-05-11	https://blog.naver.com/andmaeul
이천(야생화)마을	전통문화체험	야생화화분심기, 풍관석부작	2011-01-01	홈페이지 없음
신현(쌈지돈)마을	레포츠	EM 체험, 패러글라이딩 체험, 농촌생활 체험	2010-02-01	http://ssamjime.invil.org/
방자마을	전통문화체험	방자구이, 굴김치 담그기 체험	2011-01-01	http://app.visitkorea.or.kr
빙도마을	전통문화체험	서각체험, 민속놀이체험, 비누만들기	2012-01-01	http://cafe.daum.net/br-bingdo
오서산 산촌생태마을	전통문화체험	밤줍기, 곰취따기, 고추따기체험	2012-01-01	https://blog.naver.com/sanchon313
은행마을	전통문화체험	은행빵만들기, 은행양갱만들기	2011-12-01	http://www.은행마을.org
토정마을	전통문화체험	표고피자만들기, 버섯따기, 쥬스체험	2011-01-01	https://www.farmstay.co.kr/village/A40362

보령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은 연간 약 20,000여명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고 있는 타 지자체 농촌체험휴양마을들에 비해 코로나19 이후 방문객 증감률에 큰 감소폭 없이 오히려 증가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보령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목적별 방문인원을 살펴보면 단순방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체험, 1사1촌, 농특산물 구매 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체류유형의 경우 당일형이 숙박형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방문객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총 방문객 수는 2019년에 비해 약 21.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코로나19 이전 높은 방문비중을 차지하던 체험 목적 방문객은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방문목적별 방문객 중 휴양 및 농특산물 구매를 목적으로 찾는 방문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20년 1월 머드농수산물체험마을에 휴양 및 농특산물 구매를 목적으로 많은 방문객이 찾았기에 다음과 같은 방문객 수가 산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35] 보령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증감 현황

구분			2018년(명)	2019년(명)	2020년(명)	2019년 대비 2020년 방문객 증감율(%)
총합계			23,034	17,824	21,623	21.3
방문목적별 방문인원 (명)	관광	총합	360	300	514	71.3
		내국인	360	300	514	71.3
		외국인	0	0	0	-
	휴양	총합	495	381	3,684	866.9
		내국인	495	376	3,684	879.8
		외국인	0	5	0	-100.0
	체험	총합	6,268	6,406	3,303	-48.4
		내국인	6,259	6,344	3,302	-48.0
		외국인	9	62	1	-98.4
	교육	총합	2,143	4,031	2,108	-47.7
		내국인	2,137	3,909	2,097	-46.4
		외국인	6	122	11	-91.0
	연수	총합	22	654	315	-51.8
		내국인	22	591	275	-53.5
		외국인	0	63	40	-36.5
	1사 1촌	총합	2,442	219	599	173.5
		내국인	2,442	212	594	180.2
		외국인	0	7	5	-28.6
	단순 방문	총합	9,863	5,198	4,855	-6.6
		내국인	9,644	5,198	4,855	-6.6
		외국인	219	0	0	-
	농특 산물 구매	총합	1,441	624	4,357	598.2
		내국인	1,441	619	4,357	603.9
		외국인	0	5	0	-100.0
체류유형별 방문인원 (명)	당일형	총합	21,406	15,809	14,982	-5.2
		내국인	21,180	15,677	14,982	-4.4
		외국인	226	132	0	-100.0
	숙박형	총합	1,628	2,015	6,641	229.6
		내국인	1,620	1,883	6,584	249.7
		외국인	8	132	57	-56.8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4) 아산시

아산시에는 총 12개소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 중 외암마을이 2010년 농촌체험휴양마을로 가장 먼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마을이다.

아산시의 모든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전통문화체험마을로 체험프로그램이 구분되어 있으나, 주요 체험내용을 보면 전통문화체험 외에도 농작물을 활용한 체험, 만들기체험 등 대부분의 농촌체험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산시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방안을 살펴보면 12개 마을 중 7개 마을만이 홈페이지가 구축된 것으로 나타나, 마을별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한 홍보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별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방문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은 외암마을로 아산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암민속마을이 구성되어 있어 순수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이라기보다는 민속마을을 방문한 방문객이 포함된 방문객 수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대마을은 무농약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6차산업마을로 농촌체험을 넘어 산업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강당골마을은 농촌체험보다는 휴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방문객이 많은 곳으로 강당골 계곡과 캠핑장을 찾는 방문객이 많은 곳이다.

[표 3-36] 아산시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체험마을명	체험프로그램구분	체험내용	지정일자	홈페이지
신수리체험휴양마을	전통문화체험	온천체험	2017-03-01	홈페이지 없음
일대마을	전통문화체험	고추수확 및 고추장만들기 체험	2018-08-01	http://www.jsfarm336.cafe24.com
외암마을	전통문화체험	한지손거울, 한지부채 만들기, 천연염색, 손두부만들기	2010-01-01	www.oeam.co.kr
강당골마을	전통문화체험	전통무예체험, 도자기체험, 목공예체험	2011-01-01	https://kangdang.modoo.at/
다라미자운영마을	전통문화체험	나무곤충목걸이만들기, 꿀벌생태 관찰, 고구마캐기, 메뚜기잡기	2014-04-01	https://blog.naver.com/darami-7429

체험마을명	체험프로그램구분	체험내용	지정일자	홈페이지
오돌개마을	전통문화체험	다육이심기, 스톤아트목걸이, 새싹삼 심기	2014-03-01	홈페이지 없음
꽃가꾸는대통령마을	전통문화체험	산성체험, 완도란재배	2011-01-01	홈페이지 없음
내이랑마을	전통문화체험	가마솥두부만들기, 유기농 토마토비누, 오디잼만들기, 토마토, 오디수확	2012-02-01	http://e-rang.invil.org
기쁨두배마을	전통문화체험	배청, 배잼 만들기, 배따기, 고구마캐기, 땅콩캐기	2011-04-01	asan.invil.org
피골성마을	전통문화체험	곡식문패만들기, 다도체험, 압화손수건, 천연비누만들기	2013-12-01	https://blog.naver.com/kkoekkolseong
희안마을	전통문화체험	찰옥수수, 옥수수전, 농작물 수확, 천연염색 손수건 만들기	2012-01-01	홈페이지 없음
느티장승마을	전통문화체험	장승깎기, 짚풀공예, 표고체험, 전통추수체험, 생태체험	2012-01-01	홈페이지 없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아산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수를 분석한 결과 아산시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수도권 및 천안시 등 주변 대도시와 인접한 입지적 특성과 아산시 지역인구 규모, 전국적인 명성을 갖는 외암마을 등을 중심으로 2018년 기준 50만명 이상의 체험방문객을 유치하였다. 또한 2019년에도 2018년보다는 방문객 수가 감소하였으나 약 43만여 명이 찾는 지역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집계된 방문객 수가 13만여 명으로 약 69.3%가 급감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산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유형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객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단순방문, 체험, 휴양 순의 비중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체류유형별 방문인원을 보면 숙박형보다는 당일형이 월등히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로도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객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2019년 대비 2020년에 약 73.2%의 방문객이 급감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교육 목적의 방문객도 2018년 3,349명, 2019년 2,778명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코로나 이후 465명으로 전년대비 약 83.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 단체 등 교육목적으로 외암민속 마을 등을 찾는 방문객수가 급감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특이한 것은 대부분 방문목적에서 방문객 급감 현상을 찾아볼 수 있었으나, 단순방문은 2019년 대비 약 40.5%가 증가하였다는 사실이다. 또한 농특산물 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방문객 수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간의 증감은 있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이후 도시민들의 당일형 단순방문 비중이 높아졌으며, 코로나19가 도시민의 농특산물 구매를 위한 방문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체류유형은 코로나19이전과 큰 차이가 없이 당일형 방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7] 아산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증감 현황

구분			2018년(명)	2019년(명)	2020년(명)	2019년 대비 2020년 방문객 증감율(%)
총합계			512,460	430,483	132,104	-69.3
방문목적별 방문인원 (명)	관광	총합	385,782	360,161	96,347	-73.2
		내국인	378,239	349,294	95,227	-72.7
		외국인	7,543	10,867	1,120	-89.7
	휴양	총합	17,579	27,502	15,206	-44.7
		내국인	17,389	27,060	15,197	-43.8
		외국인	190	442	9	-98.0
	체험	총합	29,898	28,730	10,799	-62.4
		내국인	29,076	27,487	10,709	-61.0
		외국인	822	1,243	90	-92.8
	교육	총합	3,349	2,778	465	-83.3
		내국인	3,269	2,778	465	-83.3
		외국인	80	0	0	-
	연수	총합	1,783	1,803	442	-75.5
		내국인	1,593	1,803	442	-75.5
		외국인	190	0	0	-
	1사 1촌	총합	2,839	3,122	1,592	-49.0
		내국인	2,793	3,122	1,589	-49.1
		외국인	46	0	3	-
	단순 방문	총합	68,163	2,922	4,104	40.5
		내국인	67,765	2,853	3,837	34.5
		외국인	398	69	267	287.0
	농특 산물 구매	총합	3,065	3,166	3,045	-3.8
		내국인	3,055	3,160	3,043	-3.7
		외국인	10	6	2	-66.7
체류유형별 방문인원 (명)	당일형	총합	489,174	399,358	115,617	-71.0
		내국인	480,341	387,093	114,195	-70.5
		외국인	8,833	12,265	1,422	-88.4
	숙박형	총합	23,286	31,125	16,487	-47.0
		내국인	22,840	30,603	16,418	-46.4
		외국인	446	522	69	-86.8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5) 서산시

서산시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대부분 2010년과 2011년에 지정되었으며, 총 8개의 마을이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어 있다. 모든 마을의 체험프로그램 구분이 전통문화 체험으로 구분 지어져 있으나 세부 체험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체험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서산시의 경우 바다와 인접하고 있어 농촌체험과 함께 갯벌체험 등 바다를 체험할 수 있어 다양한 농어촌체험을 경험할 수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현황을 살펴보면 8개 마을 중 4개 마을이 홈페이지가 구축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개 마을의 경우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8] 서산시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체험마을명	체험프로그램구분	체험내용	지정일자	홈페이지
회포마을	전통문화체험	호박칼국수, 호박피자만들기, 천연염색	2010-01-01	http://hoepo.invil.org
솔마당마을	전통문화체험	인절미만들기체험, 농산물수확	2011-02-16	홈페이지 없음
한다리마을	전통문화체험	한다리 전통체험	2019-10-01	https://handari.weebly.com/
꽃송아리마을	전통문화체험	추억얼음썰매, 유칼립방향제만들기, 농산물수확체험	2010-11-01	https://arivill.weebly.com/
빛들마을	전통문화체험	숲속액자만들기, 생강한과만들기, 쪽 물들이기	2011-01-01	홈페이지 없음
별마을	전통문화체험	별자리목걸이만들기, 전통놀이	2011-10-01	홈페이지 없음
방길동마을	전통문화체험	갯벌체험, 바지락캐기	2011-01-01	홈페이지 없음
초록꿈틀마을	전통문화체험	쌀그림체험, 쌀겨비누만들기	2013-10-01	http://eccarea.co.kr

서산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수는 2018년 54,543명, 2019년 54,301명으로 연평균 약 5만4천여명의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1,201명으로 2019년 대비 79.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유형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의 경우 단순방문을 목적으로 한 방문객 수가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체험, 농특산물구매, 관광, 휴양 등으로 나타났다. 체류유형별 방문인원을 살펴보면 역시 숙박형보다는 당일형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서산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목적별 방문객 수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먼저 비중이 가장 높았던 단순방문의 경우 75.5%가 급감하였으며, 1사1촌과 연수의 경우 90%가 넘게 방문이 감소하였다. 관광의 경우 기존 2천여명대에서 200명대로 89.9%가 감소하였다. 또한 체험의 경우도 1만4천여명에서 2천명대로 약 84.9%, 농특산물구매도 3~4천명대에서 158명으로 95.4%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1사1촌의 경우 2백명 후반대의 방문객 수가 2020년에는 방문객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39] 서산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증감 현황

구분			2018년(명)	2019년(명)	2020년(명)	2019년 대비 2020년 방문객 증감율(%)
총합계			54,543	54,301	11,201	-79.4
방문목적별 방문인원 (명)	관광	총합	2,291	1,976	200	-89.9
		내국인	2,226	1,953	200	-89.8
		외국인	65	23	0	-100.0
	휴양	총합	2,969	1,781	495	-72.2
		내국인	2,953	1,781	493	-72.3
		외국인	16	0	2	-
	체험	총합	18,646	14,857	2,250	-84.9
		내국인	18,588	14,756	2,250	-84.8
		외국인	58	101	0	-100.0
	교육	총합	1,611	10,019	2,841	-71.6
		내국인	1,611	10,019	2,841	-71.6
		외국인	0	0	0	-
	연수	총합	951	1,648	95	-94.2
		내국인	951	1,396	95	-93.2
		외국인	0	252	0	-100.0
	1사 1촌	총합	275	292	0	-100.0
		내국인	275	292	0	-100.0
		외국인	0	0	0	-
	단순 방문	총합	22,717	20,220	4,954	-75.5
		내국인	22,715	20,214	4,946	-75.5
		외국인	2	6	8	33.3
	농특 산물 구매	총합	4,721	3,450	158	-95.4
		내국인	4,521	3,200	158	-95.1
		외국인	200	250	0	-100.0
체류유형별 방문인원 (명)	당일형	총합	52,478	50,830	10,074	-80.2
		내국인	52,160	50,198	10,066	-79.9
		외국인	318	632	8	-98.7
	숙박형	총합	2,065	3,471	1,127	-67.5
		내국인	2,042	3,471	1,125	-67.6
		외국인	23	0	2	-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6) 논산시

논산시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총 13개소로, 주요 체험프로그램으로서 지역특산물인 딸기를 소재로 운영하는 곳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산시 농촌체험휴양마을은 2011년에 가장 많은 마을이 지정되었다.

논산시 13개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마을을 홍보하고 있는 곳은 8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산시는 대도시인 대전과 인접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웹기반의 홍보를 강화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40] 논산시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체험마을명	체험프로그램구분	체험내용	지정일자	홈페이지
삼태미마을	전통문화체험	녹색농촌체험	2011-01-01	홈페이지 없음
평매마을	전통문화체험	염색체험, 농산물수확체험	2012-10-01	홈페이지 없음
도정마을	전통문화체험	딸기수확체험	2012-01-01	http://app.visitkorea.or.kr
덕곡마을	전통문화체험	물고기잡기체험	2011-01-01	https://cafe.daum.net/deokgok
참살미마을	전통문화체험	가훈쓰기, 천연염색체험, 복분자 송편만들기	2010-08-01	홈페이지 없음
딸기마을	전통문화체험	딸기수확체험, 딸기고추장만들기	2011-02-01	홈페이지 없음
시골매마을	전통문화체험	녹색농촌체험	2011-01-01	홈페이지 없음
포전마을	전통문화체험	딸기수확, 물놀이, 고구마수확	2011-12-01	http://www.pojeon.co.kr/
사월리마을	전통문화체험	딸기체험, 떡메치기	2011-02-01	http://swrr.cafe24.com/
덕바위마을	전통문화체험	농촌미술, 요리미술, 사비야별게임	2011-01-01	http://deokbawi.co.kr/
햇빛촌바랑산마을	전통문화체험	감자캐기, 물놀이, 꽃감작기, 인절미	2011-01-10	http://barang.invil.org
황산벌동지마을	전통문화체험	손수건 천연염색, 꽃물들이기, 핸드벨 음악체험	2014-05-28	https://gshan99.blog.me
동구리마을	전통문화체험	들기름, 참기름 짜기, 딸기잼 만들기, 꽃감 레시피 만들기	2015-11-01	http://blog.daum.net/hotssans

논산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수는 2018년 70,003명, 2019년 63,641명이었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38,808명으로 2019년 대비 39.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목적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에는 체험과 휴양, 단순 방문 순으로 방문목적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체류유형별로는 당일형이 숙박형의 약 2배가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에는 휴양, 관광 체험 농특산물 순으로 방문목적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목할 만한 점은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인원이 2019년에 비해 2020년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덕바위 마을에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20년 1월 약 7천여명이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농특산물 구매를 위한 방문객이 2019년 대비 급증한 것도 덕바위 마을 1월 방문객 집계에 의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20년 덕바위 마을의 방문객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2월과 9월에 방문객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체류유형별 방문인원을 살펴보면 당일형이 4만여명, 숙박형이 2만여명을 웃돌다가 코로나 19 이후 당일형은 2만여명대로 45.3%가 감소하였으며, 숙박형은 당일형보다는 적은 27.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형 방문객의 급감과 숙박형 방문객의 근소한 감소로 당일형과 숙박형 방문인원 비중 격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1] 논산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증감 현황

구분			2018년(명)	2019년(명)	2020년(명)	2019년 대비 2020년 방문객 증감율(%)
총합계			70,003	63,641	38,808	-39.0
방문목적별 방문인원 (명)	관광	총합	7,174	9,427	10,654	13.0
		내국인	7,174	9,415	10,654	13.2
		외국인	0	12	0	-100.0
	휴양	총합	18,070	19,865	16,826	-15.3
		내국인	18,060	19,865	16,821	-15.3
		외국인	10	0	5	-
	체험	총합	26,882	25,948	5,781	-77.7
		내국인	26,522	25,737	5,776	-77.6
		외국인	360	211	5	-97.6
	교육	총합	1,244	1,536	299	-80.5
		내국인	1,244	1,536	292	-81.0
		외국인	0	0	7	-
	연수	총합	2,455	2,398	189	-92.1
		내국인	2,455	2,398	189	-92.1
		외국인	0	0	0	-
	1사 1촌	총합	499	71	26	-63.4
		내국인	499	71	26	-63.4
		외국인	0	0	0	-
	단순 방문	총합	11,112	2,530	1,064	-57.9
		내국인	11,040	2,530	1,064	-57.9
		외국인	72	0	0	-
	농특 산물 구매	총합	2,567	1,746	3,852	120.6
		내국인	2,567	1,746	3,852	120.6
		외국인	0	0	0	-
체류유형별 방문인원 (명)	당일형	총합	49,184	40,938	22,413	-45.3
		내국인	48,747	40,765	22,403	-45.0
		외국인	437	173	10	-94.2
	숙박형	총합	20,819	22,703	16,395	-27.8
		내국인	20,814	22,653	16,388	-27.7
		외국인	5	50	7	-86.0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7) 계룡시

계룡시에는 1개 마을인 계룡넓은돌마을이 2015년부터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전통문화체험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2] 계룡시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체험마을명	체험프로그램구분	체험내용	지정일자	홈 페이지
계룡넓은돌마을	전통문화체험	천연비누, 강정만들기	2015-01-01	http://pm.invil.org

계룡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수는 2018년 5,147명, 2019년에는 7,881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350명으로 2019년 대비 약 70.2%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룡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목적별 방문인원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2019년에는 단순방문과 체험을 목적으로 주된 방문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코로나 19 이후인 2020년에는 기존에 증가추세였던 체험 방문이 약 81.0% 급감하여 단순방문에 비해 낮은 방문목적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외 특징을 살펴보면 단순방문의 경우 코로나 이전보다 약 6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특산물 구매를 위한 방문이 약 150명 정도 새롭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 체험 중심의 농촌방문에서 코로나19 이후에는 농특산물 구매를 위한 방문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체류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당일형 방문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3] 계룡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증감 현황

구분			2018년(명)	2019년(명)	2020년(명)	2019년 대비 2020년 방문객 증감율(%)
총합계			5,147	7,881	2,350	-70.2
방문목적별 방문인원 (명)	관광	총합	0	0	0	-
		내국인	0	0	0	-
		외국인	0	0	0	-
	휴양	총합	0	0	0	-
		내국인	0	0	0	-
		외국인	0	0	0	-
	체험	총합	2,147	3,677	699	-81.0
		내국인	2,147	3,677	699	-81.0
		외국인	0	0	0	-
	교육	총합	0	0	0	-
		내국인	0	0	0	-
		외국인	0	0	0	-
	연수	총합	0	0	0	-
		내국인	0	0	0	-
		외국인	0	0	0	-
	1사 1촌	총합	0	0	0	-
		내국인	0	0	0	-
		외국인	0	0	0	-
	단순 방문	총합	3,000	4,204	1,438	-65.8
		내국인	3,000	4,104	1,438	-65.0
		외국인	0	100	0	-100.0
	농특 산물 구매	총합	0	0	150	-
		내국인	0	0	150	-
		외국인	0	0	0	-
체류유형별 방문인원 (명)	당일형	총합	5,147	7,881	2,350	-70.2
		내국인	5,147	7,781	2,350	-69.8
		외국인	0	100	0	-100.0
	숙박형	총합	0	0	0	-
		내국인	0	0	0	-
		외국인	0	0	0	-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8) 당진시

당진시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6개 마을이 지정되어 있으며,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정되어있는 당진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당나루물꽃마을이 2008년 가장 먼저 지정되었으며, 약초아카데미 등의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현황을 살펴보면 6개 마을 중 3개 마을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홍보 및 마을정보공유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방문객이 가장 많은 마을은 백석올미마을로 ‘할머니들의 반란’이라는 마케팅으로 성공적인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백석올미영농조합이라는 자립형 사회적기업 운영 중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표 3-44] 당진시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체험마을명	체험프로그램구분	체험내용	지정일자	홈페이지
합덕연지마을	전통문화체험	이영역기(짚꼬기), 계절별 꽃심기, 꽃(수국 대),계란꾸러미	2019-07-01	홈페이지 없음
푸레기마을	전통문화체험	갯벌체험, 한지손거울만들기	2013-02-01	www.041-353-5008.ezbuilder.co.kr
영전향토마을	전통문화체험	두부만들기체험, 농산물수확체험, 황토염색체험	2010-11-17	https://www.farmstay.co.kr/index.php/village/A40199
당나루물꽃마을	전통문화체험	나무액자만들기, 약초아카데미	2008-05-01	홈페이지 없음
왕매실마을	전통문화체험	두부만들기, 한과체험	2013-01-01	홈페이지 없음
백석올미마을	전통문화체험	올미약과, 전통강정만들기	2014-01-01	http://www.allmeone.com

당진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수는 2018년 50,848명, 2019년 47,169명이었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49,935명으로 2019년 보다 소폭 증가(5.9%)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진시의 주요 축제로 성장 중인 합덕제 연호문화축제와 연계한 합덕연지마을의 성장으로 축제가 개최되는 2020년 7월부터 합덕연지마을의 방문객이 급증한 것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방문목적별 특징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적으로는 농특산물 구매를 목적으로 한 방문객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에는 체험, 연수, 교육을 목적으로 한 방문객 수는 급감하였으나, 단순방문을 목적으로 한 방문객 수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인근 대도시민들의 당일형 단순 방문이 늘어나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표 3-45] 당진시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증감 현황

구분			2018년 (명)	2019년 (명)	2020년 (명)	2019년 대비 2020년 방문객 증감율(%)
총합계			50,848	47,169	49,935	5.9
방문목적별 방문인원 (명)	관광	총합	345	1,247	381	-69.4
		내국인	298	1,247	356	-71.5
		외국인	47	0	25	-
	휴양	총합	1,742	2,096	2,286	9.1
		내국인	1,739	2,085	2,282	9.4
		외국인	3	11	4	-63.6
	체험	총합	17,103	15,677	4,933	-68.5
		내국인	16,779	15,383	4,933	-67.9
		외국인	324	294	0	-100.0
	교육	총합	628	531	50	-90.6
		내국인	628	526	50	-90.5
		외국인	0	5	0	-100.0
	연수	총합	731	400	90	-77.5
		내국인	709	357	85	-76.2
		외국인	22	43	5	-88.4
	1사 1촌	총합	757	117	280	139.3
		내국인	757	117	280	139.3
		외국인	0	0	0	-
	단순 방문	총합	5,351	2,213	15,244	588.8
		내국인	5,351	2,213	15,235	588.4
		외국인	0	0	9	-
	농특 산물 구매	총합	24,191	24,888	26,633	7.0
		내국인	24,191	24,235	26,400	8.9
		외국인	0	653	233	-64.3
체류유형별 방문인원 (명)	당일형	총합	47,665	44,216	47,806	8.1
		내국인	47,472	43,221	47,534	10.0
		외국인	193	995	272	-72.7
	숙박형	총합	3,183	2,953	2,129	-27.9
		내국인	2,980	2,942	2,125	-27.8
		외국인	203	11	4	-63.6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9) 금산군

금산군에는 총 7개소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정되어 있으며, 지정된 마을 중 바리실마을이 2010년 가장 먼저 지정되어 운영되어지고 있다.

금산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지역의 특산물인 인삼을 소재로 한 체험프로그램과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으로 바탕으로 방문객들이 연간 8만여명 이상 방문하고 있다.

[표 3-46] 금산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체험마을명	체험프로그램구분	체험내용	지정일자	홈페이지
바리실마을	전통문화체험	농촌동물체험, 사과따기, 우렁잡기	2010-03-30	홈페이지 없음
진산애행복누리마을	전통문화체험	산림문화체험	2018-11-23	홈페이지 없음
적벽강마을	전통문화체험	한방향주머니 만들기, 인삼비누 만들기	2011-11-01	http://www.xn--939aw92agpi.com/
닥실마을	전통문화체험	인삼꽃병 만들기, 다육이 화분 만들기	2011-03-01	https://www.xn--jj0bv76ax6ehwhz2i.com/sub3/sub305
두곡마을	전통문화체험	족욕, 헝사곤체험, 한방환, 천연염색	2011-06-01	홈페이지 없음
막현리마을	전통문화체험	두부, 떡 만들기, 들·참기름 짜기, ATV체험	2011-02-01	http://www.mhgr.kr/
조팝꽃피는마을	전통문화체험	도자기체험, 생태체험	2012-03-30	http://sinantown.app-shop.co.kr

금산군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수는 2018년 109,297명, 2019년 89,213명이었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84,456명으로 증감률이 -5.3%에 그치며 타 시군에 비해 적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마을별 방문객 추이를 살펴본 결과 금산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경우 한 마을을 제외하고는 타 지자체 마을들에 비해 코로나19 영향에도 상대적으로 방문객이 꾸준하게 방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방문목적별로 방문객수 변화를 살펴보면 2018년과 2019년은 단순방문이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2020년에는 금산군 농촌체험휴양마을에 휴양을 위한 방문이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휴양과 1사1촌을 목적으로 한 방문객 수는 이전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교육, 연수, 농특산물 구매의 경우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47] 금산군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증감 현황

구분			2018년(명)	2019년(명)	2020년(명)	2019년 대비 2020년 방문객 증감율(%)
총합계			109,297	89,213	84,456	-5.3
방문목적별 방문인원 (명)	관광	총합	426	8,895	4,226	-52.5
		내국인	426	7,600	4,226	-44.4
		외국인	0	1,295	0	-100.0
	휴양	총합	24,653	13,910	35,511	155.3
		내국인	24,508	13,594	35,511	161.2
		외국인	145	316	0	-100.0
	체험	총합	13,776	19,329	11,828	-38.8
		내국인	13,759	18,051	11,827	-34.5
		외국인	17	1,278	1	-99.9
	교육	총합	2,394	6,345	851	-86.6
		내국인	2,294	6,345	851	-86.6
		외국인	100	0	0	-
	연수	총합	1,491	3,184	585	-81.6
		내국인	1,365	3,184	585	-81.6
		외국인	126	0	0	-
	1사 1촌	총합	6,836	5,652	12,218	116.2
		내국인	6,834	5,652	12,197	115.8
		외국인	2	0	21	-
	단순 방문	총합	55,474	26,212	16,498	-37.1
		내국인	54,676	25,876	16,468	-36.4
		외국인	798	336	30	-91.1
	농특 산물 구매	총합	4,247	5,617	2,141	-61.9
		내국인	4,247	5,617	2,141	-61.9
		외국인	0	0	0	-
체류유형별 방문인원 (명)	당일형	총합	84,520	68,775	70,930	3.1
		내국인	83,677	65,737	70,879	7.8
		외국인	843	3,038	51	-98.3
	숙박형	총합	24,777	20,438	13,526	-33.8
		내국인	24,432	20,251	13,525	-33.2
		외국인	345	187	1	-99.5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10) 부여군

부여군에는 총 8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정되어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프로그램과 전통문화체험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부여양송이마을로 2015년 체험, 교육, 숙박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교류센터를 설립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바리스타, 천연화장품, 발효효소, 제과제빵, 떡아트 등 지역 역량교육을 수료한 전문가들이 모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양송이 홍보를 위해 양송이를 넣은 피자 축제, 수제 양송이핫도그 등 양송이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현황을 살펴보면 8개 마을 중 7개 마을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홍보 및 마을정보공유를 시행하고 있어 타지자체에 비해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8] 부여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체험마을명	체험프로그램구분	체험내용	지정일자	홈페이지
백제인동마을	전통문화체험	꽃부채만들기, 도자기목걸이만들기	2010-01-01	https://baekjeindong.modoo.at/
부여기와마을	전통문화체험	발효식초, 천연비누만들기, 향초, 전통두부만들기, 백제떡	2009-03-01	http://www.부여기와마을.kr
송죽마을	전통문화체험	대나무압화, 짚공예, 인절미만들기	2010-12-01	https://www.farmstay.co.kr/village/A40284
신암전통테마마을	전통문화체험	전통놀이체험	2011-01-01	홈페이지 없음
구례울체험마을	전통문화체험	풀각시공예, 대나무피리	2013-12-01	https://cafe.daum.net/chunbo12
친환경가치마을	전통문화체험	정월대보름 처사대회, 딸기, 아로니아체험	2014-04-07	http://www.ccachi.com/web/page/
부여양송이마을	전통문화체험	양송이화덕피자체험, 버섯돌이 체험, 물놀이체험, 가족사랑인성 캠프, 역사캠프, 과학인성캠프	2014-09-01	http://www.양송이마을.com
고추골술바람마을	전통문화체험	두레풍물, 전통놀이	2015-06-01	https://gochugol.modoo.at/

부여군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수는 2018년 51,107명에서 2019년 32,402명으로 매해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전년대비 약 62.7%가 급감한 12,077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 2018년과 2019년 부여군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목적별 특징을 살펴보면 체험을 목적으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았으며, 다음으로 단순방문, 휴양, 관광, 연수 및 교육을 목적으로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2020년에는 관광과 교육, 1사1촌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객이 전년대비 90%가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농촌관광에 극심한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농특산물 구매는 2019년 대비 약 40.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류유형별로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해 당일형 방문이 숙박형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일형 관광객 감소하는 폭보다 숙박형 방문객이 감소하는 폭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3-49] 부여군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증감 현황

구분			2018년 (명)	2019년 (명)	2020년 (명)	2019년 대비 2020년 방문객 증감율(%)
총합계			57,107	32,402	12,077	-62.7
방문목적별 방문인원 (명)	관광	총합	6,131	2,648	73	-97.2
		내국인	5,507	2,413	73	-97.0
		외국인	624	235	0	-100.0
	휴양	총합	6,723	2,699	1,607	-40.5
		내국인	6,670	2,667	1,552	-41.8
		외국인	53	32	55	71.9
	체험	총합	21,895	12,905	3,804	-70.5
		내국인	21,329	12,380	3,470	-72.0
		외국인	566	525	334	-36.4
	교육	총합	2,768	1,382	42	-97.0
		내국인	2,720	1,382	42	-97.0
		외국인	48	0	0	-
	연수	총합	1,875	1,465	342	-76.7
		내국인	1,875	1,465	342	-76.7
		외국인	0	0	0	-
	1사 1촌	총합	75	19	0	-100.0
		내국인	75	19	0	-100.0
		외국인	0	0	0	-
	단순 방문	총합	10,904	9,498	3,325	-65.0
		내국인	10,828	9,462	3,309	-65.0
		외국인	76	36	16	-55.6
	농특 산물 구매	총합	6,686	1,246	1,746	40.1
		내국인	6,667	1,246	1,742	39.8
		외국인	19	0	4	-
체류유형별 방문인원 (명)	당일형	총합	43,073	27,823	10,153	-63.5
		내국인	41,800	27,094	9,942	-63.3
		외국인	1,273	729	211	-71.1
	숙박형	총합	14,034	4,579	1,924	-58.0
		내국인	13,921	4,480	1,726	-61.5
		외국인	113	99	198	100.0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11) 서천군

서천군에는 12개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의 특산물인 모시와 지역 주요 자원인 갯벌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서천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은 봉하마을로 2017년에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지정되었다. 봉하마을은 마을 주민이 직접 재배하는 콩, 표고버섯, 울금 등의 1차 농산물을 콩돈까스 및 스테이크로 제품화해 생산판매하는 2차 산업으로 연결하고 콩을 이용한 두부만들기와 갯벌 체험 등을 운영하는 농업6차산업화 마을기업의 모델로 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곳이다.

방문객의 증가세가 가장 높은 곳은 선도리갯벌체험마을로 갯벌을 활용한 동죽 깨기 체험 등 방문객들에게 독특한 체험을 제공하고 있어 방문객들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현황을 살펴보면 12개 마을 중 8개 마을이 홈페이지가 구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0] 서천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체험마을명	체험프로그램구분	체험내용	지정일자	홈페이지
봉하마을	전통문화체험	계절꽃만들기, 도자기페인팅	2017-02-01	홈페이지 없음
이색체험마을	전통문화체험	모시 베를 짜기 체험, 기능성 소금 만들기체험, 황태해장국 ·낙지젓갈비빔밥·버섯울금밥 식사체험	2020-03-17	http://www.ons ef.co.kr/
장선리마을공동체	자연생태체험	생태체험+아로니아청만들기	2019-01-30	홈페이지 없음
동백꽃마을	전통문화체험	오색송편만들기, 짬뽕공예	2011-01-01	http://camellia.in vil.org/
행복마을	전통문화체험	두부만들기, 모시떡만들기	2010-01-01	홈페이지 없음
황새마을	전통문화체험	염색체험, 허수아비만들기	011-10-01	https://www.far mstay.co.kr/villa ge/NH00066
달고개모시마을	전통문화체험	모시공예, 송편만들기	2011-02-01	https://korean.vi sitkorea.or.kr/
동자북문화역사마을	전통문화체험	소곡주빔기체험, 모시베를체험, 짬공예	2011-07-01	http://www.don gjabuk.com
선도리갯벌체험마을	전통문화체험	조개부채, 조개팔찌만들기	2011-01-01	http://cafe.daum .net/sundolri
고살메갈꽃체험마을	전통문화체험	바리스타체험, 모시초콜릿만들기	2011-12-01	홈페이지 없음
갈숲마을	전통문화체험	갈대발만들기, 모시베를체험	2012-10-01	https://www.ins tagram.com/gals up_official/
물벼들마을	전통문화체험	인두화체험, 규방공예체험	2016-03-01	https://www.far mstay.co.kr/villag e/NH00067/news

서천군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수는 2018년 127,630명, 2019년 86,646명으로 감소 경향을 보였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32,558명으로 62.4%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군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유형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단순방문과 체험방문, 농특산물 구매 등이 높게 나타났다. 체류유형별 방문인원을 살펴보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당일형이 높게 나타났으며, 숙박형의 비중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의 경우 역시 단순방문과 체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전체적인 방문객 수는 2019년 체험방문객이 4만5천여 명에서 2020년에 3천9백여명으로 91%이상 급감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사1촌을 위한 방문의 경우 2018년 253명에서 2019년 437명으로 증가경향을 보이다가 2020년에는 약 3,714명이 약 7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봉하마을에 2020년 5월부터 9월까지 1사1촌 방문객이 급증하여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체류유형별 방문을 살펴보면 숙박형 방문보다는 당일형 방문 비율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당일형의 경우 매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숙박형은 완만하게 감소하여 당일형과 숙박형의 격차가 상당히 좁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51] 서천군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증감 현황

구분			2018년 (명)	2019년 (명)	2020년 (명)	2019년 대비 2020년 방문객 증감율(%)
총합계			127,630	86,646	32,558	-62.4
방문목적별 방문인원 (명)	관광	총합	1,586	7,128	4,689	-34.2
		내국인	1,586	7,113	4,677	-34.2
		외국인	0	15	12	-20.0
	휴양	총합	4,415	4,952	2,364	-52.3
		내국인	4,302	4,915	2,363	-51.9
		외국인	113	37	1	-97.3
	체험	총합	24,625	45,985	3,908	-91.5
		내국인	24,595	45,865	3,908	-91.5
		외국인	30	120	0	-100.0
	교육	총합	2,677	2,556	2,574	0.7
		내국인	2,677	2,544	2,572	1.1
		외국인	0	12	2	-83.3
	연수	총합	242	561	434	-22.6
		내국인	242	538	434	-19.3
		외국인	0	23	0	-100.0
	1사 1촌	총합	253	437	3,714	749.9
		내국인	253	437	3,714	749.9
		외국인	0	0	0	-
	단순 방문	총합	86,196	18,600	11,575	-37.8
		내국인	86,192	18,242	11,287	-38.1
		외국인	4	358	288	-19.6
	농특 산물 구매	총합	7,584	5,641	2,609	-53.7
		내국인	7,569	5,608	2,582	-54.0
		외국인	15	33	27	-18.2
체류유형별 방문인원 (명)	당일형	총합	119,384	75,611	23,601	-68.8
		내국인	119,365	75,092	23,273	-69.0
		외국인	19	519	328	-36.8
	숙박형	총합	8,246	11,035	8,957	-18.8
		내국인	8,103	10,938	8,955	-18.1
		외국인	143	97	2	-97.9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12) 청양군

청양군은 충남에서 가장 많은 15곳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 마을이 2010년에 지정되었으며, 농산물 체험을 기본으로 청양군 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만들기 체험과 전통문화체험을 주로 운영하고 있다.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현황을 살펴보면 15개 마을 중 14개 마을이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타 지자체에 비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홈페이지 구축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청양군의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은 알프스마을로 연간 40만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에 많은 방문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알프스마을의 경우 4계절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와 축제 개최를 통해 지속적으로 방문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표 3-52] 청양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체험마을명	체험프로그램구분	체험내용	지정일자	홈페이지
장곡마을	전통문화체험	미니장승만들기	2010-12-01	http://www.cygg.co.kr
동막골마을	전통문화체험	누에체험	2018-01-01	http://xn--bb0bq5kk8e87hpnghtm.com
용꿈꾸는마을	전통문화체험	농산물수확체험	2010-12-01	홈페이지 없음
고인돌마을	전통문화체험	솔잎차, 산야초효소담그기	2011-01-01	http://www.gogood.kr/
까치내마을	전통문화체험	장승각기, 참깨막체험, 토마토따기, 밤줍기	2011-05-01	http://www.kkachinae.com
물여울마을	전통문화체험	닥터피수체험, 추수체험	2014-05-01	https://hwaam.modoo.at/
바둑골마을	전통문화체험	물살매타기, 숲속탐방	2011-03-01	https://cync.modoo.at/
백곡마을	전통문화체험	고추따기 체험, 구기자효소만들기	2013-01-01	https://baekgok.modoo.at/
사자산마을	전통문화체험	가래잡기, 구기자외떡만들기, 무동력농기계체험, 산야초효소체험	2010-12-01	http://sajasan.kr
알프스마을	전통문화체험	조롱박꾸미기, 유기농박화장품체험, 집트래체험, 눈썰매타기	2010-12-01	http://www.alpsvill.com
은골구자마을	전통문화체험	수제 소시지/어묵 만들기, 활 만들기, 고사리수확체험	2010-08-01	https://www.farmstay.co.kr/village/A40421
꽃매마을	전통문화체험	맥문동가심체험, 납건공예, 박쥐동굴체험	2010-01-01	https://kkotmoe.modoo.at/
가파마을	전통문화체험	고추장떡만들기, 구기자인절미만들기, 다식만들기, 천연쪽염색체험	2010-09-01	http://gapa.invil.org
칠갑산산꽃마을	전통문화체험	다육식물심기, 고추장담그기, 연생타체험, 떡메치기	2010-01-01	http://cafe.daum.net/cy0401
칠갑사마을	전통문화체험	오리배타기, 수상자전거타기	2012-01-01	http://www.xn--539aj1k12m4kn.kr/default/

청양군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수는 2018년 479,162명, 2019년 465,248명으로 약 4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22,457명으로 2019년 대비 52.2%가 급감하였다.

청양군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목적별 방문인원을 살펴보면 코로나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에는 단순방문이 21만여명 이상, 체험 방문객이 약 18만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양이나 농특산물 구매를 위한 방문도 1만여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2020년에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단순방문과 체험방문이 55%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사1촌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의 경우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눈에 띄는 것은 모든 방문객 증감률이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 것에 반해 휴양의 경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2020년 약 20.4%가 증가하였으며, 외국인 관광객도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각 마을별 방문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 이전인 2020년 1월 알프스 마을의 칠갑산얼음분수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약 10만여명의 방문객이 해당 월에 집중되고, 휴양을 위한 방문도 1만6천여명으로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이전 마을축제의 영향이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청양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체류유형별 방문인원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 모두 당일형이 높게 나타났으며, 감소폭도 약 절반에 해당하는 등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표 3-53] 청양군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증감 현황

구분			2018년(명)	2019년(명)	2020년(명)	2019년 대비 2020년 방문객 증감율(%)
총합계			479,162	465,248	222,457	-52.2
방문목적별 방문인원 (명)	관광	총합	1,580	11,136	2,386	-78.6
		내국인	1,559	11,109	2,359	-78.8
		외국인	21	27	27	0.0
	휴양	총합	16,842	19,227	23,157	20.4
		내국인	16,784	19,175	22,841	19.1
		외국인	58	52	316	507.7
	체험	총합	189,476	188,031	79,973	-57.5
		내국인	187,787	187,297	79,344	-57.6
		외국인	1,689	734	629	-14.3
	교육	총합	5,178	4,682	2,615	-44.1
		내국인	5,178	4,627	2,615	-43.5
		외국인	0	55	0	-100.0
	연수	총합	1,512	2,960	230	-92.2
		내국인	1,507	2,878	230	-92.0
		외국인	5	82	0	-100.0
	1사 1촌	총합	3,165	182	13	-92.9
		내국인	3,165	182	13	-92.9
		외국인	0	0	0	-
	단순 방문	총합	248,035	219,071	97,599	-55.4
		내국인	246,042	218,113	96,579	-55.7
		외국인	1,993	958	1,020	6.5
	농특 산물 구매	총합	13,374	19,923	16,063	-19.4
		내국인	13,372	19,843	16,057	-19.1
		외국인	2	80	6	-92.5
체류유형별 방문인원 (명)	당일형	총합	454,564	440,947	209,560	-52.5
		내국인	450,880	438,977	207,615	-52.7
		외국인	3,684	1,970	1,945	-1.3
	숙박형	총합	24,598	24,301	12,897	-46.9
		내국인	24,514	24,283	12,844	-47.1
		외국인	84	18	53	194.4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13) 홍성군

홍성군에는 총 13개소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정되어 있으며, 지역의 전통문화를 토대로 다양한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정된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오산상광제마을이 2009년 가장 먼저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산상광제마을에서는 딸기·산나물·옥수수 수확, 물놀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현황을 살펴보면 13개 마을 중 7개 마을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마을 홍보 및 정보공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4] 홍성군 농촌체험휴양마을현황

체험마을명	체험프로그램구분	체험내용	지정일자	홈페이지
하누리마을	전통문화체험	공작쑥개떡만들기, 과수체험	2011-01-01	홈페이지 없음
거북이마을	전통문화체험	생태체험, 대나무숲길체험	2011-09-01	http://www.turtle-vill.com
오산상광제마을	농작물경작체험	딸기·산나물·옥수수 수확, 물놀이	2009-01-01	홈페이지 없음
느리실마을	전통문화체험	넙킨아트, 대나무양초체험	2013-01-01	https://blog.naver.com/hsnrs621
오산상삼담마을	전통문화체험	향초만들기, 자연물공예	2015-03-01	https://osesan999.modoo.at/
문당마을	전통문화체험	쌀강정만들기, 논생물조사	2010-04-01	http://mundang.invil.org
용봉산돌바위마을	전통문화체험	도자기공예체험, 천연염색체험	2015-08-01	홈페이지 없음
봉암마을	농작물경작체험	쑥개떡체험, 쥐불놀이, 낙엽으로 액자 꾸미기, 대나무 물총 만들기	2013-01-01	홈페이지 없음
왕대골마을	전통문화체험	찜뽕만들기체험, 대나무활만들기체험	2015-04-01	https://blog.naver.com/world4660
상리마을	전통문화체험	나무액자만들기, 소원복만들기	2014-03-01	홈페이지 없음
하리철새 마을	전통문화체험	무지개물고기만들기, 배타기체험	2015-05-01	http://hanwoolmaru.com/
고미당마을	전통문화체험	고택체험, 중기음식체험, 전통혼례체험	2015-06-01	홈페이지 없음
오누이마을	전통문화체험	목공체험, 농사체험	2016-07-01	https://www.facebook.com/onuinaul

홍성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방문객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 기준 168,218명 2019년 173,155명으로 증가추세였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107,106명으로 2019년 대비 약 38.1%가 감소였다. 이는 타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감소폭이지만 약 7만여명의 방문객이 감소하는 등 농촌관광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이전 2018년과 2019년 홍성군 농촌체험마을 방문유형을 방문목적별로 살펴보면 단순방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광과 체험, 더불어 휴양과 교육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2020년에는 단순방문이 높게 나타났으나 농특산물 구매, 연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사1촌의 경우 연간 320여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가 2020년에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휴양의 경우 전년대비 23.3%가 증가한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오서산 상담마을의 방문객수가 2020년 코로나 대유행 하던 3월과 9월 등을 제외하고는 일정수준 이상 유지되거나 방문객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체류 유형별로 살펴보면 3개년 모두 당일형 방문이 숙박형 방문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숙박형 방문의 방문객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5] 홍성군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증감 현황

구분			2018년(명)	2019년(명)	2020년(명)	2019년 대비 2020년 방문객 증감율(%)
총합계			168,218	173,155	107,106	-38.1
방문목적별 방문인원 (명)	관광	총합	48,437	34,654	21,664	-37.5
		내국인	48,352	34,604	21,654	-37.4
		외국인	85	50	10	-80.0
	휴양	총합	17,891	13,064	16,108	23.3
		내국인	17,891	13,061	16,108	23.3
		외국인	0	3	0	-100.0
	체험	총합	29,894	14,828	9,840	-33.6
		내국인	29,617	14,764	9,840	-33.4
		외국인	277	64	0	-100.0
	교육	총합	11,362	7,164	3,730	-47.9
		내국인	10,954	7,156	3,730	-47.9
		외국인	408	8	0	-100.0
	연수	총합	4,838	4,938	2,242	-54.6
		내국인	4,603	4,856	2,242	-53.8
		외국인	235	82	0	-100.0
	1사 1촌	총합	320	368	0	-100.0
		내국인	320	368	0	-100.0
		외국인	0	0	0	-
	단순 방문	총합	54,593	95,249	52,508	-44.9
		내국인	54,532	94,905	52,378	-44.8
		외국인	61	344	130	-62.2
	농특 산물 구매	총합	877	2,587	263	-89.8
		내국인	877	2,587	263	-89.8
		외국인	0	0	0	-
체류유형별 방문인원 (명)	당일형	총합	152,164	160,967	100,431	-37.6
		내국인	151,308	160,437	100,290	-37.5
		외국인	856	530	141	-73.4
	숙박형	총합	16,054	12,188	6,675	-45.2
		내국인	15,844	12,167	6,675	-45.1
		외국인	210	21	0	-100.0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14) 예산군

예산군에는 총 6곳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정되어 있으며, 지역의 특산물인 사과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비교적 최근에 지정된 황새권역마을로 연간 3만명의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황새를 주제로 한 마을로 황새에 대한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특히 황새의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기 인증된 논이 펼쳐져 있고 곳곳에 전통 둠벙, 논생물체험장, 메기체험장 등이 있다. 주변에 황새공원이 있어 황새 관찰을 할 수 있으며, 숙박시설도 갖추고 있어 황새를 통한 생태체험과 함께 체험과 여유 있게 여행할 수 있는 곳이다.

예산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홈페이지 구축현황을 살펴보면 6개 마을 중 3개 마을이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고 다른 3개 마을은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마을홍보를 위한 홍보매체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56] 예산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체험마을명	체험프로그램구분	체험내용	지정일자	홈페이지
가야한티마을	전통문화체험	녹색농촌체험	2011-01-01	홈페이지 없음
알토란사과마을	전통문화체험	사과떡, 사과풍선만들기	2012-08-01	https://www.youtube.com/channel/UCnw7vZVlo7zSIYonMt1Fow
신장리사과체험마을	전통문화체험	사과와인, 사과잼만들기	2012-07-04	홈페이지 없음
또오실마을	전통문화체험	산나물채취, 논 생태체험(우렁이잡기)	2015-03-01	홈페이지 없음
농리산촌생태마을	전통문화체험	농작물수확, 마을 둘레길체험	2015-11-01	https://0413322015.modoo.at/
황새권역마을	전통문화체험	우리밀피자체험, 설기도넛	2015-12-01	http://www.황새마을.com/

예산군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수는 2018년 기준 6,746명 2019년 29,378명이었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7,166명으로 2019년 대비 약 75.6%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군 농촌체험마을 방문 유형을 방문 목적별로 살펴보면, 코로나 이전인 2018년과 2019년에는 관광, 체험, 휴양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유형별

방문인원을 보면 2018년에는 당일형과 숙박형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며, 2019년에는 당일형 방문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숙박형 방문은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에는 관광, 체험, 농특산물 구매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농특산물 구매를 위한 방문의 경우 코로나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황새권역마을에 2019년부터 관광, 체험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한 9월을 제외하고는 농특산물 구매 등을 위한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표 3-57] 예산군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증감 현황

구분			2018년(명)	2019년(명)	2020년(명)	2019년 대비 2020년 방문객 증감율(%)
총합계			6,746	29,378	7,166	-75.6
방문목적별 방문인원 (명)	관광	총합	108	23,801	3,101	-87.0
		내국인	107	23,787	3,101	-87.0
		외국인	1	14	0	-100.0
	휴양	총합	3,009	1,388	338	-75.6
		내국인	3,009	1,388	338	-75.6
		외국인	0	0	0	-
	체험	총합	2,580	2,689	2,350	-12.6
		내국인	2,580	2,669	2,350	-12.0
		외국인	0	20	0	-100.0
	교육	총합	406	1,151	143	-87.6
		내국인	406	1,151	143	-87.6
		외국인	0	0	0	-
	연수	총합	100	16	8	-50.0
		내국인	100	16	8	-50.0
		외국인	0	0	0	-
	1사 1촌	총합	0	0	0	-
		내국인	0	0	0	-
		외국인	0	0	0	-
	단순 방문	총합	543	291	15	-94.8
		내국인	538	291	15	-94.8
		외국인	5	0	0	-
	농특 산물 구매	총합	0	0	1,195	-
		내국인	0	0	1,195	-
		외국인	0	0	0	-
체류유형별 방문인원 (명)	당일형	총합	3,491	27,872	6,640	-76.2
		내국인	3,485	27,838	6,640	-76.1
		외국인	6	34	0	-100.0
	숙박형	총합	3,255	1,506	526	-65.1
		내국인	3,255	1,506	526	-65.1
		외국인	0	0	0	-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15) 태안군

태안군에는 총 9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5만명의 방문객이 찾고 있다. 주요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주변 갯벌을 활용한 갯벌체험을 소재로 독살체험이나 갯벌체험, 어업체험, 염전체험 등 다양한 어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태안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매화뚝방마을로 글램핑장, 숲속펜션 등 다양한 숙박시설과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어 방문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다음으로는 가장 최근에 지정된 별주부마을로 갯벌을 활용한 다양한 갯벌체험과 지역의 전통어로 방식인 독살을 활용한 독살체험 등의 독특한 체험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태안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현황을 보면 9개 마을 중 6개 마을이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8] 태안군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체험마을명	체험프로그램구분	체험내용	지정일자	홈페이지
별주부마을	전통문화체험	독살체험, 갯벌체험	2017-01-01	http://byuljubu.invil.org/
벚가리마을	전통문화체험	갯벌체험, 다육식물화분만들기	2010-04-01	http://byutgari.invil.org
매화뚝방마을	전통문화체험	감자캐기, 미꾸라지 잡기, 쌀찐빵 만들기, 둥방생태학습, 짚풀공예	2011-01-01	http://www.dumbeong.com/
조개부리마을	농작물경작체험	갯벌체험, 바다낚시, 농산물수확체험, 함초인절미체험, 연만들기체험	2011-01-01	홈페이지 없음
노을지는갯마을	전통문화체험	갯벌체험, 어업체험, 염전체험, 농사체험 등	2012-02-01	http://www.seavillage.net/
법산연꽃마을	농작물경작체험	갯벌체험, 자연탐방, 농사체험, 어업체험, 바다학교 등	2011-01-01	홈페이지 없음
갈두천권역마을	전통문화체험	농사체험, 농산물가공체험, 놀이체험 등	2013-01-01	http://www.galduchun.com
길우지마을	전통문화체험	와송만들기, 딸기수확, 조롱박터널, 자연탐방 등	2015-01-01	https://www.farmstay.co.kr/village/NH00069
해비알마을	농작물경작체험	갯벌체험, 쌀겨 찜질방 체험 등	2015-01-01	홈페이지 없음

태안군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수는 2018년 기준 51,751명 2019년 46,479명이었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32,201명으로 약 3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군 농촌체험마을 방문 유형을 방문목적별로 살펴보면 코로나 이전인 2018~2019년에는 단순방문과 체험방문의 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에는 단순방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방문객 감소율도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반면 체험방문의 경우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약 74%의 큰 감소율을 보였다.

태안군 방문객 수 증감 현황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관광 및 휴양, 연수 등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이중 관광의 경우 2019년 대비 2020년 281.7%나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마을별 방문객수를 분석해 본 결과 태안별주부 마을에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보다 월별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고, 특히 7, 8월 여름철에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코로나 이후 비대면 언택트 관광지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특히 여름철 해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활동을 할 수 있는 태안군 어촌 체험휴양마을로 방문객이 집중되어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태안군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증감현황을 체류 유형별로 살펴보면 3개년 모두 당일형 관광이 높게 나타났으나 2020년에 들어서는 숙박형 방문이 109.4%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을별로 살펴본 결과 태안별주부마을, 벚가리마을, 매화뚝마을, 노을지는 갯마을 등 대부분의 마을에서 숙박체류가 코로나 이전보다 증가한 것을 알수 있었다. 언택트 시대 체류형 농촌관광지로서 태안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이 경쟁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3-59] 태안군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증감 현황

구분			2018년 (명)	2019년 (명)	2020년 (명)	2019년 대비 2020년 방문객 증감율(%)
총합계			51,751	46,479	32,201	-30.7
방문목적별 방문인원 (명)	관광	총합	1,603	1,406	5,366	281.7
		내국인	1,546	1,406	5,366	281.7
		외국인	57	0	0	-
	휴양	총합	703	625	979	56.6
		내국인	698	625	879	40.6
		외국인	5	0	100	-
	체험	총합	18,247	16,343	4,235	-74.1
		내국인	17,938	16,022	4,235	-73.6
		외국인	309	321	0	-100.0
	교육	총합	1,981	2,482	545	-78.0
		내국인	1,981	2,482	545	-78.0
		외국인	0	0	0	-
	연수	총합	463	603	943	56.4
		내국인	463	603	943	56.4
		외국인	0	0	0	-
	1사 1촌	총합	1,326	721	315	-56.3
		내국인	1,326	721	315	-56.3
		외국인	0	0	0	-
	단순 방문	총합	22,918	19,615	16,141	-17.7
		내국인	22,876	19,603	16,141	-17.7
		외국인	42	12	0	-100.0
	농특 산물 구매	총합	4,510	4,574	3,608	-21.1
		내국인	4,510	4,574	3,548	-22.4
		외국인	0	0	60	-
체류유형별 방문인원 (명)	당일형	총합	48,053	43,116	25,160	-41.6
		내국인	47,660	42,843	25,160	-41.3
		외국인	393	273	0	-100.0
	숙박형	총합	3,698	3,363	7,041	109.4
		내국인	3,678	3,303	6,881	108.3
		외국인	20	60	160	166.7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2) 소결

본 연구에서는 충남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별 주요 운영 현황 및 최근 3개년 간 방문객 증감 현황을 분석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마을별 특색있는 체험프로그램 발굴 필요

충남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139개 마을의 체험프로그램 운영 유형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마을 주요 자원과 지리적 환경을 활용한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 유형은 크게 세가지로 농촌마을의 전통 문화 체험, 농촌마을의 지리적 환경 및 입지를 활용한 체험, 농촌마을 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활용한 체험으로 등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먼저, 충청남도에서 마을 전통문화 체험 등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마을 사례는 아산시 외암민속마을을 들 수 있다. 외암민속마을은 중요 민속자료 제 236호로 약 500여년 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충청 고유의 고택과 전통민속 마을의 경관, 초가 돌담, 정원등이 보존되어 한해 약 40만명이 넘는 내외국인 관광객 및 방문객이 찾는 충남의 대표 농촌마을이다. 외암민속마을에서는 다양한 마을 전통행사를 비롯해 전통민속놀이, 계절별 농경문화체험, 전통먹거리 체험, 전통공예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농가민박, 단체 세미나, 교육, 워크샵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학생단체 관광객 및 대도시지역 도시민들의 방문비율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외암마을 사례처럼 장기적으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마을의 전통생활양식과 특색있는 경관을 보존·계승하고 이와 연계한 경쟁력 있는 체험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야 한다.

두 번째로, 마을의 지리적 환경을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농촌체험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마을 사례는 청양알프스 마을을 들 수 있다. 겨울철 추운날씨와 마을입지 등에 의해 겨울내내 볼수있는 얼음 등을 활용하여 이색적인 볼거리와 체계적인 축제 운영으로 연간 약 40여만명의 방문객이 찾는 대표 농촌관광지이다. 청양알프스마을과 같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특색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들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었다.

특히 방문객 수요에 걸맞는 다양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재방문객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축제, 프로그램 개발에 그치지 않고 SNS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농촌마을 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농촌체험을 이끌어 내는 대표적인 마을사례는 당진시 백석올미마을을 들 수 있다. 백석올미마을은 2012년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 마을의 왕매실 나무에서 재배되는 매실과 당진의 주요 특산물인 해나루 쌀을 활용하여 매실한과, 매실장아찌, 매실고추장, 매실청, 매실 액기스등을 생산하고 있다. 백석올미마을은 6차산업화 성공모델로서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마을 체험으로 매실한과 체험, 올미약과 체험, 계절별 체험등을 진행하여 연간 3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고 있는 대표 농촌관광지이다. 백석올미마을과 같이 마을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활성화 되고 있는 마을들의 특징은 지역 소득 증대를 위한 6차산업화 농촌 소득 모델을 갖추고 있다. 이런 마을들은 마을 소득을 위해 농촌체험 운영에 그치지 않고 이를 산업화 하여 지역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처럼 충남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활성화가 되고 있는 마을들은 각 마을의 전통과 지리적여건, 농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특색있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수익사업,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마을 홍보 및 정보공유를 홈페이지 구축 필요

충남도내 시군별 농촌체험휴양마을 홈페이지 구축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39개 마을중 48.9%인 68개 마을만이 홈페이지가 구축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마을의 절반이 안되는 마을이 홈페이지 구축이 되어있는 것으로 최근 인터넷 및 모바일기반의 App을 활용한 사전예약을 선호하고 있는 소비자 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3-60] 충남 농촌체험휴양마을 홈페이지 구축현황

구분	단위	충남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마을	(개)	139	4	15	10	12	8	13	1	6	7	8	12	15	13	6	9
홈페이지 보유마을	(개소)	68	0	8	6	2	4	4	1	3	2	3	5	13	6	2	9
구축비율	(%)	48.9	0.0	53.3	60.0	16.7	50.0	30.8	100.0	50.0	28.6	37.5	41.7	86.7	46.2	33.3	100.0

시군별로 살펴보면 충남도내에서 농촌관광이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 태안, 청양, 보령, 공주 등의 농촌체험휴양마을들이 홈페이지 구축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시군 및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을별 개별홈페이지나 블로그, SNS 등을 구축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마을 소개 및 마을에서 체험 가능한 다양한 체험, 농특산물, 숙박, 주요 편의 기반 시설 등 마을 방문을 위한 다양한 정보공유 및 사전예약 시스템 구축 등에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충남도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마을별 특색있는 이미지를 구축하고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을 통해 마을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 각 시군의 농촌 마을별 다각화 된 홍보 채널을 통한 홍보 활동을 지속하여 방문객들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3) 위드 코로나 시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모색 필요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촌관광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5개 시군별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증감현황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부터 2019년의 방문객 방문목적 및 체류유형 양상과 코로나19가 발생 이후인 2020년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과 직전년도인 2019년간의 방문객 증감현황 분석결과 코로나19 발생이후 충남의 농촌관광객은 51.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 연 평균 160만여명을 유지하던 방문객수가 2020년에는 78만명으로 나타나 코로나19가 농촌관광 수요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알수 있었다.

시군별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방문객이 증가한 지자체는 보령시(21.3%), 당진시(5.9%) 단 두 지역으로 타지역의 경우 연간 방문객 수가 작게는 5%에서 많게는 7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시와 당진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수요가 증가한 이유는 수도권 및 대도시와 인접하여 도시민들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특히 방문목적 중 “농특산물 구매”를 위한 방문객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수 있었다.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방문객 감소폭이 낮은 지역은 금산군(-5.3%)으로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객 및 1사1촌 방문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산군이 세종시, 대전광역시 등 인근 대도시와 인접하며 코로나19 이후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언택트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에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낮은 감소폭을 보였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충남의 15개 시군 중 방문객 감소폭이 큰 지자체는 서산시(-79.4%), 천안시(-77.4%), 예산군(-75.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산시의 경우 연수, 농특산물 구매, 관광, 체험 등의 순으로 전반적인 부분에서 방문객 감소폭이 심화되었으며, 천안시의 경우도 체험, 단순방문, 연수, 휴양 등의 순으로 전 분야에서 방문객 감소가 나타난 것을 알수 있었다. 예산군 경우도 단순방문, 교육, 관광, 휴양 등의 순으로 대부분의 분야에서 감소폭이 두드러졌으며, 세 지자체 모두 당일형 관광객이 급감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61] 충남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증감 현황(2018~2020)

시군	2018년	2019년	2020년	2019년 코로나19 이후 방문객 증감율 (%)
충청남도	1,768,571	1,599,292	780,807	-51.2
천안시	5,398	6,930	1,567	-77.4
공주시	47,227	48,542	25,198	-48.1
보령시	23,034	17,824	21,623	21.3
아산시	512,460	430,483	132,104	-69.3
서산시	54,543	54,301	11,201	-79.4
논산시	70,003	63,641	38,808	-39.0
계룡시	5,147	7,881	2,350	-70.2
당진시	50,848	47,169	49,935	5.9
금산군	109,297	89,213	84,456	-5.3
부여군	57,107	32,402	12,077	-62.7
서천군	127,630	86,646	32,558	-62.4
청양군	479,162	465,248	222,457	-52.2
홍성군	168,218	173,155	107,106	-38.1
예산군	6,746	29,378	7,166	-75.6
태안군	51,751	46,479	32,201	-30.7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방문목적 변화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2019년에 “단순방문”을 위한 방문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지자체는 총 8개 시·군으로 천안시, 보령시, 서산시, 계룡시, 금산군, 청양군, 홍성군, 태안군이 이에 해당하였다. 다음으로 “체험”의 경우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등 4개 지자체가 높게 나타났으며, “관광”은 아산시, “농특산물 구매”는 당진시, “휴양”은 예산군 등 각 1개 지자체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에 “단순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객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총 8개 지자체로 천안시, 서산시, 계룡시,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태안군 등으로 나타났다. “체험”의 경우 공주시, 부여군 2개 지자체로 줄었으며, “관광”은 아산시, 예산군, “농특산물 구매”는 보령시, 당진시, “휴양”은 논산시로 변화가 나타났다. 코로나 이후에 방문목적별 방문객 비중에 변화가 생긴 시군은 보령시, 논산시, 서천군, 예산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유형별 방문객 변화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시·군에서 숙박형 방문객수보다 당일형 방문객수가 급감하는 현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와 다른 경향을 보인 시군은 보령시와 태안군으로 타지자체들이 당일 및 숙박형에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난 것과 달리 숙박형 방문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령시와 태안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방문목적 변화를 살펴보면 두 시·군 모두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객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령시와 태안군은 충청남도의 대표 어촌관광지역으로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관광객들이 바다와 인접한 농어촌마을에서 휴양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졌음을 유추 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살펴보았을 때,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대부분의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체험”을 목적으로 마을을 찾는 방문객수가 급감하고 이에 반해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객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체험방문객의 급감은 15개 시군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모두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객의 증가가 나타난 시군은 보령시, 당진시, 금산군, 청양군, 홍성군, 태안군 총 6개 시군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라 단체 및 대면중심의 체험관광에서 개인 및 비대면 중심의 휴양 관광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교육, 연수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방문객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단체 방문객 중심의 대면 활동이 위축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시·군별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의 방문목적 및 체류유형을 분석한 결과 위드코로나 시대 농촌관광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농촌관광이 기존 체험중심의 단체 관광에서 휴양 중심의 체류형 개별 관광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1사1촌에 새로운 교류형태를 도입하여 자매결연 기업 임직원의 가족단위 개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더불어 도시민과의 농특산물 구매 활성화를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 및 소득증대를 위한 전략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충남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자 의견 분석

1) 의견 조사 개요

충남의 농촌관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농촌관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정책과제 도출을 통해 충남 농촌관광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존의 농촌관광 연구 및 농촌관광 활성화 정책에서는 농촌관광의 수요자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등 급격한 국내외 관광 환경변화와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래에 따라 농촌지역의 관광여건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촌관광 사업 효율성 증대와 시장수요에 맞는 양질의 농촌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해 6개 농촌관광 사업유형(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교육농장, 농가맛집, 관광농원, 농촌민박,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대상으로 2년마다 농촌관광 사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8년 농촌관광 사업자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조사 시점이 코로나 이전이며, 사업유형별로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임의 할당으로 표본 추출을 통해 조사돼 현지점에서 충남의 농촌관광 실태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6개 농촌관광 사업유형 중 농촌관광 공급에 가장 큰 역할을 하며 사업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5개 시군의 139개 마을 중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3개 마을을 제외 한 136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실태조사의 모집단은 충남지역 농촌체험휴양마을별 대표자 1인이며, 대표자란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주요 실태를 파악하고 각 설문문항에 응답할 수 있는 대표, 추진위원장, 사무장, 위원장, 매니저, 관리자, 이사, 총무, 운영이사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태조사 기간은 2021년 11월 3일부터 11월 19까지 16일간 실시되었으며, 표본 크기는 136명으로 전문 조사원의 일대일 면접조사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3-62] 충남 농촌체험휴양마을 실태조사 분석의 틀

구분	조사 개요
모집단	충남지역 농촌체험휴양마을 대표자
표본크기	농촌체험휴양마을 대표자 136명
조사 방법	전문조사원의 지역주민 일대일 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조사 기간	2021년 11월 3일 ~ 11월 19일 (16일간)

충남 농촌체험휴양마을 실태조사 분석의 틀은 다음과 같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일반 현황, 대표자들의 농촌관광에 대한 인식,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여건 및 실태, 농촌 체험휴양마을 방문수요 및 홍보 등 크게 4개 분야로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3-63] 충남 농촌체험휴양마을 실태조사 주요 내용

구분	세부 내용
① 농촌체험휴양마을 일반현황	체험마을명, 응답자 직책, 응답자 성별, 응답자 연령, 사업체 조직형태, 연간 매출액, 연간 방문객수
② 농촌관광에 대한 인식	농촌관광 활성화 정도, 농촌관광 활성화 이유, 농촌관광 비활성화 이유, 향후 국내 농촌관광 활성화에 대한 인식, 향후 농촌관광 활성화 이유, 향후 농촌관광 비활성화 이유, 향후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전략,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중요도
③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여건 및 실태	농촌체험휴양마을 주된 목적 및 동기, 주로 운영하고 있는 농촌체험, 농촌관광을 위해 직접운영하고 있는 시설, 판매하는 품목,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에 대한 만족도, 귀농·귀촌자 증가 현황, 운영상 애로사항,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 개선이 필요한 영역,
④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수요 및 홍보	주요 방문객, 방문객 거주지, 정기적 교류 단체, 홍보활동 비중, 단체 프로모션 유무, 사전예약서비스 유무, 사전예약 서비스 방식, 가능한 결제방법

2) 의견분석 결과

(1) 실태조사 응답자 현황

충남 농촌체험휴양마을 실태조사는 136개 마을 대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성별로는 남성이 66.2%, 여성이 33.8%로 조사되었으며, 응답자의 연령은 60대가 47.8%, 50대가 30.1%, 40대가 14.0%의 순으로 나타났다.

136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사업체 유형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이 43.2%,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6.5%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가 48.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4]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90	66.2
	여성	46	33.8
합계		136	100.0
연령	30대	8	5.9
	40대	19	14.0
	50대	41	30.1
	60대	65	47.8
	70대	3	2.2
합계		136	100.0
사업체 유형	개인사업자	3	1.9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67	43.2
	사회적 경제조직 (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기업)	10	6.5
	기타	75	48.4
합계		136	100.0

(2) 농촌관광에 대한 인식

충남의 136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국내 농촌관광 활성화에 대한 인식을 물어본 결과 ‘별로 활성화되지 않음’이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이 28.7%, 상당히 활성화됨이 26.5%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혀 활성화되지 않음’ 4.4%로 나타나 전체 마을의 약 44.8%가 농촌관광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5] 현재 국내 농촌활성화 정도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활성화됨	0	0.0
상당히 활성화됨	36	26.5
보통	39	28.7
별로 활성화되지 않음	55	40.4
전혀 활성화되지 않음	6	4.4
합계	136	100.0

농촌관광이 활성화되었다고 응답한 26.5%(36명)의 마을 대표자에게 농촌관광이 활성화되었다고 응답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농촌관광 수요(관광객) 증대’에 전체 마을의 83.3%가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농촌관광에 대한 주민인식 변화 69.4%, 농촌관광 사업체(마을 등) 증가 61.1%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66] 농촌관광이 활성화 되었다고 보는 이유(복수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농촌지역에 활력 증대	10	27.8
농촌관광 수요(관광객) 증대	30	83.3
농촌관광 사업체(마을 등) 증가	22	61.1
농촌지역 농외소득 증대	10	27.8
농촌관광에 대한 주민인식 변화	25	69.4
농촌관광에 대한 정책적 변화	2	5.6
주민간 소통 증대	0	0.0
전체 응답자(명)	36	100.0

또한 농촌관광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44.8%(61명)의 마을 대표자에게 농촌 관광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등 대외적 환경 변화’에 전체마을의 86.9%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코로나19 확산이 농촌관광 침체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관광이 활성화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로는 ‘농촌지역 방문객 감소’ 52.5%,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침체’ 31.1%, ‘주민들의 저조한 참여율’ 26.2%, ‘농외소득 효과 미미’ 24.6%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표 3-67] 농촌관광이 활성화 되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복수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침체	19	31.1
농촌지역 방문객 감소	32	52.5
농촌관광 사업체(사업자) 감소	9	14.8
농외소득 효과 미미	15	24.6
주민들의 저조한 참여율	16	26.2
코로나19 등 대외적 환경 변화	53	86.9
주민 간 갈등 증대	1	1.6
특색 있는 체험부족	1	1.6
전체 응답자(명)	61	100.0

농촌체험휴양마을 대표자들에게 향후 국내 농촌관광 활성화 전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상당히 활성화될 것임’이 62.5%(85명), ‘보통’이 25.7%(35명)의 순으로 과반 이상의 마을이 앞으로 국내 농촌관광이 활성화될 것이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8] 향후 국내 농촌관광 활성화 전망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활성화될 것임	6	4.4
상당히 활성화될 것임	85	62.5
보통	35	25.7
별로 활성화될 것 같지 않음	10	7.4
전혀 활성화될 것 같지 않음	0	0.0
합계	136	100.0

향후 농촌관광 활성화 전망에 대해 ‘활성화될 것임’ 으로 응답한 이유로는 전체 응답자(91명)의 63.7%가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56.0%의 마을이 ‘농촌관광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 투자’, 53.8%의 마을이 ‘여행여가트렌드의 변화’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3-69] 향후 농촌관광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는 이유(복수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농촌관광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 투자	51	56.0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58	63.7
여행여가트렌드의 변화	49	53.8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	19	20.9
농촌관광 운영사업체(마을)의 노력	41	45.1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12	13.2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12	13.2
전체 응답자(명)	91	100.0

또한 향후 농촌관광이 활성화 전망에 대해 ‘활성화될 것 같지 않음’으로 응답한 이유로는 전체 응답자(10명)의 전체인 100.0%가 ‘코로나19 등 대외적 환경 변화’에 응답하였으며, 70.0%가 ‘특색 있는 농촌체험거리 부재’, 40.0%가 ‘마을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 심화’와 ‘주민 간의 갈등 및 참여율 저조’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3-70] 향후 농촌관광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복수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농촌에 즐길만한 인프라 부족	1	10.0
특색 있는 농촌체험거리 부재	7	70.0
코로나19 등 대외적 환경 변화	10	100.0
마을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 심화	4	40.0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3	30.0
주민간의 갈등 및 참여율 저조	4	40.0
제도적 규제	0	0.0
전체 응답자(명)	10	100.0

농촌체험휴양마을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략을 1~3순위로 선택하게 한 결과 1순위와 2순위 모두 ‘위드코로나 농촌관광전략 수립’이 가장 높은 응답률로 나타나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농촌관광 전략 수립에 대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3순위에서는 ‘체류형 농촌관광 여건 조성’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위 종합에서는 ‘위드코로나 농촌관광전략 수립’이 2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체류형 농촌관광 여건 조성’ 19.6%, ‘특색 있는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18.6%, ‘농촌 관광의 융복합 산업화’가 14.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1] 향후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전략(1~3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종합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농촌 관광의 융복합 산업화	18	13.2	28	20.6	13	9.6	59	14.5
위드코로나 농촌관광전략 수립	37	27.2	28	20.6	25	18.4	90	22.1
특색 있는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34	25.0	22	16.2	20	14.7	76	18.6
귀농귀촌 인구의 전략적 유치	7	5.1	26	19.1	17	12.5	50	12.3
체류형 농촌관광 여건 조성	17	12.5	21	15.4	42	30.9	80	19.6
새로운 도농교류 전략 마련	15	11.0	5	3.7	8	5.9	28	6.9
농촌관광과 첨단기술 접목	8	5.9	6	4.4	11	8.1	25	6.1
합계	136	100.0	136	100.0	136	100.0	408	100.0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개발 중요도를 1~3순위별 조사한 결과 1순위에서는 ‘다양한 농촌체험 활동 개발’이 28.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2순위에서는 ‘농촌 숙박체험 개발’이 2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순위에서는 ‘농촌 숙박 체험 개발’이 14.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순위 종합에서는 ‘다양한 농촌체험 활동 개발’이 18.1%, ‘농촌 숙박 체험 개발’이 16.9%, ‘특색 있는 농촌 축제 개발’이 14.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2]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요 개발분야(1~3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종합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다양한 농촌체험 활동	39	28.7	25	18.4	10	7.4	74	18.1
특색 있는 농촌 축제	24	17.6	19	14.0	15	11.0	58	14.2
자매결연 및 도농교류	6	4.4	5	3.7	12	8.8	23	5.6
농촌 숙박 체험	20	14.7	29	21.3	20	14.7	69	16.9
농촌지역 캠핑	16	11.8	12	8.8	17	12.5	45	11.0
농촌 먹거리 체험	10	7.4	9	6.6	19	14.0	38	9.3
농특산물 거래	3	2.2	15	11.0	6	4.4	24	5.9
농촌지역주민과 교류	6	4.4	2	1.5	0	0.0	8	2.0
지역 역사문화자원 활용 체험	4	2.9	2	1.5	7	5.1	13	3.2
전통예절교육	0	0.0	3	2.2	1	0.7	4	1.0
전통놀이 체험	1	0.7	4	2.9	2	1.5	7	1.7
농촌 둘레길 걷기	1	0.7	3	2.2	6	4.4	10	2.5
첨단산업과 연계한 농촌관광	0	0.0	1	0.7	1	0.7	2	0.5
농촌 힐링치유 체험	6	4.4	7	5.1	20	14.7	33	8.1
합계	136	100.0	136	100.0	136	100.0	408	100.0

(3)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여건 및 실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운영여건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앞서 농촌체험휴양마을별 마을 사업을 시작하게 된 주목적 및 동기를 조사한 결과 ‘농업 외 부수입 확보’가 4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이 16.9%, 국민여가활동에 기여가 11.8%로 조사되었다.

[표 3-73]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하게 된 주된 목적/동기(계기)

구분	빈도(명)	비율(%)
농업대체 주수익 확보	14	10.3
농업 외 부수입 확보	65	47.8
행정 정책 및 권유	9	6.6
농업·농촌의 공익적가치 보전	23	16.9
국민여가활동에 기여	16	11.8
농식품 판로개척	8	5.9
주변의 권유	1	0.7
합계	136	100.0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는 농촌 체험을 복수 응답하게 한 결과 전체 마을 중 ‘자연경관 활용을 활용한 체험’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은 82.4%, ‘농업 체험’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은 81.6%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농촌생활 체험’ 75.7%, ‘숙박 체험’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은 47.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4]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는 농촌 체험(복수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자연경관 활용	112	82.4	공예체험	1	0.7
역사문화유산 체험	34	25.0	갯벌체험	1	0.7
농업 체험	111	81.6	도자기만들기	1	0.7
농촌생활 체험	103	75.7	수영장	1	0.7
숙박 체험	65	47.8	낚시체험	1	0.7
전통 예절 교육	11	8.1	찜질방	1	0.7
전통놀이 체험	36	26.5	전체 응답자(명)	136	100.0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농촌관광을 위해 직접 운영 중인 시설을 파악하기 위해 136개 마을별 운영시설을 모두 응답하게 한 결과 공공화장실과 휴게시설(정자, 벤치)의 경우 전체 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책로(94.9%), 마을숲(90.4%), 판매시설(92.6%)의 경우 대다수의 마을(90% 이상)이 보유,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 학습체험전시관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은 72.8%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반이상의 마을이 숙박시설(67.6%), 취사시설(55.1%), 운동·스포츠 시설(52.9%)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캠핑 등 아웃도어 숙박 수요나 카페, 식음 시설 등 여가문화 트렌드 변화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운영 중인 마을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5]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농촌관광을 위해 직접 운영 중인 시설(복수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숙박시설	92	67.6	판매시설	126	92.6
식당 또는 음식점	62	45.6	공공화장실	136	100.0
카페	20	14.7	휴게시설(정자, 벤치)	136	100.0
취사시설	75	55.1	마을숲	123	90.4
실내 학습체험전시관	99	72.8	산책로	129	94.9
운동·스포츠 시설	72	52.9	공연장	11	8.1
캠핑장	27	19.9	교통(셔틀버스 등)	5	3.7
가공 및 제조시설	43	31.6	찜질방	1	0.7

판매시설이 있는 대부분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소득을 위해 판매하고 있는 것은 대다수가 ‘농특산물(90.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공식품’ 47.1%, ‘식사 등 먹거리’ 32.4%, ‘공예품 등 기념품’ 14.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6]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판매하는 품목(복수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농특산물	113	90.4
가공식품	64	47.1
공예품 등 기념품	20	14.7
음료	17	12.5
식사 등 먹거리	44	32.4
기타	1	0.7
없음	10	3.7
전체 응답자(명)	136	100.0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가 41.2%(56명), ‘상당히 만족한다’ 28.7%(39명),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25.0%(34명) 순으로 ‘보통이다’ 이상이 72.8%(99명)로 조사되었다.

[표 3-77] 현재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만족도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만족한다	4	2.9
상당히 만족한다	39	28.7
보통이다	56	41.2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34	25.0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3	2.2
합계	136	100.0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상태에 대해서는 ‘별로 잘 되지 않고 있다’가 41.2%(56명)로 가장 많은 마을이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 36.0%(49명)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운영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에 응답한 마을은 16.9%(23명), ‘매우 잘 되고 있다’라고 응답한 마을은 0.7%(1명)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응답하는 전체마을의 2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8] 현재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정도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잘 되고 있다	1	0.7
상당히 잘 되고 있다	23	16.9
보통이다	49	36.0
별로 잘 되지 않고 있다	56	41.2
전혀 잘 되지 않고 있다	7	5.1
합계	136	100.0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 이후 최근 5년간 마을에 증가한 귀농·귀촌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1~2명’증가가 44.1%(60명), ‘3~5명’이 24.3%(33명) 순으로 나타났다. 마을 내 귀농·귀촌자가 ‘증가하지 않음’에 응답한 마을은 전체의 12.5%(1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을 내 귀농·귀촌자가 11명 이상 증가한 마을은 전체 마을 중 9.6%(13명)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통해 마을 내 귀농·귀촌자가 상당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79]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이후 최근 5년간 마을 귀농·귀촌자 증가정도

구분	빈도(명)	비율(%)
1~2명	60	44.1
3~5명	33	24.3
6~10명	13	9.6
11~20명	11	8.1
21명 이상	2	1.5
증가하지 않음	17	12.5
합계	136	100.0

다음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면서 각 마을이 느끼고 있는 운영상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등 대외적 환경 변화’에 75.7%(103명)가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 코로나19로 인해 충남도 내 농촌체험휴양마을들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낮은 수익’ 46.3%(63명), ‘유지보수’ 32.4%(44명)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코로나19 등 대외적 환경 변화로 방문객이 줄어 낮은 운영 수익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80]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상 애로사항(복수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농촌 관광자원 부족	19	14.0
주민 간 갈등	17	12.5
인력확보	36	26.5
행정·회계 등 서류관련 업무	36	26.5
유지보수	44	32.4
낮은 수익	63	46.3
비수기가 있는 점	32	23.5
코로나19 등 대외적 환경 변화	103	75.7
제도적 규제	13	9.6
홍보	10	7.4
없음	0	0.0
전체 응답자(명)	136	100.0

농촌체험휴양마을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을 1~3순위로 선택하게 한 결과 1순위와 2순위 모두 ‘농촌체험 시설 및 농촌관광 인프라 확충’이 가장 높은 응답률로 나타났으며, 3순위에서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필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순위 종합에서는 ‘농촌체험 시설 및 농촌관광 인프라 확충’이 2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위드 코로나를 위한 소규모 숙박시설 확충’ 22.1%,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17.6%, ‘관광객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개발’이 15.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81]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1~3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종합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농촌체험 시설 및 농촌관광 인프라 확충	40	29.4	40	29.4	14	10.3	94	23.0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8	5.9	27	19.9	37	27.2	72	17.6
위드 코로나를 위한 소규모 숙박시설 확충	38	27.9	36	26.5	16	11.8	90	22.1
관광객 맞춤형 체험프로그램 개발	29	21.3	11	8.1	24	17.6	64	15.7
귀농귀촌 인구 유입	4	2.9	12	8.8	10	7.4	26	6.4
농촌관광 전문인력 양성	12	8.8	5	3.7	15	11.0	32	7.8
주민 간 갈등관리 프로그램 운영	1	0.7	3	2.2	5	3.7	9	2.2
행정·회계 처리 등을 위한 역량강화	3	2.2			8	5.9	11	2.7
홍보, 예약관리를 위한 통합 어플 개발	1	0.7	2	1.5	7	5.1	10	2.5
합계	136	100.0	136	100.0	136	100.0	408	100.0

충남도 15개 시군 136개 농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농촌관광자원, 농촌관광 수용태세, 농촌관광서비스, 농촌관광 인프라 등 크게 4개 분야별 우수성 및 개선 필요도를 매우 개선이 필요함에서 매우 우수함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마을에서 농촌관광자원 중 ‘볼거리(4.45점)’, ‘즐거거리(4.40점)’가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먹거리 자원(4.05점)은 두 자원보다는 평점이 낮게 나타났으나 우수함 이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관광수용태세 분야에서는 ‘서비스 친절성(4.32점)’, ‘위생 및 쾌적성(4.30점)’이 ‘시설 및 운영의 안전성(4.21점)’이나 ‘교통의 접근성 및 편리성(4.07점)’보다는 우수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관광 서비스 분야에서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가격(4.30)’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내자료(3.80점)’,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3.85점)’의 경우 타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하지는 않지만 보통 정도의 개선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관광 인프라 분야에서는 ‘주차시설(4.10점)’이 우수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보통~우수함 사이의 평점을 보여 어느 정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동 시설(2.99점)’의 경우 개선이 필요함~보통 사이의 평점으로 최근 트렌드 변화에 따라 상당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가공시설(3.17점)’, ‘실내 체험시설(3.18점)’, 숙박시설(3.25점)의 경우 타 분야보다 평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나 개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

[표 3-82] 분야별 우수 및 개선 필요정도

구분(% , 점)		매우 개선이 필요함	개선이 필요함	보통	우수함	매우 우수함	평균 (점)
농촌 관광 자원	볼거리(주변 자연경관 등)	-	-	-	55.1	44.9	4.45
	먹거리(식사 및 음료 등)	-	4.4	16.2	49.3	30.1	4.05
	즐길거리(농촌 체험 프로그램 등)	-	-	5.9	47.8	46.3	4.40
농촌 관광 수용 태세	교통의 접근성 및 편리성	-	0.7	16.9	57.4	25.0	4.07
	서비스 친절성	-	0.7	2.2	61.8	35.3	4.32
	시설 및 운영의 안전성	-	2.2	6.6	59.6	31.6	4.21
	위생 및 쾌적성	-	1.5	2.2	61.0	35.3	4.30
농촌 관광 서비스	합리적이고 적절한 가격	-	0.7	5.9	55.9	37.5	4.30
	안내자료(안내정보 및 홍보)	-	11.0	18.4	50.0	20.6	3.80
	사전 예약 서비스	-	1.5	11.0	66.9	20.6	4.07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	0.7	3.7	21.3	58.8	15.4	3.85
농촌 관광 인프라	숙박 시설(숙소, 캠핑장 등)	1.5	30.9	22.8	30.9	14.0	3.25
	실내 체험시설(학습·전시관 등)	2.2	27.9	27.9	33.8	8.1	3.18
	운동 시설(스포츠, 레포츠 등)	1.5	31.6	40.4	19.9	6.6	2.99
	가공 시설(농특산물 가공 등)	-	18.4	50.0	27.9	3.7	3.17
	판매 시설(농특산물 판매장 등)	-	13.2	33.1	41.9	11.8	3.52
	편의 시설(공공 화장실 등)	-	11.8	17.6	55.1	15.4	3.74
	휴게 시설(정자, 벤치 등)	-	10.3	16.2	47.8	25.7	3.89
	주차 시설(주차장, 다목적광장 등)	-	4.4	14.0	48.5	33.1	4.10

충남의 136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간 매출액 및 방문객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방문객 수의 경우 2018년 21,581명에서 2019년 13,725명으로 약 7,856명이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10,094명으로 2018년에 비해 절반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방문객 수를 살펴보면 2018년과 2019년 모두 '1,001~3,000명' 규모의 방문객을 받는 마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에 들어 500명 이하의 방문객을 받은 마을이 전체의 52.2%에 달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83] 충남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방문객수 및 방문객수 평균(3개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500명 이하	15	11.0	21	15.4	71	52.2
501~1000명	18	13.2	15	11.0	19	14.0
1,001~3,000명	36	26.5	42	30.9	24	17.6
3,001~5,000명	27	19.9	18	13.2	10	7.4
5,001명 이상	34	25.0	30	22.1	5	3.7
운영안함/사업안함	3	2.2	6	4.4	7	5.1
기타	3	2.2	4	3.0	0	0.0
합계	136	100.0	136	100.0	136	100.0
평균(명)	21,581		13,725		10,093	

2018년 충남도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매출액 평균은 약 7,52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7,582만원으로 약간 증가하였다가 2020년 초 코로나 19 발생으로 인해 매출액이 3,523만원으로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매출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의 경우 '6001만원 이상' 연간 매출을 올리는 마을이 전체 마을의 3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9년에도 2018년과 비슷한 양상을 띠었으나 2020년에는 연간 '500만원 이하'의 매출을 보인 마을이 전체마을의 42.6%에 달해 전체적인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매출액이 급감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84] 충남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매출액 및 매출액 평균(3개년)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빈도 (명)	비율 (%)
500만원 이하	12	8.8	12	8.8	58	42.6
501~1000만원	17	12.5	17	12.5	23	16.9
1001~3000만원	33	24.3	33	24.3	25	18.4
3001~6000만원	23	16.9	23	16.9	10	7.4
6001만원 이상	45	33.1	45	33.1	11	8.1
운영안함/사업안함	3	2.2	3	2.2	7	5.1
기타	3	2.1	3	2.1	2	1.4
합계	136	100.0	136	100.0	136	100.0
평균(만원)	7,528		7,581		3,523	

(4)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 수요 및 홍보

충남 15개 시군의 136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주요 방문객 유형을 1~2순위로 응답하게 한 결과 1순위는 ‘초·중·고등학교학생(단체)’가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에서는 ‘가족/친척’이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합순위에서는 ‘가족/친척’이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단체/모임(동호회, 종교 단체 등)’이 27.6%, ‘초·중·고등학교학생(단체)’가 26.8%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을 통해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주요 방문객은 ‘초·중·고등학교학생(단체)’나 ‘단체/모임(동호회, 종교 단체 등)’, ‘가족/친척’인 것을 알 수 있으며,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 시 학생 단체나 가족단체 등을 타겟으로 수립해야 한다.

[표 3-85] 농촌체험휴양마을 주요 방문객(1~2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종합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가족/친척	37	27.2	42	30.9	79	29.0
친구/연인	1	0.7	9	6.6	10	3.7
유치원생(단체)	11	8.1	13	9.6	24	8.8
초·중·고등학교학생(단체)	45	33.1	28	20.6	73	26.8
대학교/직장 동료	1	0.7	10	7.4	11	4.0
단체/모임(동호회, 종교 단체 등)	41	30.1	34	25.0	75	27.6
합계	136	100.0	136	100.0	272	100.0

충남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주요 방문객의 거주지를 1~2순위로 살펴보면 1순위로는 ‘충남’ 지역에서 방문하는 방문객이 42.6%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순위로는 ‘경기’ 25.0%, ‘서울’ 2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순위를 살펴보면 ‘충남’이 2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서울’ 25.0%, ‘경기’ 20.6%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 ‘세종’의 방문객도 합산하면 약 22.8%로 상당한 방문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86] 농촌체험휴양마을 주요 방문객의 지역(1~2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종합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경기	22	16.2	34	25.0	56	20.6
강원	-	-	1	0.7	1	0.4
충북	-	-	1	0.7	1	0.4
충남	58	42.6	19	14.0	77	28.3
전북	1	0.7	5	3.7	6	2.2
제주	1	0.7	-	-	1	0.4
서울	36	26.5	32	23.5	68	25.0
대전	18	13.2	29	21.3	47	17.3
세종	-	-	15	11.0	15	5.5
합계	136	100.0	136	100.0	272	100.0

또한 충남의 농촌체험휴양마을 136개 마을을 대상으로 현재 정기적으로 교류 중인 단체를 조사한 결과 초·중고등학교와 교류 중인 마을이 58.8%, 회사 및 기업 48.5%, 타 마을 27.9%, 유치원 16.2%, 지역 대학 13.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87] 농촌체험휴양마을과 현재 정기적 교류중인 단체(복수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유치원	22	16.2
초·중고등학교	80	58.8
지역 대학	18	13.2
회사 및 기업	66	48.5
타 마을	38	27.9
교수 및 전문가	12	8.8
여행사	1	0.7
전체 응답자(명)	136	100.0

농촌체험휴양마을별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활동 비중을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오프라인 홍보가 67.6%, 온라인 홍보가 32.4%로 나타나 대부분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오프라인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홍보활동에 51% 이상의 비중을 두는 마을은 77.9%에 달하였으며, 온라인 홍보에 높은 비중을 두는 마을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8] 농촌체험휴양마을 온라인/오프라인 홍보활동 비중

구분	오프라인 홍보		온라인 홍보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10% 이하	0	0.0	23	16.9
11 ~ 20%	6	4.4	30	22.1
21 ~ 30%	4	2.9	29	21.3
31 ~ 40%	5	3.7	24	17.6
41 ~ 50%	15	11.0	15	11.0
51% 이상	106	77.9	15	11.0
합계	136	100.0	136	100.0
비중 평균(%)	67.6		32.4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 시 활용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살펴보면 ‘입소문’이 전체마을의 97.1%, ‘자체 홍보브로슈어’가 9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공공기관 홈페이지’ 73.5%, SNS 64.0%, ‘포털사이트 블로그, 카페 등’ 61.0%의 순으로 나타나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프라인 홍보 활동의 비중이 온라인 홍보활동보다 훨씬 높은 것을 보았을 때, 대부분 마을이 입소문이나 자체 홍보브로슈어 등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89]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 시 사용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복수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구분	빈도(명)	비율(%)
마을 자체 홈페이지	46	33.8	유튜브	66	48.5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	8	5.9	여행사	33	24.3
포털사이트 블로그, 카페 등	83	61.0	지역 관광 안내서적	75	55.1
공공기관(정부, 지자체)홈페이지	100	73.5	자체 홍보브로슈어 (전단지, 책자)	126	92.6
웰촌(www.welchon.com)	45	33.1	중앙/지방 일간지	27	19.9
지역 인터넷 신문/주간지	63	46.3	여행 관련 전문잡지	16	11.8
기타 홈페이지(여행사 등)	28	20.6	광고(TV, 라디오, 신문, 잡지, 지하철, 옥외광고판 등)	61	44.9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	12	8.8	입소문(방문객 추천 등)	132	97.1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87	64.0	전체 응답자(명)	136	100.0

충남 136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여행사 등을 통한 단체 프로모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단체 프로모션을 진행한 마을은 전체 마을의 35.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체 프로모션을 실행하지 않은 마을은 64.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문객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사전 예약 서비스 시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마을이 사전예약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예약 서비스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마을에서는 ‘전화 예약’(98.5%)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홈페이지(블로그, 카페 등)를 활용하는 마을은 전체 마을의 42.6%에 불과하였다.

[표 3-90] 사전예약 서비스 진행 방식(복수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홈페이지(블로그, 카페 등)	58	42.6
전화	134	98.5
모바일 앱	13	9.6
SNS	19	14.0
대행사(여행사)	41	30.1
대행사(마을사무장 등 마을관련자의 소개)	36	26.5
전체 응답자(명)	136	100.0

농촌체험휴양마을 내에서 체험활동이나 숙박비, 물품 구입 시 가능한 결제 방법으로 는 대부분 마을이 현금결제(99.3%)나 계좌이체(99.3%)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카드결제(89.0%)의 비중도 높은 편이었으나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마을이 전체 마을의 11.0%(15개 마을)에 달하여 결제 방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3-91] 가능한 결제방법(복수응답)

구분	빈도(명)	비율(%)
현금결제	135	99.3
카드결제	121	89.0
계좌이체	135	99.3
무통장입금(가상계좌)	110	80.9
모바일결제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QR코드 제로페이 등)	12	8.8
전체 응답자(명)	136	100.0

3) 소결

본 연구에서는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충남의 농촌관광 운영실태를 파악하고자 도내 농촌관광의 주요 공급 주체인 136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부문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여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농촌관광 활성화 전략마련 필요

먼저 농촌관광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현재 대부분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코로나 19등 대외적 환경변화와 농촌지역의 방문객 감소로 농촌관광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대다수의 마을이 농촌관광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농촌관광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통해 여행, 여가 트렌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농촌체험활동 및 축제 이벤트 개발을 통해 즐길거리를 확충하고 숙박체험 개발을 통해 관광객의 체류를 도모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각 농촌체험휴양마을별 특색 있는 농촌 체험활동 및 계절별 다양한 축제 이벤트를 개발하고, 관광객 체류 도모를 위해 숙박체험 개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2)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촌관광 인프라 구축과 운영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대부분의 마을이 농업외 부수입 확보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소득확보를 위한 숙박 시설(캠핑장 포함)이나 식음시설(음식점 또는 카페), 가공 및 제조시설 등을 구비하고 있는 마을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 19에 따른 국내외 환경변화와 여가여행 트렌드 변화에 따라 소규모 숙박시설, 캠핑 등 아웃도어 숙박, 한적한 여행지로 등의 방문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농촌관광 주 공급자인 농촌체험휴양마을에는 해당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농촌관광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마을이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운영은 잘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운영상 애로사항으로 코로나19등 대외적 환경 변화와 낮은 수익, 유지보수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충남의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개선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농촌체험 시설 및 농촌관광 인프라 확충, 위드코로나를 위한 소규모 숙박시설 확충,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 등 정책적 환경 변화에 따라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를 증대를 통한 운영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는 시대적 변화환경에 맞는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마을의 귀농귀촌 인력이나 농촌관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운영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3) 충남인근 대도시 방문객을 타겟으로 다양한 홍보전략 마련 필요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수요 및 홍보와 관련하여 충남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방문 유형은 주로 초·중·고등학교학생(단체)'나 '단체/모임(동호회, 종교 단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객의 주요 거주지는 충남, 서울, 경기, 대전, 세종 등 이동거리가 멀지 않은 수도권 및 주변 대도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충남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전략은 충남인근 대도시의 학생 단체 및 동호회 등 성인 단체를 타겟으로 수립해야 할것으로 보여지나, 코로나19등 으로 인해 단체 방문객은 물론 개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타겟별 홍보전략이 필요할것으로 보여진다.

본 실태조사를 통해 충남 농촌체험휴양마을이 홍보활동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비중은 오프라인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온라인 홍보활동 비중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4) 스마트 예약서비스 및 결제수단 확충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편의성 향상 필요

모든 마을에서 마을 방문을 위한 사전예약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대부분이 전화를 통한 예약이었으며, 최근 대부분 방문객이 이용을 희망하는 인터넷을 활용한 예약이나 모바일앱을 활용한 사전예약서비스가 가능한 마을은 절반에도 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특성상 운영인력의 연령대가 높고,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활용하여 예약자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전문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스마트 예약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 방문객의 결제 수단도 대체로 현금결제, 계좌이체 등 현금을 활용하는 결제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 모바일 결제 등 최근 방문객들이 결제 수단으로 선호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운영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통해 결제 수단 범위를 확대하여 이용객의 편의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제4장 충남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1. 농촌관광 추진 정책 방향

1) 포스트코로나 대비 수요 주도형 농촌관광으로 전환

충남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공급 주도에서 수요 주도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공급 주도에서 수요 주도로의 전환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농촌관광부문 역시 코로나 19 이후 산 좋고 물 맑은 곳으로 대형 전세버스를 함께 타고 오는 과거의 학생단체 중심의 관광을 넘어, 개인의 차별화된 목적이나 체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와 방법이 동원되는 이른바 개별관광객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농촌관광은 1980년대 정부정책에 의해 농촌마을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시작되어 태생적으로 공급주도형이다. 이는 다른 정부 정책에 의한 추진 사업들의 한계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규제에 의해 급변하는 관광소비자들의 수요변화나 관광 환경의 변화에 즉각적인 대응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체험프로그램이 계절에 따라 물놀이나 썰매타기, 캠핑 등이 추가되고 있을 뿐 대부분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프로그램이 농사체험이나 농촌음식체험 등에 집중되고 있어 마을마다 농촌관광의 내용이 큰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은 이러한 한계를 보여준다(김광선, 2016).

코로나19로 인한 단체관광의 회피, 소규모, 안전과 보건의 중요성 증대, 자연 속 힐링의 욕구 증대 등 변화하는 관광수요와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수요주도형 농촌관광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2) 농촌관광 프로그램 범위 확대와 다양화

변화하는 관광환경과 다양화되고 있는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요주도형 농촌관광으로 발전하기 위한 주요 전략은 기존 농촌이 가지고 있는 요소에 다양한 관광적 외부 요소의 결합을 통해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관광콘텐츠와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광객들이 원하는 관광상품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미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기존의 농산물 수확체험이나 농촌생활체험 프로그램 이외에 자연경관이나 생태 체험, 문화역사 체험, 문화예술공연 체험, 레저스포츠 체험, 의료·건강 체험 등과의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관광 체험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공간에 있어서도 마을과 주변 사찰 등의 시설 간 연계, 마을과 마을 간 연계 등 농촌관광 관련 추진단위의 확대 역시 중요한 정책으로 모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다양화되고 있는 농촌관광객들의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는 농촌관광 정책 및 담당 행정 실과의 변화 역시 요구되고 있다.

과거의 농촌관광정책의 대상은 주로 농촌관광을 추진하는 마을이었으며, 정부지원의 주요 내용은 체험관, 전시관, 학습관 등의 관광기반시설이나 마을환경 정비, 소득기반 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에 집중되어 왔으며, 주민 역량강화, 정보화, 사업 컨설팅과 같은 소프트웨어사업이나 관광자원 발굴 역시 정부의 농촌관광마을 지원에 포함되었지만 정부의 주된 지원은 인프라 구축에 있다(김광선, 2016).

그러나 농촌관광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농촌마을에 필요한 정책은 기존 하드웨어 지원 정책보다는 소프트웨어 지원 정책에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또한 농촌관광의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다른 분야의 전문가나 전문기업의 농촌관광 경영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관광을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에서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과 사업 측면에서의 경영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농촌관광의 추진 정책에 있어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촌관광을 담당하는 행정부서도 기존 농촌관련 부서에서 전담하는 형태에서 다른 관광과 경제와 관련된 부서와의 협업이 필요하며, 이러한 방안이 융복합 시대에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주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농촌관광 정책지원 방향의 전환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존의 정부지원정책은 주로 관광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있었다.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을 통해서도 농업전시관이나 학습관, 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영농체험시설 등 주로 관광·체험 활동을 위한 시설기반 구축이 정부 지원의 주요 내용이었으며, 지원 대상도 개별 농촌관광사업자였다(김광선, 2016).

농어촌체험·휴양마을과 같은 농촌관광마을 육성의 경우는 주민역량강화, 정보화, 사업 컨설팅과 같은 소프트웨어 지원도 정부의 지원사업 내용에 포함되었지만 여전히 관광기반시설 구축, 소득기반시설 구축, 마을환경 정비와 같은 하드웨어적 지원이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지원 대상 역시 마을 또는 마을조직이었다(김광선, 2016).

정체되어 있는 농촌관광의 활성화와 코로나 19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관광 정책지원 방향을 기존 하드웨어 지원 정책에서 소프트웨어 지원 방식과 네트워크 연계 지원 정책 등으로 전환 될 필요가 있다.

농촌관광의 지속적인 운영과 성과를 위해서는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다른 분야를 접목한 농촌관광 상품의 개발뿐만 아니라 경영과 관련된 전문가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기존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휴먼웨어 측면에서 주민의 역량강화나 정보화 학습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일정수준의 주민 역량을 성장하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농촌관광을 추진하는 사업체나 마을의 지속적인 성장과 소득증대를 위한 전문경영인으로 성장하는데에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농촌관광 마을에서는 전문기업, 전문경영인의 참여를 통해 농촌관광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모델은 기존 농촌관광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촌관광의 산업화로 성장하는 전략이 될 것이다.

또한 농촌관광의 활성화와 마을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숙박시설 등 관광 수익시설과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촌 관광상품 개발 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최근 관광활동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ICT 기술 지원 역시 농촌관광 협업 추진에 따라 필요한 새로운 관광기반 시설 유형이라 할 수 있다.

4) 개별 공급자 육성에서 네트워크 연계로 전환

농촌관광 사업을 위한 운영 주체 육성을 위해서 기존 공공의 지원 사업은 개별 사업 주체와 마을 단위 주민역량 강화 사업에 집중되어 왔다.

관광농원이나 농어촌민박이 그러하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경우도 사업자 지정을 통해 개별 사업자를 지원하는 상황이고 농가맛집 역시 개별 사업 주체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한다(김광선, 2016). 그러나 마을 단위 농촌관광 운영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 개별 사업 주체보다는 주변의 사업 주체들 간의 연계와 공통된 관광 기획을 통한 추진이 보다 중요하다는 게 전체적인 의견이다.

농촌관광의 지속적인 성장과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여기에는 지역주민, 지역단체 및 농어업 단체와 마을조직의 마을 내부 참가자와 농촌관광의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전문 조직단체, 전문 분야의 기업 등도 농촌관광의 기획과 추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다 보니 농촌관광의 활성화 추진 과정에서 농촌 내외의 주요 주체들 간 관심의 차이나 역량의 차이, 의견의 차이 등 많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개별 사업 주체들 간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고 공통의 농촌관광을 함께 기획·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개별 사업 주체의 육성 지원 외에도, 이들의 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김광선, 2016).

이를 위해 각 지역의 농촌관광자원과 개별 사업체들의 다양한 역량 등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고 지속적 성장인 가능한 농촌관광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중간 지원조직의 육성이 보다 중요하다.

또한 각 주체별 가지고 있는 자원을 연계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개별 단위가 가지고 있는 사업 추진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2. 농촌관광 활성화 전략 추진 과제

코로나19 이후 관광의 형태는 자연중심, 소규모, 힐링, 근교 지역 등의 특성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관광의 특성은 농촌관광이 가지고 있는 관광매력성과 매우 일치하는 것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농촌관광이 새로운 관광목적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산업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는 특정 기능의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다른 산업과 달리 주제가 있는 체험소재를 생산하고 이를 소비자들이 경험을 통해 구매한다는 점으로 관광산업은 제조업처럼 특정 기능을 지닌 재화를 생산하여 판매하지 않으며, 또한 일반 서비스업과 같이 특정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고 오히려 교육, 힐링, 의료, 유람, 스포츠, 문화·예술, 역사, 농업 등의 분야와 연계된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활동과 목적이 어우러져 관광 산업이 형성·발전되어 왔으며, 관광 소비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통해 각자에게 체화되는 체험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체험이 바로 관광의 목적이기도 하다(김광선, 2010).

그런데 이러한 활동과 이를 통한 체험은 일상을 떠나 다른 지역 방문을 매개로 하기에, 관광은 장소(place)의 소비이기도 하며, 관광의 소비 대상은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장소성(locality)이기도 하다(김광선, 2010). 농촌관광 역시 마찬가지이다. 농사체험이라는 활동은 어느 농촌에서나 경험할 수 있지만, 여기에 지역성이 더해지면 다른 농촌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별한 농사체험을 농촌관광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 제2장에서 지적하였듯이 농촌관광은 농촌성(rurality)을 체험하는 관광이지만 여기서 농촌성이란 지극히 문화적인 지역성을 의미한다 (Sharpley & Roberts, 2004). 지역성 또는 이로 인한 지역적 차별성은 특정 지역의 향토문화를 키워내는 토대이자 장소경쟁과 상품시장에서 한발 앞설 수 있는 경쟁력이다(김광선, 2010).

그렇다면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촌관광에서 이러한 지역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한 실천 전략으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이후 변화된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고려한 농촌관광상품 개발을 제안한다.

첫째, 개별관광객들을 위한 농촌체험프로그램의 개발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단체 학생 위주의 체험프로그램 구성에서 나홀로 또는 가족 단위 소그룹 여행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진행이 필요하다. 또한 음식의 제공에서도 기존 단체 관광객에게 제공

하는 방식에서 체험객이 직접 조리를 해서 먹는 방식 또는 개별 단위로 제공하는 방식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둘째, 개별 친환경 숙박시설 구축이다. 이는 체류형 여행과 연계하여 기존 단체 숙박 시설 위주의 농촌숙박시설을 개별단위 이격형 숙박시설 구성과 친환경 캠핑형 숙박 시설 조성 등을 제안한다. 또한 지역 내 체류형 관광을 위해 농촌지역 빈집을 활용한 개별 단위 소규모 관광객들이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방안도 장기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특히 빈집 활용 숙박시설은 농촌 지역의 농촌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청결과 방역을 위한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체류형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야간관광프로그램의 개발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 해안지역에서 이뤄지는 야간 수렵 등과 같은 농촌 지역 야간에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웰니스 농촌관광 시설의 조성이다. 안전하게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웰니스 관광이 코로나 이후 관심을 끌고 있어 농촌의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활용한 자연치유, 생태치유 등의 농촌 치유 상품 개발을 제안한다.

이미 많은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웰니스 농촌관광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 웰니스 관광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농촌체험 관광이야 말로 웰니스 관광의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어 농촌관광이 다시 한 번 주요 목적지로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또한 충남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여기서 농촌관광의 주 수요자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농촌관광 수요 및 선호 동향을 빠르게 캐치하여 수요에 대응한 관광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농촌관광 관련 관계자 및 수요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연계형 농촌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인프라 간의 상호 연계를 도모하고 농촌관광 파급효과를 넓혀나갈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관광 전문기업이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충남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제시를 위해 농촌관광 추진 정책 방향과 농촌관광 활성화 전략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농촌관광과 관련된 거시적 환경변화와 중앙정부의 정책과 제도 변화, 국내외 정책동향 및 국내외 선진사례 등을 검토하여 농촌관광 여건과 향후 수요 등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충남지역의 농촌관광 실태분석과 과제도출을 위해 충남 농촌관광여건 및 현황분석을 통해 인구변화, 법제도적 여건, 재정현황, 조직 구성현황, 사업 추진현황, 농촌 관광사업체 현황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충남 농촌관광의 새로운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해 농촌관광 사업체 중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및 운영자 의견분석을 실시하여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제시를 위한 시사점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기존의 농촌관광 활성화 연구에서는 농촌관광 수요자인 관광객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등 급격한 국내외 관광 환경변화와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래에 따른 농촌지역의 관광여건을 파악하고 현실적인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6개 농촌관광 사업유형 중 농촌관광 공급에 가장 큰 역할을 하며 사업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15개 시군의 139개 마을 중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3개 마을을 제외 한 136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에 따른 시사점 및 정책과제 도출 결과 첫째, 농촌체험휴양마을별 특색 있는 농촌체험활동 및 계절별 다양한 축제 이벤트를 개발하고, 관광객 체류 도모를 위해 숙박체험 개발 전략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여가여행 트렌드 변화에 따라 소규모 숙박시설, 캠핑 등 아웃도어 숙박, 한적한 여행지로 등의 방문수요가 증가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농촌관광 인프라 및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운영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충남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전략은 충청남도 인근 대도시(서울, 경기, 세종 등)의 학생 단체 및 동호회 등 성인 단체를 타겟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로, 홍보에서 온라인 비중의 확대, 모바일 앱을 활용한 사전예약 서비스 제공, 모바일페이 등 결제수단 다각화 등 최근 방문객이 선호하고 있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제공을 위해 관계자 훈련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농촌체험 운영에 그치지 않고 마을 주요 자원과 접목한 농촌 소득 모델을 구축하고 6차 산업화를 통한 지역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정책과제 도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충남 농촌관광 추진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포스트코로나 대비 수요 주도형 농촌관광으로 전환, 둘째, 농촌관광 프로그램 범위 확대와 다양화, 셋째, 농촌관광 정책지원 방향 전환, 넷째, 개별 공급자 육성에서 네트워크 연계로 전환 등 네 개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충남의 농촌관광 여건과 실태 분석을 통해 향후 충남 농촌관광이 나아가야 할 정책추진 방향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 농촌관광 수요자(관광객) 중심의 실태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도출이 아닌 충남 농촌관광의 주요 공급체로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경영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관계자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등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적으로 환경에 변화에 대응하여 충남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침체되어가고 있는 농촌관광 운영 실태 및 경영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새로운 활력 모색을 위해 농촌관광 운영주체가 인식하고 있는 농촌관광 활성화 전략을 도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충남 농촌관광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추진정책 방향과 전략추진과제 도출을 위해 농촌관광 관련 이론연구와 국내외 정책 동향 및 농촌관광 향후 수요 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충남의 농촌관광의 대표적인 사업주체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실태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충남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과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충남 농촌관광의 주요 현황 및 실태 분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된 자료를 통해 충남농촌관광 실태 전체를 조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코로나19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연구추진 여건 등에 의해 도내 136개 농촌체험휴양마을 외 농촌교육농장, 농가맛집, 관광농원, 농촌민박,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5개 농촌관광 사업유형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충남의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도출을 위해 농촌관광 공급주체를 중심으로 실태분석을 실시하여 정책방안을 도출하였으나, 대내외적 관광환경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충남 농촌관광 수요자 및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정책방안 도출이 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각적인 정책방안 도출을 위해 충남 농촌관광 관련 주체별로 실증적인 의견조사를 추진하여 내실 있는 충남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및 자료

- 고평훈(2013),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전라남도를 중심으로-
관계부처합동(2019), 대한민국 관광혁신 전략
- 구문모, 남정숙(2017), 「창의적 농촌경제의 성공 모델 (창의적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모형 개발)」, 북코리아
- 국립농업과학원(2020) 농촌관광 Insight1-농촌관광, 즐길거리 재발견
- 김광선, 안석, 박지연(2016),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융·복합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민정, 마을을 성정사킨 농산물 꾸러미 무릉외갓집, 월간디자인, 2018년 5월호.
- 김수석(2020), 영국의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사례와 시사점, 「세계농업」 제234호, 2020.0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수석(2020), 일본의 농촌관광, 「세계농업」 제234호, 2020.0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학용(2018), 문화자원의 융합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원 : 문화융복합학과 문화융복합 기획
- 김현주, 전효재, 권태일, 최경은, 오훈성(2020), 코로나19의 관광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 김혜인(2019), 한국관광 2020, 관광의 미래를 전망하다, 「한국관광정책」 제 78호-2019 겨울호
- 노왕철 서천군 서면 주항리 봉하마을 농업6차산업 마을기업 준공, 충청투데이, 2015.07.27.일자.
- 농림부(2006), 농림업 주요통계
- 농림수산식품부(2008),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해설집」
- 농림축산식품부(2015),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 농림축산식품부(2016),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 농림축산식품부(2016), 한중 지역단위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 농림축산식품부(2016.2.23.), “농식품부, 유관기관 역량집중을 통해 국내외 농촌관광객 1천만 명 유치 추진.” 보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7),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2020), 농가 및 농가인구, e-나라지표, 통계청 『농업조사』, 『농업총조사』
 ('00년 '05년 '10년 '15년)

농림축산식품부(2021) 2021년 농식품 사업안내서

농촌진흥청(2019), 교육농장 정보

농촌진흥청(2020), 국민 농촌관광 실태조사

미래정책연구실(2019),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 외

박성호(202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박시현 외(2006), 농촌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시현 외(2012), 농촌관광의 새로운 방향과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시현(2019), 한국의 농촌개발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윤희(2003), 농촌관광을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 방향, 한국관광개발수위원회

방은주, 암울한 코로나19 시대? 우리는 이렇게 극복해요, 양평시민의 소리, 2020.10.08.일자.

서부지방산림청(2018), 천관산 동백숲 산림유전자원을 활용한 지역 거버넌스 모델 개발
 연구보고서

이성주, 지역경제를 살린 경관농업(춘천시와 평창 봉평 메밀꽃 단지), 경주신문,
 2018.08.09.일자.

이원희, 박주영, 조아라(2019),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전망 : 2020-2024

이인배 외 2인(2005), 충청남도 농촌체험관광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정기석, 2000년째 포도농사하는 마을, 농민이 안 떠나는 이유, 오마이뉴스,
 2017.01.10.일자.

조명호(2017), 강원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구 활성화 방안

충남연구원(2019), 마을만들기 행정사업 DB구축 2차,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충청남도 내부자료

충청남도(2020), 제 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충청남도(2021), 2020년 충남 통계연보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2020), 농어촌지역 문화복지시설 유형별 설치규모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한국지역정보개발원(2018), 지역정보화, 정보화마을을 가다 제주 서귀포시 ‘무릉도원
정보화마을’.

한금주, 류인평(2020), 농촌관광 서비스품질, 체험, 이미지, 만족, 충성도 관계연구
한울(2021),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가족끼리 캠페인 : 양평 수미마을 최성준 대표,
한국농어촌공사

행정안전부(2020),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2019), 2022년 외래관광객 2,300만명, 관광산업 일자리
96만명 이룬다

황의식 외15인(2020), 코로나19대응 농업농촌부문 영향과 대응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농림축산식품부(<https://www.mafra.go.kr>)

농촌진흥청 농사로(<https://www.nongsaro.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

지방재정365(<https://lofin.mois.go.kr>)

충남관광(<https://tour.chungnam.go.kr>)

충청남도(<http://www.chungnam.go.kr>)

한국농어촌공사(<https://www.ekr.or.kr>)

■ 집 필 자 ■

연구책임	조봉운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진	이인배	충남연구원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조소진	충남연구원	연구원
	김보람	충남연구원	연구원

전략연구 2021-24 · 충남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중심으로 -

글쓴이 · 김경태, 이인배, 조소진, 김보람

발행자 · 유동훈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21년 12월 31일 / 발행 · 2021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59(대표)

ISBN · 978-89-6124-580-7

<http://www.cni.re.kr>

© 2021.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www.cni.re.kr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TEL. 041)840-1114

FAX. 041)840-1129

ISBN: 978-89-6124-580-7